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음악학석사학위논문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비교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이론전공

이 동 희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비교연구

지도교수 김 우 진

이 논문을 음악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이론전공
이 동 회

이동회의 음악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 원 장 김 승 근 (인)

부위원장 이 윤 정 (인)

위 원 김 우 진 (인)

국 문 초 록

창작판소리 <이준열사가>는 박동실과 정철호의 작품이 전하는 데, 이들은 학습배경 및 시대적 상황이 다르므로 음악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와 정철호의 <이준열사가>를 비교·분석하여, 두 작품의 특징을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두 작품의 사설구조와 음악적 요소를 비교하여 작창가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음악구성과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설구조에서 박동실(사설 박만수)은 절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개와 위기에 높은 사설비중을 두었다. 정철호(사설 박황)는 발단과 전개에 높은 사설비중을 둔 반면 위기와 절정은 간략하게 사건해설만하여 빠르게 결말로 넘어가서 이준의 자결이라는 극적인 상황보다는 죽음 후의 슬픔을 강조하였다. 박동실(사설 박만수)은 한자어와 고사성어를 많이 사용한 반면 정철호(사설 박황)는 한자어를 한글로 쉽게 풀어서 사용한다. 박동실(사설 박만수)은 전통적인 판소리 요소들을 갖추어 대화체로 몰입감을 살려주는데 정철호(사설 박황)는 대화체가 나오지 않는다.

둘째로 불임새의 경우, 박동실과 정철호는 모두 대마디 대장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박동실은 정철호보다 대마디대장단의 사용빈도가 낮으며 엇붙임, 잉어거리, 완자걸이, 혼합불임새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박동실은 정철호보다 불임새를 다채롭게 활용하여 리드미컬한 소리를 구사한다. 반면 정철호는 혼합불임새의 사용을 절제하여 가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악조의 경우,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는 우조와 계면조를 사용하고 있다. 박동실은 전개부분에서 c(la)본청 계면조와 e^b(do)본청 우조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위기부터 결말까지는 계면조를 사용하였

다. 정철호는 발단부분에서 e(do)본청 우조로 시작하여, 전개 중반부터 우조에서 c[#](la)본청 계면조로 전조되고 가끔 f[#](re)으로 청의 변화를 준다. 위기는 우조, 절정과 결말은 계면조를 사용했다. 박동실과 정철호 모두 우조의 청보다 계면조의 청이 단3도 낮다. 박동실과 정철호는 모두 <이준열사가>를 계면조 중심으로 작창 하였으나, 박동실이 정철호보다 계면조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선율의 경우, 박동실은 각 대목의 시작 선율이 다채롭지만 정철호는 동음 반복으로 시작한다. 박동실은 잔가락을 많이 사용하여 완전8도 도약·급강하는 선율 진행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철호는 잔가락이 적으며 완전4도 상·하행 선율이 자주 나타난다. 두 사람 모두 소리를 이면에 맞게 구성하고 있으나 박동실의 선율이 정철호보다 더욱 기교적이며 극적이다.

본 연구는 창작관소리 <이준열사가>에 한하여 박동실과 정철호의 음악적 성향을 살펴보았다. 박동실은 관소리적(예술성)인 상대적 특징이 보이고, 정철호는 창극적(대중성)인 상대적 특징이 보이는데, 이는 사설 구조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어서 두 작창가의 특성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작창자의 음악적 특징은 앞으로 여타 열사가류 음악들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창작관소리, 이준, 열사가, 박동실, 정철호, 작창

학 번 : 2009-21753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7
4. 박동실과 정철호의 활동	12
II.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분석	15
1. 사설구조	15
2. 음악 분석	29
III.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분석	55
1. 사설구조	55
2. 음악 분석	63
IV.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비교	86
1. 사설구조 비교	86
2. 음악 비교	100
V. 결 론	110
참고문헌	112
Abstract	115
부 록 1	117
부 록 2	138

표 차례

<표 1> <이준열사가> 연구대상 음반	8
<표 2> 박동실 <이준열사가> 사설구조	28
<표 3> 박동실 <이준열사가> 노래 부분	29
<표 4>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의 장단 구성	30
<표 5>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의 장단 구성	34
<표 6>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의 장단 구성	37
<표 7> 박동실 <이준열사가> 결말의 장단 구성	40
<표 8>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의 악조	43
<표 9>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악조	45
<표 10>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악조	46
<표 11> 박동실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악조	46
<표 12> 박동실 <이준열사가> 악조 종합표	47
<표 13> 정철호 <이준열사가> 사설구조	62
<표 14> 정철호 <이준열사가> 노래부분	63
<표 15> 정철호 <이준열사가> 발단의 장단 구성	64
<표 16> 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의 장단 구성	65
<표 17>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의 장단 구성	68
<표 18> 정철호 <이준열사가> 절정의 장단 구성	70
<표 19> 정철호 <이준열사가> 결말의 장단 구성	71
<표 20> 정철호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악조	73
<표 21> 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악조	74
<표 22>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악조	75
<표 23> 정철호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악조	75
<표 24> 정철호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악조	76
<표 25> 정철호 <이준열사가> 악조 종합표	77
<표 26>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사설비교	86
<표 27>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사설비교표	88
<표 28>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사설비교	88
<표 29>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사설비교표	90

<표 30>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사설비교	91
<표 31>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사설비교표	93
<표 32>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사설비교	94
<표 33>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사설비교표	95
<표 34>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사설비교	96
<표 35>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사설비교표	97
<표 36>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사설구조 비교	99
<표 37>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장단구성 비교	101
<표 38>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단계별 붙임새 비율	103
<표 39>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붙임새 비율	105
<표 40>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악조 비교	106
<표 41>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선율비교	107
<표 42>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선율비교	108
<표 43>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선율비교	109

예보 차례

<예보 1>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대마디대장단(중모리 제1장단)	30
<예보 2>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엇붙임(중모리 제11~13장단)	31
<예보 3>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교대죽(중모리 제36~37장단)	31
<예보 4>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잉어걸이(중모리 제23장단)	32
<예보 5>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대마디대장단(중중모리 제1장단)	32
<예보 6>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완자걸이(중중모리 제13장단)	33
<예보 7>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혼합붙임새(중중모리 제3~4장단)	33
<예보 8>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대마디대장단(자진모리 제1장단)	35
<예보 9>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엇붙임(자진모리 제8~9장단)	35
<예보 10>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혼합붙임새(자진모리 제22~23장단)	36
<예보 11>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대마디대장단(진양조 제1~4장단)	36
<예보 12>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교대죽(진양조 제6장단)	37
<예보 13>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혼합붙임새(자진모리 제18~21장단)	38
<예보 14>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엇붙임(자진모리 제8~9장단)	38
<예보 15>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잉어걸이(자진모리 제9장단)	39
<예보 16>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교대죽(자진모리 제7~8장단)	39
<예보 17> 박동실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대마디대장단(진양조 제6~7장단)	40
<예보 18> 박동실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엇붙임(진양조 제10~11장단)	41
<예보 19> 박동실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엇붙임(진양조 제4장단)	41
<예보 20> 박동실 전개 제1장 중모리 제1장단~제3장단	48
<예보 21> 박동실 전개 제1장 중모리 제32장단~제36장단	49
<예보 22> 박동실 위기 제1장 자진모리 제1장단~제6장단	50
<예보 23> 박동실 위기 제2장 진양조 제1장단~제4장단	51
<예보 24> 박동실 절정 자진모리 제1장단~제8장단	52
<예보 25> 박동실 결말 진양조 제1장단~제5장단	53
<예보 26> 정철호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대마디대장단(중모리 제1장단)	64
<예보 27> 정철호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엇붙임(중모리 제6~7장단)	64
<예보 28> 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대마디대장단(중모리 제10장단)	66
<예보 29> 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엇붙임(중모리 제11~12장단)	66
<예보 30> 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교대죽(중모리 제8장단)	66

<예보 31>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대마디대장단(진양조 제1~2장단) ...	67
<예보 32>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엇붙임(진양조 제8~9장단)	68
<예보 33>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대마디대장단(중모리 제3~5장단) ...	69
<예보 34>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엇붙임(중모리 제1~2장단)	69
<예보 35> 정철호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대마디대장단(엇모리 제1~2장단) ...	70
<예보 36> 정철호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도섭(엇모리 제9~12장단)	71
<예보 37> 정철호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대마디대장단(진양조 제1~2장단) ...	72
<예보 38> 정철호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엇붙임(진양조 제8~9장단)	72
<예보 39> 정철호 발단부분 중모리 제3장단~제7장단	78
<예보 40> 정철호 전개부분 중모리 제1장단~제2장단	79
<예보 41> 정철호 전개부분 진양조 제28장단~제33장단	80
<예보 42> 정철호 위기부분 중모리 제1장단~제3장단	82
<예보 43> 정철호 절정부분 엇모리 제1장단~제6장단	83
<예보 44> 정철호 결말부분 진양조 제1장단~제5장단	84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전통판소리 다섯 바탕 이외의 작품으로 20세기 이후 새로운 사설에 새로운 선율을 붙여 부른 것을 창작판소리라 한다.¹⁾ 최초의 창작판소리는 원각사에서 공연했던 <최병도타령>으로 기록²⁾된다. 이후 <추풍감별곡>, <숙영낭자전>, <옥루몽>, <배비장전>, <장끼전>이 일제강점기 때 창극으로 공연되었다.³⁾ 해방 직후 박동실이 <열사가>를 작창하여 보급시켰으며, 1950년대까지 큰 인기를 누렸다. 창작판소리<열사가>는 일제에 항거한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소재로 <이준열사가>, <안중근열사가>, <윤봉길열사가>, <류관순열사가> 등의 모음곡이다.⁴⁾ 박동실의 <열사가>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배어있으며 비분과 강개로 사설이 짜여있으나, 박동실의 예술적 음악역량이 반영되고 식민통치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민족구성원의 열망⁵⁾에 힘입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50년대는 남북전쟁과 음악인들의 월북으로 창작판소리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꾀하던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는 민족주체성이 예술계에 반영된다. 창작판소리에도 우리 것을 찾으려는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새로운 창작 작업을 추구했던 정철호는 1980년 <열사가> 음반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정철호는 박동실의 <열사가> 외에도 이순신을 비롯하여 권율과 전봉준 그리고 국내외 독립투사 등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판소리를 작창하여 <열사가>의

1) 김 연, 「창작판소리 발전과정연구」, 『판소리연구』 24집(판소리학회, 2007), 44쪽.

김연은 단가, 창극, 더듬은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창작판소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2) 박 황, 『창극사 연구』(백록출판사, 1976), 29쪽.

3) 김 연, 위의 논문, 45쪽.

4) 정병현, 「명창 박동실의 선택과 판소리사적 의의」, 『한국민속학』 36호(한국민속학회, 2002), 220~221쪽.

5)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실의 의식지향과 현대판소리사에 끼친 영향」, 『판소리연구』 13집(판소리학회, 2002), 17쪽.

범주를 크게 확대시켰다.

정철호는 소리꾼이자 명고수이며 거문고, 아쟁과 같은 기악 연주자이기도 하다. 그는 각 분야에서 높은 기량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창극을 연출하고 약 2만여 곡의 기악곡 및 판소리와 민요를 작곡하였다.⁶⁾ 그러나 지금까지 정철호의 작품들이 창작판소리에 관련된 연구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정철호는 그가 창작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앞으로 창작판소리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창작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판소리가 소수의 몇몇 창작자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기교를 많이 부리지 않고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내가 창작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오늘날 판소리가 너무 어려워지고 사실의 엇볼임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뜻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를 항상 아쉽게 생각하였다. 앞으로 판소리가 쉬운 말로 불러져야만 한다. 특히 그동안의 판소리가 가공의 추상적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야기를 전개하였는데 이보다는 실제 역사속의 인물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해방이후 역사가 힘들었는데 개인의 안일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열사들을 알리고 그 뜻을 기리고 싶어 이를 판소리로 만들었다.”⁷⁾

위 내용과 같이 정철호는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기교를 절제하여 사실이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상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기 보다는 실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정철호는 전통음악의 핵심요소와 주제 설정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선택을 남기며 창작판소리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정철호의 작창 의도와 방식이 <열사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한 선행연구가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6) 임상래, 「창악인 정철호」(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6쪽.

7) 김 연, 앞의 논문, 58~59쪽 인용. 위의 내용은 2003년 12월 6일, 김연이 정철호와 서울 성북구 홍제동 자택에서 면담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창작판소리<열사가>를 만들어 한 시대를 풍미한 박동실 <이준열사가>와 같은 소재를 다룬 정철호 <이준열사가>를 고찰하여 두 작창자의 음악적 특징을 구체화하고자한다.⁸⁾ 또한 두 음악을 비교·분석하여 작창자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음악구성과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8) 김정태, 「정철호 창작 판소리의 작품세계 연구」, 판소리학회 제83차 정기학술대회발표문, 2017, 41쪽. 이준에 대한 소재를 다룬 열사가가 박동실과 정철호를 제외하고 송영석의 ‘해야 회의 가는 밀사(10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본고를 모두 작성한 후에 김정태의 논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세 사람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차후 과제로 남긴다.

2. 선행연구 검토

창작판소리에 대한 논의와 실험은 20세기 전반기부터 지속되어왔다. 특히 박동실이 제작하고 보급한 <열사가>는 창작판소리의 본격적 출현이자 판소리 영역의 확대라는 점에서 각별하게 주목받았다.

최동현⁹⁾은 박동실을 연구 대상으로 학계에 소개했으며, 박동실의 음악 활동 및 서편제 소리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정병헌¹⁰⁾은 박동실의 음악 활동을 재조명하여 창작판소리 <열사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기형¹¹⁾은 1930년대 이후부터 월북 전까지 박동실의 활동을 살피고 박동실이 민족의식을 겸비한 명창이자 교육자로서 서편소리 전승의 핵심인 물임을 밝혔다. 김진영¹²⁾은 박동실의 사제관계를 통해 광주소리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판소리의 외연을 확대한 박동실이 판소리 교육자로서의 능력 또한 높았음을 서술하였다. 이경엽¹³⁾은 박동실의 가계와 통혼관계를 통해 박동실이 계승한 소리에 주목하여 광주소리의 특징을 살폈다.

이진원¹⁴⁾은 박동실이 직접 1966년 『조선음악』에 발표한 글과 증언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박동실의 창극 활동과 창극의 초기 양상을 연구하였다. 이보형¹⁵⁾은 박동실의 소리는 음악적 짜임새가 견고하고 박동실이 지향한 서편제가 높은 예술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장휘주¹⁶⁾는 박동실제 <심청가>의 음악적 구조와 정취를 연구하여 이면을 잘 그리고 계면조와 시김새가 많이 쓰였음을 밝혔다. 배성자¹⁷⁾는 박동실의 제자인 한애순의 음원

9) 최동현, 「분단에 문헌 서편소리의 대부-박동실론」, 『판소리 명창과 고수연구』, 도서출판 신아, 1997.

10) 정병헌, 「명창 박동실의 선택과 판소리사적 의의」, 『한국민속학』 제36집, 한국민속학회, 2002.

11) 김기형, 「판소리 명창 박동실의 의식지향과 현대판소리사에 끼친 영향」, 『판소리연구』 제13집, 판소리학회, 2002.

12) 김진영, 「박동실 명창의 삶과 예술」, 『인문학연구』 제7호, 경희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3.

13) 이경엽, 「명창 박동실과 창작판소리 -지역문화론적 활용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10집, 남도민속학회, 2004.

14) 이진원, 「박동실 증언 “창극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를 통해 본 창극의 초기양상」, 『판소리연구』 제18집, 판소리학회, 2004.

15) 이보형, 「박동실의 음악세계」, 「명창 박동실 추모 학술대회」(판소리학회 제45차 정기 학술대회, 담양문화회관, 2003년 12월 12일.)

16) 장휘주, 「박동실제 <심청가>의 構造와 情趣」, 『판소리연구』 제19집(판소리학회, 2005), 118~140쪽.

을 통해 광주소리 <심청가>와 정응민제 <심청가>를 비교분석하여 광주소리의 특징과 전승양상을 고찰하였다. 또한 박동실의 <열사가>를 분석하여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고 평하였다. 김민영¹⁸⁾은 박동실의 <열사가>를 복원한 이성근 창 <열사가>를 연구대상으로 장단, 선율, 음악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상 박동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박동실의 일생을 조명하거나, 그의 음악 업적이 판소리사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박동실의 광주소리 <심청가>를 비교대상으로 두거나 <열사가>의 음악적 특징을 살피는 연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묻혀있던 박동실의 음악활동과 업적, 음악성향을 조명하고 이해하는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박동실의 <열사가>에 대한 비교를 통한 음악적 고찰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정철호와 관련된 연구는 박동실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임상래¹⁹⁾는 정철호의 생애를 전통음악의 학습기, 아쟁창시와 여성국극단 활동, 작창가로의 활동으로 나누어 정철호의 업적과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창악인 정철호의 활동에 집중하여 음악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최진숙²⁰⁾은 국립창극단의 창단초기부터 2004년까지 창극공연에서 작창에 참여한 작창가를 살펴보았다. 그 중 국립창극단의 작품에서 가장 많은 작창을 담당한 창자로 김소희, 정철호, 안숙선임을 밝혔다. 이는 정철호가 창극장작에 많은 활동을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아쟁산조 관련 연구²¹⁾에서는 아쟁산조 형성의 초창기 때 정철호의 아쟁산조 구성을 짧게 언급하고 있다. 김성근²²⁾은 정철호 아쟁산조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정철호의 아쟁산조를 분석하여, 정철호 아쟁산조는 계면선법이며 시나위 더늠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최근에는 김정태²³⁾가 정철호의 창작판소리인 <열사가>·<훈민정음>의 작

17) 배성자, 「박동실 판소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8) 김민영, 「열사가 선율분석: 이성근 창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9) 임상래, 「창악인 정철호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0) 최진숙, 「창작 창극 『제비』의 음악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1) 김용호, 「산조아쟁의 발생과정과 아쟁산조의 유파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관웅, 「아쟁산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이태백, 「아쟁산조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2) 김성근, 「정철호류 아쟁산조 선율구조분석」,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품 세계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여 정철호의 음악업적과 성과를 조명하였다. 김정태는 열사가류를 비교하여 정철호의 <열사가>가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으며 음반으로 제작하여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정철호의 <열사가>가 창작판소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정철호 <열사가>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음악적 분석이나 다른 <열사가>와의 비교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박동실과 정철호의 음악세계와 업적을 다룬 논문들이 대부분이며 박동실과 정철호가 작창한 판소리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필자는 대상의 성격은 그 자체로서의 독립적으로 고찰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관계’ 속에서 그 본질이 명료히 드러날 수 있다.²³⁾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동실의 <이준열사가>와 정철호의 <이준열사가>를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여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음악적인 지향점을 고찰하고자한다.

23) 김정태, 「정철호 창작 판소리의 작품세계 연구」, 판소리학회 제83차 정기학술대회발표문, 2017.

24) 이기우, 「명창론」, 『판소리의 지평』, 도서출판 신아, 1990.

3.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자료

해방 전후로 박동실이 작창한 <열사가>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독립에 대한 강한 염원을 담은 창작판소리²⁵⁾이다. 당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민족구성원의 공통적인 정서였기에 <열사가>는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다. 그러나 박동실의 창으로 녹음된 <열사가>는 찾을 수 없고 이성근과 정순임이 1993년 박동실 <열사가>를 복원하여 녹음한 음반²⁶⁾이 유일하다. 박동실의 제자인 김동준에게 사사한 이성근은 <이준열사가>, <안중근열사가>, <윤봉길열사가>를 녹음했으며²⁷⁾ 정순임은 박동실의 제자인 장월중선으로부터 배운 <류관순열사가>를 복원하여 녹음했다.

정철호는 기존에 전해지는 <열사가>의 소재를 확장하여 총 11곡을 1979년 2장의 LP음반²⁸⁾으로 남겼으며, 2001년 정철호 작품집 4집 <열사가/신민요> 편²⁹⁾을 발매한다. 이 음반의 열사가편에 수록된 음원은 1979년 녹음된 음원 11곡 중에서 완성도와 대표성을 지닌 조상현 창<이순신장군>, 안향련 창<큰 별은 바다에 떨어지고>, 성창순 창<이준열사가>이다. 따라서 본고는 박동실이 작창한 이성근 창<이준열사가>와 정철호가 작창한 성창순 창<이준열사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상 비교할

25) 유영대, 「20세기 창작 판소리의 존재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제39집(한국민속학회, 2004), 244쪽.

26) 창작판소리 열사가(烈士歌) (주)킹레코드 SYNCD-047~048(2CD), 1993년 8월 제작. 음원자료 제공: 국악음반박물관.

27) 유영대, 「창작판소리 『열사가』에 대하여」, 『판소리연구』 제3집(판소리학회, 1992), 372쪽.

28) <신작판소리 烈士歌>, 서라벌레코드사 SR-0166-1~2(2LP), 1979년 8월 1일 제작.

(LP1) side A: 1.열사가 해설(심우성) 2.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조상현) 3.권율 장군(조상현) 4. 큰별은 바다에 떨어지고1(안향련), side B: 1.큰별은 바다에 떨어지고2(안향련) 2.녹두 장군 전봉준(박동진) 3.이준 열사1(성창순)

(LP2) side A: 1.이준열사2(성창순) 2.안중근 의사(정권진) 3.류관순 열사(정권진), side B: 1.국내외 독립 투사들(박동진) 2.윤봉길 의사(조상현) 3.815광복(박동진) 4.단가 고려장(정철호, 성창순)

29) 정철호 작품집 4집(열사가/신민요)(주)서울음반SRCD-1458(1CD), 2001년 8월 제작. 1979년 녹음한 <이순신가>, <큰별은 바다에 떨어지고>, <이준열사가> 3곡을 재수록하고 나머지는 정철호가 작창하여 1980년대~1990년대 녹음한 신민요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음원자료 제공: 국악음반박물관.

음원자료를 종합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이준열사가> 연구대상 음반

곡명	작사	창자	녹음연도	연주시간	음반명
박동실 <이준열사가>	박만수	이성근	1993년	20분52초	창작판소리 열사가
정철호 <이준열사가>	박황 ³⁰⁾	성창순	1979년	14분18초	정철호 작품집 제4집

2) 연구방법

박동실 <이준열사가>와 정철호 <이준열사가>는 같은 소재의 이야기를 다뤄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지만 사설과 음악이 서로 다르다. 두 음악의 사설 구조와 음악적 특징을 각각 분석한 후 비교하여 작창자의 소리구성 특징을 고찰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사설구조, 장단과 붙임새, 악조, 선율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첫째, 사설 분석에 앞서 서로 다른 두 사설을 비교하기 위해 소설의 구성 5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순³¹⁾으로 기준을 정해 사설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사설을 통사구조상 결속력이 있는 구절단위 혹은 음보단위³²⁾로 나누어 각 단계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니리와 소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았

30) 정철호가 1980년 8월 LP로 발매한 <신작판소리 烈士歌>의 책자에는 심우성이 작사한 것으로 기록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박황이 작사하였다고 한다. 이는 김정태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6월 10일 필자가 정철호에게 전화통화로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작사가를 박황이라고 서술하겠다. 김정태, 「정철호 창작 판소리의 작품세계 연구」(판소리학회 제83차 정기학술대회발표문), 36쪽.

31) 권영민은 “소설의 이야기는 사건을 어떤 질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므로 대개 일정한 구조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고 하였다. 본고는 소설의 구성 5단계에 <이준열사가>를 대입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태학사, 2006), 76쪽.

32) “구절단위란 산문일 경우 통사구조상 결속력이 강한 음보끼리 묶여진 것을 말하며, 음보단위란 율독이 가능한 사설인 경우 결속력이 강한 음보끼리 묶여진 것을 말한다.” 이규호, 「판소리 붙임새 용어 연구」, 『판소리연구』 제3집(판소리학회, 1992), 377쪽.

다. 또한 사설비중을 고찰하여 박동실(사설 박만순)과 정철호(사설 박황)가 어느 단계에 중점을 두어 강조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둘째, 장단은 사설의 이면을 그리는데 악조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창자는 사설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장단을 선택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장단을 분석할 때는 장단, 빠르기, 연주시간을 파악한 후 비교하겠다. 장단과 더불어 불임새³³⁾를 분석할 때는 <이준열사가>에 나타난 불임새의 출현빈도수를 파악하여 백분율로 나타내고 비교 분석하겠다. 불임새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³⁴⁾ 대마디 대장단,³⁵⁾ 엇불임,³⁶⁾ 잉어걸이,³⁷⁾ 교대죽³⁸⁾ 등으로 도섭³⁹⁾을 구분하여 분석하겠다. 본고에서는 한 장단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으로 불임새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합으로 불임새가 나타난 경우, ‘+’표시를 넣어 구분하겠다. 예를 들어 한 장단에 잉어걸이와 엇불임이 함께 나올 경우 ‘잉어걸이+엇불임’이라 명하겠다.

셋째, 악조는 어떤 악곡의 중심음(宮)의 높이를 뜻하는 조(調)와 그 구

33) 불임새는 박(拍)에 말을 놓아가는 모양새를 말하며 사설과 장단 사이의 결합 양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규호, 위의 논문, 361쪽.

34) 이보형, 「관소리 불임새에 나타난 리듬론」, 『장사훈박사 회갑기념 동양음악논총』(한국국악학회, 1977), 85~114쪽.

이광우, 「관소리장단의 엇불임」, 『소리와 장단』 제5권(대한고우회, 1988), 2쪽.

최동현, 「관소리 장단 연구」, 『관소리의 지평』(신아출판사, 1990), 195쪽.

이규호, 「관소리 불임새 용어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66-69쪽.

35) 대마디 대장단: 한 행의 사설이 각의 머리에서 시작하여 꼬리에서 끝나는 것으로 리듬이 고행에 따르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 대마디 대장단은 기본 장고 장단형을 따르기로 하겠다.

36) 엇불임: 사설의 한 행이 앞 장단의 뒷부분과 뒷장단의 앞 부분에 붙어 있는 형태이다. 최동현은 대마디 대장단을 제외한 것을 모든 형태를 엇불임에 포함시켰다.

37) 잉어걸이: 최동현은 쟁코페이션이라고 하였으며 사설이 주박(主拍)을 매우 짧은 시가로 밟고 나오는 형태이다. 본고에서는 장단 내에서 부박에 사설이 나타나는 것을 잉어걸이로 한정하겠다.

38) 교대죽: 사설 한 행의 중간에 긴 휴지부나 긴 소리가 끼어 있어서 얼마간 공간을 두었다가 행의 나머지 사설이 낚아채는 듯 빠르게 짧은 시가로 나타나는 형태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중간에 휴지나 긴소리의 기준을 기준이 되는 박으로 4박 이상일 때 교대죽이라 한정하겠다.

39) 도섭: 이보형은 도섭을 설명할 때, 장단을 던져 놓고 소리하거나 장단을 달아 놓고 소리한다고 서술하였다. “리듬이 장단 박에 메이지 않는 자유리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엇불임, 리듬의 신축이 일어나는 불임새”를 말한다. 이보형, 「관소리 불임새에 나타난 리듬론」, 『장사훈박사 회갑기념 동양음악논총』(한국국악학회, 1977), 105쪽.

성음의 음조직(음계)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⁴⁰⁾ <이준열사가>의 악조는 우조와 계면조로 구성되어 있다. 판소리에서 중심음(宮)을 ‘청’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는 음높이(key)⁴¹⁾를 일컫거나, 선법적인 면에서 종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청’이라는 용어를 중심음을 의미할 때 사용한다. 악조는 <이준열사가>의 출현음과 음역, 주요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도출하겠다. 판소리에서는 우조와 평조가 계면조와 함께 판소리의 기본 악조로 사용된다.

이보형은 우조와 평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된 바 있다. sol·la·do ‘re’·mi’/fa’의 5음 음계 평조 선법인 점에 있어서는 두 악조가 동일하지만 우조는 la·re’·mi’가 주요 선을 골격이고, 평조는 sol·do’·re’가 주요 선을 골격을 이루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평조는 sol음에 요성을 하고 re’음을 흘러내리는 특성이 있으며 종지는 주로 do’음으로 한다. 우조는 sol음에 요성을 하고 do’에서 흘러내리는 특성이 있으며, 종지는 주로 la나 re’음으로 한다.⁴²⁾ 이보형은 계면조의 원류는 육자백이 토리라고 했다.⁴³⁾ 계면조는 mi·la·si·do’⁴⁴⁾가 주요 선을 골격이고, mi음에 요성을 하고 do’~si로 꺾는 목이 나타난다. 중심음은 la음이다.

넷째, 선율을 분석할 때, 박동실과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유사한 사설 부분을 대상으로 선율진행을 서술하였다. 실음으로 채보한 예보를 제시하였다. 조가 다를 경우에 계명으로 비교하는 것이 차이를 드러내는데 용이하므로 실음 채보가 되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조표에 맞는 계명을 사용한다.

음악 분석 시, 선행연구에서 채보된 박동실 <이준열사가> 악보⁴⁵⁾와 필

40) 황준연, 『한국전통음악의 악조』(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20~27쪽

41) 윤명원, 「판소리 청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음악학』 제3호(한국전통음악학회, 2002), 420~430쪽.

42) 이보형,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 연구」, 『국립민속국악원 논문집』 창간호(국립민속국악원, 2001), 221쪽.

43) 이보형, 「육자백이토리 음조직 연구」, 제24집(한국음악학회, 1996), 12쪽.

44) 본고에서 사용하는 게이름명의 표기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되, 저음부터 옥타브 순으로 대문자-소문자-소문자에 표시(ˊ)를 넣어 구분하여 기보하겠다. (예시:La-la-laˊ)

자가 직접 채보한 정철호 <이준열사가> 악보를 사용한다. 두 악보는 조표를 일치시키지 않고 실음 그대로를 채보하여 두 음악을 비교하고 분석 하겠다. 왜냐하면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는 파생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음악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을 채보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음을 그대로 기보하였다.

둘째, 장단에 따른 마디의 구성은 진양조장단 6/♩ (1마디-6박), 중모리장단 12/4, 중중모리장단 12/8, 엇모리장단 10/8로 표기 하였다.

셋째, 예보의 표기는 박자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표기하고 음의 길이에 맞도록 붙임줄을 사용하였다.

45) 김민영, 「열사가 선율분석: 이성근 창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민영은 석사학위논문에 김백찬이 채보한 박동실의 <이준열사가>를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이 예보를 바탕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채보원칙에 따라 재가공하여 본고에 사용하였다.

4. 박동실과 정철호의 활동

본 절에서는 박동실과 정철호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출생과 학습, 예술·음반·교육 활동 등을 살펴보겠다.

1) 박동실의 활동

박동실(朴東實, 1897~1968)은 1897년 9월 8일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판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예인집안 출신으로 9살 때 아버지 박장원과 외조부 배희근의 제자인 김재관에게 소리를 전수 받았으며 박장원은 송만갑의 아버지인 송우룡의 제자였다.

박동실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난 뒤에 <춘향가>를 완창하여 ‘애기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1913년 13살이 되던 해에 광주 양명사무대의 창극공연에 출연한 이후, 1920년대 후반까지 매우 왕성하게 창극 활동을 하였다. 박동실은 이날치-김채만의 서편소리를 전승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한 그는 서편제에 속했으나 동편제를 독공하여 섞어서 자신만의 일가를 이루었다.

1930~1940년 초까지 박동실은 화랑창극단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시기에 박동실은 조상선과 함께 작곡을 주로 맡았다고 한다. 1945년 해방 후 광주에서 ‘광주성악연구회’를 창립하여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박동실은 1947년 창극단인 ‘국극협회’를 만들어 지방공연에 나서게 되지만 실패하고 극단은 결국 해체 된다.

1934년 무렵 박동실의 후원자였던 박석기(1899~1952)의 도움으로 전남 담양군 남면 지실마을에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제자들 양성한다. 당시 한애순, 김소희, 임유앵, 임춘앵, 박귀희, 오비연, 전명옥, 박명주, 김녹주 등이 소리를 배웠다. 광복 전후에 박동실은 <열사가> 등 새로운 판소리 작품을 짜거나 창작창극을 작곡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이후 안기옥, 정남희, 조상선, 임소향과 함께 1947년 평양에 설립된 국립예술극장 산하 고전악분과에 참여하여 음악활동을 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월북하였다.⁴⁶⁾

2) 정철호의 활동

정철호는 1927년 11월 25일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서흥리에서 태어났다. 증조부 정달현은 신청의 소속 무부였고, 조부 정희연 역시 다양한 국악기에 능통한 악사였다. 정철호의 아버지 정치조는 김달천 문하에서 판소리를 익힌 소리꾼이었으며, 할머니 김일심은 호남에서 이름난 무녀였다. 따라서 정철호는 전형적인 세습 예인에 속한다.

1940년에는 임방울 명창 문하에서 판소리 <적벽가>, <수궁가>를 학습하였다. 1945년 보성 정응민 문하에서 <적벽가> 중 삼고초려 대목을 학습하였다. 1947년 남원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여 소리꾼으로 이름을 알렸다. 1948년 임방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김재선 명인에게 판소리 고법을 학습하였다. 1963년 한갑득 명인에게서 거문고 산조를 익혔다. 창과 악을 두루 알고 반주하기에 그의 고법은 다른 누구의 고법보다 통합적이고 그 소리의 길을 제대로 알고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그의 작곡 영역에서도 발휘된다. 정철호는 1948년 10월 아쟁산조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정철호의 아쟁산조는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로 구성되며 남도소리의 애원성이 짙은 특징을 지닌다. 그의 아쟁산조는 서용석에게 전해져 서용석류 아쟁산조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1951년 이후 임춘앵 여성국극단과 수많은 여성국극단체에서 아쟁반주자로서 길을 걸으며 작곡과 작창에 매진하였다.

정철호는 창작 판소리 <김대건은 살아있다>, <성좌 이차돈>, <열사가>, <김대중 옥중단시>, 518 광주민주항쟁의 노래를 판소리로 엮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등 역사와 정치, 시대를 반영한 창작판소리를 다수 발표해 왔다. 2014년 12월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맹골도 앞바다의 깊은 슬픔>을 작창하며 시대의 아픔을 담은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창작판소리 뿐만 아니라 기악곡, 창극, 신민요, 불교음악과 관련한 작품을 작곡하였다.

1998년 제8회 동리국악상에 선정되었고, 1999년 세종문화상(대통령상),

46) 이경엽, 「명창 박동실과 창작판소리 - 지역문화론적 활용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 10집(남도민속학회, 2004), 181~215쪽. 박경화, 「창작판소리 박동실 명창의 안중근 ‘의사가’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12쪽. 위의 논문을 요약 및 참조하였다.

2000년 보관문화훈장수훈, 2008년 방일영국악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이다. 그는 고법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사단법인 판소리 고법 보존회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⁴⁷⁾

47) 임상래, 「창악인 정철호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36쪽. 김정태, 「정철호 창작 판소리의 작품세계 연구」(판소리학회 제83차 정기학술대회발표문), 2017, 29~31쪽. 위의 논문을 요약 및 참조하였다.

II.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분석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분석은 사설과 음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사설은 소설의 구성 5단계로 구분지어 분석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은 장단 및 붙임새, 악조, 선율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1. 사설구조

박동실의 <이준열사가>는 박만순의 사설에 박동실이 곡을 붙인 것이다. 사설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준이 고종의 밀서를 받는 부분부터 순국하는 장면까지의 내용이다. 본 절에서는 사설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의 구성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순으로 구분지어 각각의 사설내용을 살펴보겠다. 사설은 구절단위 혹은 음보단위⁴⁸⁾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고찰하고 사설비중과 구조를 살펴보고자한다.

1) 발단

발단은 작품의 도입 단계로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그 배경과 함께 나타나는 단계⁴⁹⁾이다.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발단은 시대 배경과 고종황제 명령으로 이준이 밀사로 파견되는 대목이다.

당노는 점점 일강세력/
시국정찰 모르나니//
개화당에 갑신정변⁵⁰⁾/

동양전국 다하여도/
한국말년 어지러워/
동학당의 갑오경장⁵¹⁾/

48) “구절단위란 산문일 경우 통사구조상 결속력이 강한 음보끼리 묶여진 것을 말하며, 음보단위란 울독이 가능한 사설인 경우 결속력이 강한 음보끼리 묶여진 것을 말한다.” 이규호, 「판소리 붙임새 용어 연구」, 『판소리연구』 제3집(판소리학회, 1992), 377쪽.

49)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태학사, 2006), 77쪽.

50) 갑신정변(甲申政變): 조선 고종 21년(1884)에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당이 민씨 일파를 몰아내고 혁신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일으킨 정변. 거사 이틀 후에 민씨 등의 수구당과 청

일러전쟁⁵²⁾을 하니//
 대한을 장악해 넣고/
 민심이 더욱 소란하고/
 그때여 화란에/
 고종황제 명령으로/

일본이 때를 얻어/
 보호조약⁵³⁾ 억제하니/
 간신이 틈을 탈 제//
 벌어진 만국평화⁵⁴⁾에/
 이준선생의 밀서가 들어가는데//

발단은 총 4절 16구로 구성된다. 박동실은 1~3절까지 갑신정변, 갑오경장, 러일전쟁, 일본의 대한장악, 보호조약 등 19세기 후반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을 4·4조로 열거하여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정세를 아니리로 설명한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요로 1905년 을사조약을 맺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4절 1구에 해당하는 “그때여” 부분부터 사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려준다. 고종황제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준에게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밀서를 전달한다. 발단은 작품의 배경 및 중심인물의 사건 시작을 알리는 서사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20세기 초반 대표할만한 역사적 사건을 간략하게 나열한 후 고종황제가 이준에게 밀서를 전달하는 내용까지 짧게 서술하고 있다.

나라 군사의 반격을 받아 실패로 돌아갔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 151쪽.

51) 갑오개혁(甲午改革): 조선 고종 31년(1894) 7월부터 고종 33년(1896) 2월 사이에 추진되었던 개혁 운동. 개화당이 정권을 잡아 3차에 이르는 개혁을 통하여, 재래의 문물제도를 근대식으로 고치는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단행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151쪽.

52) 러일전쟁(露日戰爭): 1904년에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일어난 전쟁.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1882쪽.

53) 을사조약(乙巳條約): 조선 광무 9년(1905)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로 맺은 조약.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4858쪽.

54)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 제정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주창으로 1899년과 1907년에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모여 군비 축소와 세계 평화를 논의한 국제회의.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협약, 독가스 및 특수 탄환 사용 금지의 선언 따위를 채택하고 국제 중재 재판소를 설치하였는데, 2차 회의 때에 고종이 밀사를 파견하여 당시 일본의 대한 제국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호소하고 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2014쪽.

2) 전개

전개는 사건이 복잡해지고 인물의 성격이 구체화되며 인물간의 갈등과 분류가 있어나는 단계⁵⁵⁾이다.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전개는 사설내용에 따라 전개 제1장과 2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장은 헤이그로 향하는 여정과 이준의 심상을 표현하는 부분이고 제2장은 이상설, 이위종의 합류와 헤이그 지역풍경을 묘사한 내용이다.

(1) 제1장

제1장은 이준의 인물치레와 망국의 한을 그린 이준의 심상을 묘사한 내용이며 총 4절 58구로 구성되며 중모리장단으로 노래한다. 제1절은 11구로 구성되며 ‘출출한 행장’, ‘표표한 걸음’, ‘군자의 절개’, ‘망명수참 그 얼굴’은 차림새와 행동, 인물상을 묘사하여 이준이 검소하고 절개 있는 충신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때여 이준선생/	삼천리 중한 국사/
품안에 안으시고/	출출한 행장으로/
엄숙하게 입으신 후에/	궁성에 하직하고/
길을 떠나 행하실제/	표표한 그 걸음은/
군자의 절개로다/	망명수참 그 얼굴은/
애국충신이 깊었구나//	

2절은 17구로 구성되며 ‘슬픈 소리’, ‘피를 내여 슬피 울어’, ‘만리원정 이별을 하니’, ‘촉국한이 깊었구나’, ‘망국지한’ 등은 밀서를 품에 안고 인천항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는 배 위에서 민생을 걱정하는 이준의 착잡한 마음을 표현한다.

삼각산 ⁵⁶⁾ 은 점점 멀고/	앞길은 창망 ⁵⁷⁾ 한데/
-----------------------------	---------------------------

55)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태학사, 2006), 78쪽.

56) 삼각산(三角山): ‘북한산’의 다른 이름.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있어 이렇게 부른다.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323쪽.

57) 창망(滄茫/蒼茫): ‘창망하다’의 어근. 근심과 걱정으로 경황이 없다.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5959쪽

어데서 슬픈 소리/
 뜻밖의 불여귀⁵⁸⁾는/
 만리원정 이별을 하니/
 진정채송 단장성은/
 가든 길 멈추시고/
 궁성에 하직을 하니/
 다시 올 길 막연하고/
 망국지한을 어이하리.//

풍편을 들려오고/
 피를 내여 슬피울어/
 명월공산 어데두고/
 축국한이 깊었구나/
 다시 발을 돌려서/
 슬프다. 그 걸음은/
 성외성내 남녀들은/

3절은 13구로 구성되며 이준이 인천항을 거쳐 동해로 건너가는 여정에서 장소의 변화를 담고 있다. ‘뱃전을 탕탕, 풍낭은 우루루, 물결은 출렁, 갈매기 까옥 까르르 울어’ 등은 뱃머리와 부딪치는 거친 파도와 센 바람으로 이준의 복잡하고 불안한 심상을 형상화한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운율이 느껴진다.

덧없이 가는 해는/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망망대해 푸른 물결/
 수운이 적막히 떠/
 풍낭은 우루루/
 갈매기 까옥가르르 울어/
 비거비래뿐이로고.//

서산을 넘고 넘어/
 동해로 건너갈제/
 바다지 하늘인지/
 뱃전을 탕탕/
 물결은 출렁/
 무심한 저 백구는/

4절은 17구로 구성되며 “소소춘풍 송한군에 올고가는 기러기야. 네 가는 곳 어데멘고~”로 시작한다. 기러기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나라 걱정과 고종에 대한 충심과 그리움을 독백으로 표현함으로써 슬픔이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소소춘풍 송한군에/
 네 가는 곳 어데멘고./
 구중궁궐 지내거든/

올고 가는 기러기야/
 대한민국 한양성/
 우리 상감 존체보존/

58) 불여귀(不如歸): 두견이의 동일어이다.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2918쪽

잊지 못할 이준이는/	만일 불행하올진대/
후생에나 다시 모신다고/	이 말을 부디 전하여라./
이렇듯이 탄식을 하니/	아무리 대장분들/
아니 올 수 있겠느냐./	구국간장 흐르난 눈물/
양소매를 다 적시고/	분하고 창한 기운이/
하늘 우에 떠오른다.//	

(2) 제2장

제2장은 동지합류와 네덜란드 헤이그 지역의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총 6절 34구로 구성된다. 1~3절까지는 아니리로 러시아(노국)에서 이상설과 이위종을 만나 함께 회의장으로 가는 내용이다. 3절은 서구식으로 머리를 자르고 양복을 갖추어 입은 이준의 외모변화를 설명해주고 있다.

여러 날 만에 천진을 거쳐/	노국에 다달아 이상설을 만나/
같이 노도에 들어가/	이위종을 만나니/
이는 의지가 상합한 동지라.//	국사를 서러워하매/
분기를 참지 못하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였겠다.//
그때여 이준선생은/	비로소 머리를 깎고/
양복을 고쳐 입으신 후에/	삼인이 동반하여//

4~6절까지는 중중모리장단으로 노래하며 헤이그 풍경을 묘사하는데 이는 장소의 변화에 맞춰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효과를 준다. 6절은 만국평화회의에서 국제권의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대접이 다를 것을 인지하고 국제권이 없어서 초라한 상황에 놓인 이준의 비참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화란 헤이그에 당도하니/	과연 시설이 장하고나./
화려한 문화주택/	층층이 높아있고/
장대하다 너른 길은/	십자가로 날러있고/
호기 있게 뛰는 마차/	기수에게 달려간다.//
거리거리 수인들은 /	왕래를 분별하여/
가르쳐 인도하./	거래가 분분하고/
의관문무는 다르고/	풍속을 비록 다르나/

예의 도덕은 일반이라.//	각국의 대표들은/
국제권이 있는 고로/	환영대 군악소리/
적격사가 각각 있어/	시종이 분별컨만/
우리나라 이준선생께/	뉘라서 환영하리.//

3) 위기

위기는 사건이 절정에 이르는 계기가 되는 단계⁵⁹⁾로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된다. 위기부분은 4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장은 이준일행이 만국평화회의 참석권을 거절당하지만 진정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제2장은 밀서에 적힌 내용을 서술한다. 제3장은 밀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전보를 치는 내용이다. 제4장은 대한제국의 간신들은 밀사파견 전보를 핑계 삼아 고종을 압박하고 위협하여 밀사파견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1) 제1장

제1장은 2절 21구로 구성된 아니리부분이다. 1절은 13구이며 대한제국이 외교력 부족으로 지지를 얻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이준선생의 고민이 담겨있다.

이준선생 일행은/	사처에 유숙할 제/
각국의 대표들은/	대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만 고려조를 아는지라./	과연 우리 역사가/
정치외교가 부족함을/	일로 보아 알리로되/
오호라 세상사/	어제 이리 한심할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만국호라 하였거늘/
편벽되면 ⁶⁰⁾ 어이하리.//	

2절은 8구로 구성되며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 동아시아의 이권을 함께 분할하려고 체결한 조약 때문에 참석권을 거절당한다. 이준

59)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태학사, 2006), 78쪽.

60) 편벽되다(偏僻--): 한쪽으로 치우쳐 공평하지 못하다.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6560쪽.

일행은 헤이그에서 첫 번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준일행은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여 간신히 밀서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때 일본이 영국과/	일영조약 ⁶¹⁾ 이 있어/
한국의 참석권을 거절하는구나./	이준선생 일행은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야/	간신히 참석권을 얻어/
장내에 들어가 /	그 밀서를 받들어 놓으니//

(2) 제2장

제2장은 2절 21구로 구성되며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노래한다. 1절은 밀서내용을 통해 일본의 악행을 고발하고 대한제국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2절은 독립국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세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고종의 뜻을 서술하고 있다. 3·4조 혹은 4·4조의 가사를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노래한다.

그 서문에 하였으되/	반만년 역사전통을 기록하고/
국호는 대한민국이라./	포악무도 일본악정/
무력으로 위협하고/	한편으로 침략정책/
억압을 일삼으니/	군신지소고하야/
원망이 장창이요/	일강세력 작궁하니/
무례함이 대신이라//	장차 한국 급한 공사를/
의논할 데 없거니와/	세계화가 될 것이니/
난색이 근본지축/	평화에 굴복되니/
후한함을 물리치고 /	약한 나라를/
보조해 달라는 뜻이니/	일본의 발표와는/
천연히 달랐구나.//	

(3) 제3장

제3장은 3절 24구로 구성되며 아니리이다. 1절은 8구로 구성되며 각국

61) 영일동맹(英日同盟): 1902년에 영국과 일본이 맺은 동맹 협약. 러시아의 동진(東進)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1905년에 공수 동맹으로 발전하였고 1910년에 인도의 영토 보전을 규정하였으나 1921년에 워싱턴 회의에서 폐기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4423쪽.

대사가 밀서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대한황제에게 전보를 치는 내용이다.

각국대사 묵묵히 앉았다가,/	‘이는 대한황제께 전보를 쳐/
명백한 회전을 받은 후에/	공사를 처리하리라.’/
이렇게 공문이 되니,/	그때여 이준선생은/
대한으로 전보를 띄워놓고/	홀로 앉아 곰곰 생각하니,//

2~3절은 24구로 구성되며 이준이 독백으로 친일파 간신의 손에 전보가 들어간다면 고종황제가 불리한 입장이 될 것임을 개탄한다. 2~3절은 이준의 죽음을 암시하는 비장한 내용으로 진양조장단에 맞춰 노래한다.

국내정세를 아는지라./	전보를 띄웠으나/
민지 못할 일로구나./	국운이 불행하여/
간신이 조정에 만백하여/	상감의 뜻을 어느 누가 받들어/
회전 공을 뉘게다 전하리.//	만일 회전이 온다해도/
적인의 손을 거쳐서 올 것이니/	이는 대세 불길이로구나./
나는 응당 죽을테나/	금옥같은 우리강산/
왜놈들에게 짓밟혀/	옥석구분이 될 것이니/
원통코 분한 마음/	천추원한이 되리로다.//

(4) 제4장

제4장은 4절 47구로 구성된다. 밀사 파견을 구실삼아 간신들이 고종황제를 협박하는 내용이다. 1절은 9구로 구성된다. 전보가 이완용에게 전달되어 이등박문과 송병준 일파가 어전에 몰려가는 내용의 아니리부분이다.

이렇듯이 슬피울 제/	그때여 우리나라에선/
과학문명이 어두워/	전보를 어떻게 치는 줄도 모르는 판에/
또한 전보는 이완용 ⁶²⁾ 앞에 떨어지니/	이완용 전보를 받아들고/
이등박문 ⁶³⁾ 을 찾아가 보인 후에/	송병준 ⁶⁴⁾ 일파를 데리고/

62) 이완용(李完用): 조선 고종 때의 친일파(1858~1926). 1910년에 총리대신으로 정부의 전권 위원이 되어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는 등 민족을 반역하였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백작(伯爵)을 받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4948쪽.

어전에 들어가 고종황제를 위협하되//

2~3절은 38구로 구성되며 밀사파견을 구실로 고종에게 책임추궁하고 압박하여 밀사파견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완용, 이등박문, 송병준 일파가 고종황제를 위협하는 대목은 모두 대화체이다. 2~3절은 간신과 고종황제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장면을 극대화하여 짧은 대사를 속도감 있게 전하다. 이런 대화체⁶⁵⁾는 고종과 간신의 갈등이라는 긴박한 상황을 눈앞에서 보는 듯이 감정이입이 되도록 한다.

‘이미 대한은 일본에게 부탁하고/ 이일을 어찌 하오리까.’/	이제와서 미룬 일이 없다고 하시니/
‘음 그것은 짐의 뜻이/	아니기로 그랬노라.’/
‘만일 그러합시면/ 그 어찌 막사오리까.’/	일본에 백만군사가 쳐들어오면/
‘그 백만 군사보다/ 불연 세계 일천만 군사가 있지 않는가.’//	만국평화에 의논하는 이 때/
‘상감께서는 간신들의 모략에 빠져/ 차라리 자결하여 /	저이들을 죽게 하옵시니/
간특한 송병준이 칼을 빼어/ 피로우신 고종황제는 /	피로운 국사를/ 잊고자 하나이다.’/
나무 끝에 오름이라./	거짓 자결코자 하니,/
울음으로 상감을 농락하고/ 날로 부귀를 탐을 내어 /	바늘방석에 앉음이요/
야단들이 났구나.//	군신지상하가 없으면/
황제 노하시사/	매국한 무리들이 죽니사니/
	‘사랑하는 내 신하를/

63) 이등박문(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의 잘못. 일본의 정치가(1841~1909). 막부 정권 타도에 앞장섰으며, 총리대신과 추밀원 의장을 지냈다. 주한 특파 대사로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으며, 1905년에 초대 조선 통감으로서 우리나라 국권 강탈을 준비하던 중, 1909년에 하얼비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496쪽.

64) 송병준(宋秉駿): 조선 고종 때의 친일 정치가(1858~1925). 이완용 등과 일진회를 조직하였고, 농상공부대신·내부대신을 지내면서 조선과 일본의 합방을 주장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 앞의 책, 3595쪽.

65) 대화체 사실은 음보단위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절단위로 나누었다.

수만리 타국에 보내고/
전보를 칠 수 없으니/
이완용, 이등박문 저이들 맘대로/
만국호에서 전보를 받아보고/
이래도 무슨 변명일꼬//

이제 와서 그런 일이 없다고/
경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든가/
그런 일이 없다고/전보를 띄웠구나.
각국대사 의기가 양양하여/

4) 절정

절정은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⁶⁶⁾로 이준이 민족의 독립을 외치며 자결하는 극적인 부분이다. 절정은 4절 29구로 구성되며 자진모리 장단에 맞춰 노래한다. 1절은 ‘분한마음⇒모골이 송연⇒피 끓어 턱에 차고⇒분함이 충천’으로 분노가 점층적으로 표출된다. ‘희석 앞으로 우루루루루루’의 부분은 이준이 달려가는 행동을 청각적으로 표현하여 급박한 상황을 연출한다.

이준선생 분한 마음/
피 끓어 턱에 차고/
희석 앞으로/

모골이 송연/
분함이 충천/
우루루루루루루루루//

2절에서 “이놈 왜놈들아” 외치는 부분은 호통치며 달려들 것처럼 우렁차다. 이준이 일본의 만행을 꾸짖다가 배달민족의 충혈을 보라며 칼을 꺼내어 자결하는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놈 왜놈들아/
대한을 위협하여 짓밟고/
우리 대한은 동방예의지국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겠느냐./
배달민족의 충혈을 봐라.’//

너희들 침략국이/
각국대사들을 속이느냐./
간사한 너희놈들/
오천년 역사가 썩썩한/

3절에서 ‘칼을 번 듯 내어’, ‘태극기 번 듯 내어’ 표현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살렸다. 이준의 분한 감정과 극렬한 반응은 의성어와 의태어로 묘사

66)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태학사, 2006), 78쪽.

되어 극적인 효과를 더해준다.

품안에 든 칼을/ 콧 찌르니/ 왜놈 낮에다/	번 듯 내여 가슴을/ 선혈이 복받쳐 오르고/ 선혈을 뿌리며//
--------------------------------	--

4절에서 ‘이놈 왜놈들아’ 외치는 부분은 ‘아드득 아드득’ 이를 가는 표현을 반복해줌으로서 분한 감정의 깊이와 자결한 이준 열사의 굳은 결심이 실감나게 묘사된다. 분노의 대상인 왜놈을 외치면서 호통을 치는 부분과 태극기를 꺼내어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면서 외치는 부분은 해결의 분기점과 같은 통쾌함을 전한다.

‘이놈 왜놈들아!’/ 태극기 번 듯 내여/ 삼창을 부르시더니/	앞니를 아드득 아드득/ ‘대한독립 만세 만세’/ 명이 점점 지는구나.//
--	--

5) 결말

결말은 주인공의 운명이 분명해지고, 사건의 긴장이 해소되는 단계⁶⁷⁾이다. 이상설과 이위종이 조사를 지어 올리며 이준의 죽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결말은 총 3절 44구로 구성된다. 1절은 9구로 구성되며 이준의 죽음 후 ‘청천에 기러기’, ‘고요한 장내’, ‘쓸쓸한 찬바람’, ‘적막’ 등 주변상황과 분위기를 아니리로 읊는다.

일월도 무강하야/ 청천에 기러기는/ 충혼을 슬피울 제/ 원한은 가득한데/ 적막을 누리는구나.//	산남도 서러워한 듯/ 충혼에 떠서 높고/ 장내는 고요하고/ 쓸쓸한 찬바람만/
---	---

67)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태학사, 2006), 79쪽.

2절은 20구로 구성되며 이준의 죽음 후 이상설·이위종이 이준의 영좌를 모셔 축문을 외는 부분이다. 이는 전통판소리에서 보이는 ‘축문’사설과 유사하다. 축문사설은 대체적으로 4음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사체로 되어있다. 절정에서 감정 폭발을 시킨 후 다시 차분하게 축문을 장단 없이 창조로 느리게 읊으면서 긴장을 이완시킨다.

그때여 같이 갔던/	두 분 선생은 어찌되겠느냐./
분하고 쓸쓸한 기운이/	하늘 위에 떠오르고/
절치부심 일본을/	가리켜 원망을 하며/
영좌를 모셔/	축문을 외는데/
‘대한국 한양성/	거하신 이준선생/
만리화란 복명하여/	영결종천 슬프다./
숫는 눈물 피가 되고/	구곡간장 타는 가슴/
구천지에 사무치니/	오호 통재 원통함을/
어느 때나 풀어보리./	구천지하 다시 만나/
미진한 국사를/	선생님 전 아뢰리다.//

3절은 15구로 구성되며 ‘조사지어 올리더니 그 자리에 가 엎드려 지드니마는’에서 연극대본의 지문처럼 이상설·이위종의 행동을 묘사한 후 대화체로 이준의 자결에 대한 분한마음을 진양조장단에 맞춰 토로하고 한탄하는 내용이다.

조사지어 올리더니/	그 자리에 가 엎드려지드니마는/
‘아이고 분하여라./	우리 충성이 부족튼가./
국가 운명이 불길튼가./	만리화란 복명하여/
국가대세가 그릇되니/	무슨 면목으로 낮을 들고/
고향산천을 돌아가며/	구중궁궐 상감마마를/
왕반서로 볼 것이니/	무슨 말로 대답하리오./
선생은 만사를 잊고 가지만/	이다음 일을 어찌하리./
어응 어응.’ 울음을 운다.//	

지금까지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사설을 소설의 구성 5단계로 나눈 후, 각 단계의 사설을 다시 절과 구로 나누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설은 아니리 중 대화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3·4 조 혹은 4·4조를 기본으로 하는 운문체이다. <이준열사가>는 기존의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이완과 골게미가 들어가지 않고 긴장과 비장의 연속으로 서술된다.

둘째, 아니리는 발단, 전개 ‘동지합류’ 대목, 위기 ‘참석권 거절’ 대목과 ‘전보’ 대목, ‘밀사파견구실 고종 압박’ 대목, 결말 전반부의 ‘축문’ 대목 등 6번 나온다. 아니리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시대배경, 상황설명, 행동묘사 및 장소전환이거나 대화체가 나올 때이다. 아니리 다음에는 반드시 노래가 나온다.

셋째, 각 단계별 사설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사설은 총 302구로 구성된다. 발단(16구)은 5.3%로 비중이 가장 낮았고 전개(92구)는 30.5%, 위기(121구)는 40%이다. 절정을 향해가는 전개와 위기를 합하면 7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절정(29구)은 9.7%이며 결말(44구)은 14.5%로 절정보다는 높은 비중이다.

즉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사설구조는 위기-전개-결말-절정-발단 순으로 사설 비중이 높았다. 발단이 짧고 간결하며 위기의 아니리에 대화체가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절정은 의태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극적인 상황을 묘사하였다. 결말은 절정보다 사설비중이 높으며 이준의 죽음 후 슬픔을 충분히 강조하였다. 아니리-소리-아니리-소리의 대비적 패턴이 나타난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박동실 〈이준열사가〉 사설구조

구성		사설내용	장단	구(302)	비율(100%)
발단		시대배경, 밀사파견	아니리	16구	5.3%
전개	제1장	여정·이준심상	중모리	58구	30.5%
		동지합류	아니리	12구	
	제2장	헤이그 풍경	중중모리	22구	
위기		참석권 거절	아니리	21구	40%
	제1장	밀서내용	자진모리	21구	
		전보	아니리	8구	
	제2장	이준 고민	진양조	24구	
		밀사파견구실 고종 압박	아니리	47구	
절정		이준 분노·자결	자진모리	29구	9.7%
결말		축문	아니리	29구	14.5%
		탄식	진양조	15구	

2. 음악 분석

본 절에서는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아니리를 제외한 노래 부분을 대상으로 장단 및 붙임새, 악조, 선율 순서로 분석하여 음악적 특징을 살펴 보겠다. 아니리를 제외한 노래부분은 전개 제1장 ‘여정·이준심상’ 대목, 전개 제3장 ‘헤이그 풍경’ 대목, 위기 제2장 ‘밀서내용’ 대목, 위기 제4장 ‘이준고민’ 대목, 절정 ‘이준 분노·자결’, 결말 ‘탄식’ 대목 등 모두 6개이다.

〈표 3〉 박동실 <이준열사가> 노래 부분

구성		사설내용	장단	구	장단수
전개	제1장	여정·이준심상	중모리	58구	40
	제2장	헤이그 풍경	중중모리	22구	17
위기	제1장	밀서내용	자진모리	21구	26
	제2장	이준고민	진양조	24구	17
절정		이준 분노·자결	자진모리	29구	38
결말		탄식	진양조	15구	17

1) 장단 및 붙임새

본 항에서는 전개 제1장 ‘여정·이준심상’ 대목, 전개 제2장 ‘헤이그 풍경’ 대목, 위기 제1장 ‘밀서내용’ 대목, 위기 제2장 ‘이준고민’ 대목, 절정 ‘이준 분노·자결’, 결말 ‘탄식’ 대목을 대상으로 장단과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붙임새를 분석하겠다. 붙임새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분석하여 출현 빈도를 살펴보겠다.

(1) 전개

전개는 이준의 심상을 묘사한 제1장과 헤이그 지역풍경을 묘사한 제2장으로 나뉜다. 전개 제1장 ‘여정·이준심상’ 대목은 사설 58구를 중모리장단에 맞춰 노래한다. 전개 제2장 ‘헤이그 풍경’ 대목은 사설 22구를 중중모리장단에 맞춰 노래한다. 제1장의 중모리장단은 총 40장단, 연주시간은 5

분 25초이며 한배는 ♩=94이다. 제2장의 중중모리장단은 총 17장단, 연주 시간은 1분 12초이며 한배는 ♩=55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의 장단 구성

구분 \ 구성	장단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제1장	중모리	40장단	5:25	♩=94
제2장	중중모리	17장단	1:12	♩=55

① 제1장

제1장은 중모리장단 총 40장단이다.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 엇붙임, 교대죽, 잉어걸이 등이 나타난다. 제1장에서 대마디대장단은 제1, 4, 5, 14, 15, 16, 17, 18, 21, 32, 33, 34, 35, 38, 39, 40번째 장단 등 총 15장단이다.

다음 <예보 1>은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제1장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1>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대마디대장단(중모리 제1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그	때	여	△	△	△	이	준	선	생	△	△

‘그때여/이준선생’ 사설이 3박으로 된 대박 넷에 배치된다. ‘그때여/---’는 제1~6박에 놓이고 ‘이준선/생--’은 제7~12박에 놓여 두 음보가 한 장단과 일치하며 사설이 매 박의 주박에 붙으므로 대마디대장단에 해당한다.

제1장에서 엇붙임은 총 20장단으로 제2, 3, 6, 7, 8, 9, 11, 12, 13, 19, 20, 22, 23, 24, 25, 26, 27, 28, 30, 31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예보 2>는 박동실의 <이준열사가>전개부분 제1장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엇붙임의 예시이다.

〈예보 2〉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엇붙임(중모리 제11~13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눈에	-	감울	-	하는	-	구나	-	다	시	올	길
	기약	-	없	고	△	△	만	리	원	정	이	별
	인	테	△	△	이산	-	저	-	산	-	두견	-

‘다시 올 길/기약 없고’, ‘만리원정/이별인데’의 사설이 2장단에 걸쳐서 진행된다. 제 11~13번째 장단은 사설 한 행이 한 장단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앞 장단의 꼬리와 뒤 장단의 머리에 나뉘어 붙는 형태로 엇붙임에 해당한다.

제1장에서 교대죽은 총 3장단으로 제11, 36, 37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3>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제1장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교대죽의 예시이다.

〈예보 3〉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교대죽(중모리 제36~37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이	령	-	-	-	-	듯이	△	탄식	을	하니	△
	아	-	-	-	-	-	우리	△	대장	-	분	들

제36장단에서 ‘이령듯이/탄식을 하니’를 살펴보면 ‘령’의 사설이 제2박에서 시작하여 제6박까지 총 5박을 쭉 이어가고 있다가 ‘듯이’의 사설이 제7박에 짧은 시가로 빠르게 나온다. 이것은 앞서 이보형이 밝혔던 얼마의 공간을 훌쩍 뛰어 밀거나 당기어진 뒤에 나머지 사설이 낚아 채이듯이 짧은 시가로 나타나는 견해와 일치한다.

제1장에서 잉어걸이는 총 2장단으로 제23, 31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4>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전개부분 제1장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잉어걸이의 예시이다.

〈예보 4〉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잉어걸이(중모리 제23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갈	제△	망	망	대	-	-	해	△푸	른	물	결

제23장단의 ‘망망대해/푸른 물결’의 사설에서 제9박에 ‘푸’가 주박을 지나 부박에 짧게 시가로 사설이 들어가 낚아채는 느낌의 리듬형태⁶⁸⁾로 잉어걸이에 해당한다.

이상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 제1장은 중모리 총 40장단 중에서 대마디대장단 15장단이며, 엇붙임 20장단, 교대죽 3장단이며, 잉어걸이는 2장단이다. 엇붙임과 교대죽, 잉어걸이를 활용하여 붙임새의 변화를 준다.

② 제2장

제2장은 중중모리장단 총 17장단이다. 중중모리장단의 구성은 대마디대장단이 8장단, 완자걸이는 4장단이고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완자걸이+엇붙임 5장단으로 구성된다. 제2장의 중중모리 17장단 중에 완자걸이, 완자걸이+엇붙임이 9장단이며 그 외 8장단이 대마디대장단이다. 제2장은 대마디대장단과 완자걸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제2장의 완자걸이는 ㄱ ㄱ의 리듬이 ㄱ ㄱ ㄱ 혹은 ㄱ ㄱ ㄱ의 리듬으로 나뉘어서 사설이 붙어 헤이그의 지역풍경을 경쾌하게 표현한다.

제2장에서 대마디대장단은 총 9장단으로 제1, 2, 5, 8, 9, 10, 11, 12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5>는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제2장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5〉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대마디대장단(중중모리 제1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화	란	-	해	아	에	당	도	하	니	-	△

68) 이규호는 잉어걸이를 “진양장단에서는 1박 1/3(ㄱ), 중모리장단은 1박의 1/2(ㄱ), 중중모리장단은 1박 1/3(ㄱ), 자진모리장단은 1박의 1/3(ㄱ)이내여야 낚아채는 느낌이 난다.”고 하였다. 필자도 이규호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고에서 분석하고자한다. 이규호, 『판소리 붙임새 용어 연구』, 『판소리연구』 제3집(판소리학회, 1992), 398쪽.

‘화란 헤아에/당도하니’ 사설이 3소박으로 된 대박 넷이 중중모리장단을 이룬다. ‘화란-/헤아에/당도하/니--’는 3소박형 리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소박에 ‘화’, 4소박에 ‘헤’, 7소박에 ‘당’, 10소박에 ‘니’의 사설을 넣어 강세를 준다.

제2장에서 완자걸이는 총 5장단으로 제7, 13, 15, 17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6>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제2장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완자걸이의 예시이다.

<예보 6>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완자걸이(중중모리 제13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각	국의	대	표	들	은	국	제	권이	있	는	고로

‘각국의/대표들은/국제권이/있는고로’의 사설은 ‘각국의/대표/들은/국제/권이있/는고로’로 1소박에 ‘각’, 3소박에 ‘대’, 5소박에 ‘들’, 7소박에 ‘국’, 9소박에 ‘권’, 11소박에 ‘는’에 강세를 넣어 완자걸이에 해당한다.

제2장에는 완자걸이와 엇붙임이 혼합된 붙임새가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완자걸이+엇붙임은 총 5장단으로 제3, 4, 6, 14, 16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7>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제2장 중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완자걸이+엇붙임의 예시이다.

<예보 7>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혼합붙임새(중중모리 제3~4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화	려	한	-	문	화	주	택	△	층	-층	이
	높	아	있	고	장	-대	하	다	△	-	너	룬

제3장단~4장단에서 ‘화려한/문화주택’을 살펴보면 ‘화려한-/문화주택’으로 1소박에 ‘화’, 3소박에 ‘한’, 5소박에 ‘문’, 7소박에 ‘주’에 강세를 주어 완자걸이를 이룬다. ‘층층이/높아있고’의 사설이 2장단에 걸쳐서 진행된다. 제3~4번째 장단은 사설 한행이 앞 장단의 꼬리에 ‘층층이’가 붙고 뒤 장

단의 머리에 ‘높아있고’가 붙어있는 형태로 엇붙임이라 할 수 있다. ‘높아있고/장대하다’의 사실 또한 2소박 리듬형의 완자걸이다.

이상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부분에 해당하는 제2장 ‘헤이그 풍경’대목은 중중모리 총 17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8장단이며, 완자걸이는 4장단이고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완자걸이+엇붙임 5장단으로 구성된다. 완자걸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소박과 2소박 리듬으로 나뉘어서 헤이그의 지역풍경을 경쾌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2) 위기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위기는 자진모리장단과 진양조장단으로 구성된다. 전개부분은 자진모리장단으로 밀서내용을 서술한 제1장과 진양조장단으로 이준의 불안한 심상을 묘사한 제2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장의 자진모리장단은 총 26장단, 연주시간은 1분이며 한배는 ♩=96이다. 제2장의 진양조장단은 총 17장단이며, 연주시간은 2분 48초이며 한배는 ♩=30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의 장단 구성

구분 \ 구성	장단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제1장	자진모리	26장단	1:00	♩ =96
제2장	진양조	17장단	2:48	♩ =30

① 제1장

제1장은 자진모리장단 총 26장단이다. 자진모리장단의 구성은 대마디대장단이 9장단, 엇붙임은 5장단, 교대죽 2장단, 잉어걸이 4장단이고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완자걸이+엇붙임 3장단, 잉어걸이+엇붙임 3장단으로 구성된다. 대마디대장단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엇붙임, 완자걸이+엇붙임, 잉어걸이, 교대죽 순으로 나타난다.

제1장에서 대마디대장단은 총 9장단으로 제1, 3, 6, 7, 11, 12, 17, 18, 26 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8>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위기 부분 제1장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8>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대마디대장단(자진모리 제1장단)

박	1			2			3			4		
사설	그	-	서	문	-	에	하	-	였	으	-	되

‘그 서문에/하였으되’의 사설이 3소박으로 된 네 박이 자진모리장단을 이룬다. ‘그-서-문-에/하-였-으-니’로 첫 박에 사설 한행의 첫 음절로 시작하여 한 행이 3소박으로 리듬구성에 맞게 나뉘어 한 장단을 구성하여 대마디대장단이다.

제1장에서 엇붙임은 총 5장단으로 제8, 19, 23, 24, 25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9>는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제1장 자진 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엇붙임의 예시이다.

<예보 9>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엇붙임(자진모리 제8~9장단)

박	1			2			3			4		
사설	한	-	편	-	으	로	침	-	락	정	-	책
	-	-	-	억	압	을	일	-	삼	으	니	-

‘한편으로/침락정책/억압을/일삼으니’사설은 선율이 제8~9번째 장단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침락정책’의 사설에서 ‘책’이 8번째 장단 12소박에서 시작하여 9번째 장단의 3소박까지 이어지면서 엇붙임에 해당한다.

제1장의 혼합붙임새는 완자걸이+엇붙임이 제16, 22, 23번째 장단에 나타난다. <예보 10>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제1장 자진모리 장단 제 22~23번째 장단에 나타나는 혼합붙임새의 예시이다.

<예보 10>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혼합불임새(자진모리 제22~23장단)

박	1			2			3			4		
사설	약	-	한	-	나	라	를	-	△	-	보	-
	조	-	해	달	-	라	는	-	-	뜻	이	-

‘약한 나라를/보조해 달라는’사설은 선율이 제22~23번째 장단에 걸쳐서 나타나 엇불임이다. ‘약-/한-/나라/를-’와 ‘보-/조-/해달/-라’의 리듬은 2소 박형으로 가사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완자걸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혼합 불임새는 잉어걸이+엇불임이 있는데 제2, 9, 20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이상 박동실 <이준열사가> ‘밀서내용’ 대목의 불임새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진모리 26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9장단이며, 엇불임은 5장단이다. 교대죽은 2장단, 잉어걸이는 4장단이고 혼합불임새는 ‘완자걸이+엇불임’ 3장단, ‘잉어걸이+엇불임’ 3장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박동실은 ‘밀서내용’ 대목을 노래할 때 엇불임으로 사설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혼합불임새를 사용하여 다양한 리듬 변화를 주었다.

② 제2장

제2장은 진양조장단 총 17장단이다. 진양조장단은 대마디대장단과 교대 죽이 나타난다. 대마디대장단은 15장단으로 구성된다. 다음 <예보 11>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제1장 진양조에서 나타나는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11>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대마디대장단(진양조 제1~4장단)

박	1			2			3			4			5			6		
사설	국	내	-	-	-	-	정	세	-	를	-	-	△	-	-	△	-	-
	아	-	-	는	-	-	지	-	-	라	-	-	-	-	-	△	-	-
	전	-	보	는	-	-	떠	왔	-	으나	-	-	-	-	-	-	-	-
	민	지	-	못	-	할	일	-	이로	구	나	△	△	-	-	△	-	-

‘국내 정세를/아는지라/전보는 띄웠으나/믿지 못할 일로구나.’ 진양조 한 장단 내에 사설의 결속력이 강한 기본단위인 ‘국내 정세를’이 놓이며 선율선도 기본단위를 이루는 규칙성을 갖는 리듬으로 나타난다.

위기에서 교대죽은 총 2장단으로 제6, 14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12>는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진양조장단에서 나타나는 교대죽의 예시이다.

<예보 12>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교대죽(진양조 제6장단)

박	1	2	3	4	5	6
사설	간 - 신이	- 조 정에 -	만 백 -		- - -	하 니 △

‘간신이 조정에/만백하니’사설이 진양조 4번째 장단에서 제7박부터 ‘만백’을 길게 끌고 나머지 사설인 ‘하니’가 놓여 남아채는 느낌을 준다. 이는 교대죽에 해당하는 불임새이다.

(3) 절정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절정은 자진모리장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절정은 이준이 분노하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결하는 장면을 노래한다. ‘이준 분노·자결’ 대목은 자진모리장단은 총 38장단, 연주시간은 1분27초이며 한배는 J.=96이다. 제31~37장단까지는 장단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소리하는 도섭⁶⁹⁾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의 장단 구성

구분 \ 구성	장단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절정	자진모리	38장단	1:27	J.=96

69) 이보형, 「판소리 불임새에 나타난 리듬론」, 『장사훈박사 회갑기념논총』(한국국악학회, 1977), 105쪽.

절정의 ‘이준 분노·자결’ 대목은 자진모리 총 38장단이다. 자진모리장단의 구성은 대마디대장단, 엇붙임, 잉어걸이, 교대죽, 도섭 등이 나타난다. 절정의 ‘이준 분노·자결’ 대목의 대마디대장단은 제1, 6, 10, 11, 14, 18, 19, 20, 21번째 장단 등 총 9장단이다. 다음 <예보 13>은 박동실의 <이준 열사가> 절정부분 자진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13>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혼합붙임새(자진모리 제18~21장단)

박	1			2			3			4		
사설	배	달	-	민	죽	의	충	혈	을	봐	라	-
	품	안	에	든	칼	을	번	-	뜻	-	내	여
	가	슴	을	-	깎	-	△	-	자	결	하	니
	사	-	혈	이	복	받	-	혀	오	르	고	-
	왜	놈	-	낮	에	다	혈	을	-	뿌	리	며

‘배달 민족의/충혈을 봐라’의 사설이 3소박으로 된 네 박의 자진모리장단을 이룬다. ‘배달-/민족의/충혈을/봐라-’로 첫 박에 사설 한행의 첫 음절로 시작하여 한 행이 3소박으로 리듬구성에 맞게 나뉘어 한 장단을 구성하는 대마디대장단이다.

절정의 ‘이준 분노·자결’ 대목의 엇붙임은 총 11장단으로 제2, 3, 5, 6, 7, 12, 13, 16, 17, 22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14>는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자진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엇붙임의 예시이다.

<예보 14>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엇붙임(자진모리 제8~9장단)

박	1			2			3			4		
사설	모	골	이	송	-	연	피	끓	어	-	턱	이
	차	고	-	분	함	-이	충	-	천	-	-	-

‘피 끓어/턱이 차고’사설은 선율이 제2~3번째 장단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턱이 차고’의 사설에서 ‘턱이’는 2번째 장단 11소박과 12소박에서 시작하여 ‘차고’는 3번째 장단의 3소박까지 이어지면서 엇붙임을 이룬다.

절정에서 잉어걸이는 총 2장단으로 제9, 25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15>는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자진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잉어걸이의 예시이다.

<예보 15>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잉어걸이(자진모리 제9장단)

박	1			2			3			4		
사설	△	-	태	극	-	기	번	-	듯	-	들	어

제9장단의 ‘태극기/번 듯 들어’의 사설에서 제1박에서 ‘태’가 주박을 지나 부박인 제3소박에 놓여 낚아채는 느낌⁷⁰⁾이다.

절정의 교대죽은 총 4장단으로 제4, 8, 15, 23번째 장단에 나타난다. 다음 <예보 16>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제7~8번째 장단에 나타나는 교대죽의 예시이다.

<예보 16>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교대죽(자진모리 제7~8장단)

박	1			2			3			4		
사설	△	-	-	이	놈	-	왜	놈	-	들	아	-
	-	-	-	-	-	-	-	-	-	△	-	-

‘이놈 왜놈들아’사설이 제7장단에서 마칠 수 있지만 ‘아’를 제8장단까지 길게 끌어주어 절정부분의 긴장감을 고조시켜 준다.

지금까지 박동실<이준열사가> 절정 부분에 쓰인 불임새를 살펴보았다. 총 38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9장단이며, 엇불임은 11장단, 잉어걸이는 2장단, 교대죽 4장단, 도섭 12장단으로 구성된다. 엇불임이 주를 이루며 사설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다양한 리듬 변화를 주었다. 이준이 자결하면서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장면을 도섭 12장단으로 표현하여 극적인 효과를 주었다.

70) 이규호는 잉어걸이를 “진양장단에서는 1박 1/3(♪), 중모리장단은 1박의 1/2(♪), 중중모리장단은 1박 1/3(♪), 자진모리장단은 1박의 1/3(♪)이내여야 낚아채는 느낌이 난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규호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고에서 분석하고자한다. 이규호, 『판소리 불임새 용어 연구』, 『판소리연구』 제3집(판소리학회, 1992), 398쪽.

(4) 결말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결말은 진양조장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상설, 이위종이 이준의 죽음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탄식’ 대목은 진양조장단이 총 17장단, 연주시간은 2분 42초이며 한배는 ♩.=36이다. 위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박동실 <이준열사가> 결말의 장단 구성

구분 \ 구성	장단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결말	진양조	17장단	2:42	♩.=36

‘탄식’ 대목의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 엇붙임, 교대죽 등이 나타난다. 제1장에서 대마디대장단은 제1, 2, 3, 5, 6, 7, 8, 9, 12, 13, 14, 17번째 장단 등 총 12장단이다. 다음 <예보 17>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진양조장단에서 나타나는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17> 박동실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대마디대장단(진양조 제6~7장단)

박	1			2			3			4			5			6		
사설	우	리	-	충	성	이	부	죽	-	튼	가	-	-	-	-	-	-	-
	국	가	-	운	명	이	불	-	길	튼	-	가	-	-	△	△		

결말에서 제6장단 ‘우리 충성이/부족튼가’의 사설과 제7장단 ‘국가 운명이/불길튼가’의 사설이 진양조장단 제 5, 6대박을 제외하고 모두 주박에 배치되었다. 첫 박에 사설 한행의 첫 음절을 시작하여 박과 딱딱 맞아 떨어지는 지는 것으로 대마디대장단이다.

결말에서 엇붙임은 총 4장단으로 제10, 11, 15, 16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18>은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진양조장단에서 나타나는 엇붙임의 예시이다.

<예보 18> 박동실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엇붙임(진양조 제10~11장단)

박	1			2			3			4			5			6			
사설	무	-	슨	면	-	목	으	낮	을	-	들	-	고	고향	-	-	산	천	을
	돌아	가	며	-	△	-	-	구	중	-	궁	궐	-	△	상	-	감	마	마

‘고향 산천을 돌아가며’의 사설에서 ‘고향 산천을’이 진양조 제10장단의 5번째 대박에서 시작하여 ‘돌아가며’가 제11장단에 1번째 대박까지 배치되어 엇붙임이라 할 수 있다. 사설이 장단의 끝과 앞부분에 걸치면서 대마디대장단의 규칙성에서 벗어난다.

결말에서 교대죽은 총 1장단으로 제4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19>는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진양조장단에서 나타나는 교대죽의 예시이다.

<예보 19> 박동실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엇붙임(진양조 제4장단)

박	1			2			3			4			5			6		
사설	엮	-드	려	-	-	-	-	-	-	-	-	-	-	-	-	-지	드니	△

‘엮드려 지드니’사설이 진양조 4번째 장단에서 ‘엮드려’부분이 앞부분에 촘촘히 붙어있고 ‘려’를 길게 끌고 나머지 사설인 ‘지드니’부분의 ‘지’가 짧은 시가로 나와 뉘아채는 느낌을 준다. 이런 붙임새를 교대죽이라 한다.

지금까지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결말 ‘탄식’대목에 쓰인 붙임새를 살펴보았다. 총 17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12장단이며, 엇붙임은 4장단, 교대죽은 1장단으로 구성된다. 붙임새 출현빈도를 살펴본 결과, 박동실<이준열사가>의 결말부분은 대마디대장단으로 구성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엇붙임이 4장단 출현하지만, 이것이 사설의 결속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악조

본 항에서는 전개 제1장 ‘여정·이준심상’ 대목, 전개 제2장 ‘헤이그 풍경’ 대목, 위기 제1장 ‘밀서내용’ 대목, 위기 제2장 ‘이준고민’ 대목,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 결말 ‘탄식’ 대목 등 6개 대목을 대상으로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출현음과 음역, 종지음 등을 고찰하여 악조를 파악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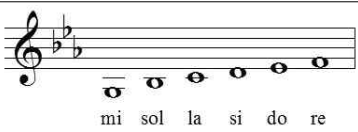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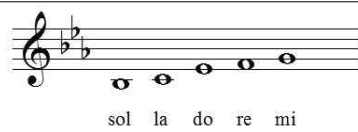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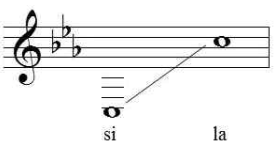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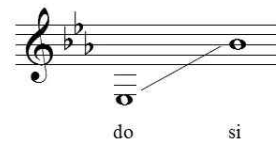

(1) 전개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전개 제1장 ‘여정·이준심상’ 대목은 중모리 40장단이다. 전개 제1장의 중모리장단 중에서 제1~20장단과 제27~40장단은 출현음이 G(mi)-B^b(sol)-c(la)-d(si)-e^b(do)-f(re)이며 주요음은 c(la), e^b(do), g(mi)이다. 가장 낮은 음은 D(si)이고 가장 높은 음은 c'(la)로 음역은 한 옥타브 7도이다. 제8장단 ‘애국 충신이 깊었구나’에서 G(mi)음을 길고 깊게 요성하고 있으며, 4번째 박인 ‘국’에서 e^b-d(do^si)로 꺾는 목이 나온다. ‘mi’음의 요성과 ‘do^si’로 꺾는 목은 계면조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특징이다. 제 20장단과 제40장단의 종지음은 c(la)음으로 제1-20장단과 제27-40장단은 c(la)본청 계면조이다. 계면조를 바탕으로 하여 제21-26장단은 우조성음을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이 부분의 구성음은 B^b(sol)-c(la)-e^b(do)-f(re)-g(mi)음이며, 주요음은 B^b(sol), e^b(do), g(mi)이다. 제22장단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에서 f(re)-g(mi)로 상행하는 반복선율과 ‘건-너’에서 B^b(sol)-c(la)-e^b(do)-f(re)음으로 순차진행이 나온다. mi음에 요성하지 않고 do^si로 하행할 때 강하고 빠르게 꺾어 내려오지 않고 흘러내리는 음이다.

전개 제2장 ‘헤이그 풍경’ 대목은 중중모리 17장단이다. 가장 낮은 음은 D(si)이고 가장 높은 음은 c'(la)이다. 제1-5장단은 출현음이 B^b(sol)-c(la)-e^b(do)-f(re)-g(mi)이며 주요음은 B^b(sol), e^b(do), g(mi)이다. 가장 낮은 음은 E^b(do)이고 가장 높은 음은 b^b(si)로 음역은 한 옥타브 7도이다. 종지음은 e^b(do)음으로 e^b(do)본청 우조로 볼 수 있다. 제6-17장단은 출현음이 G(mi)-B^b(sol)-c(la)-d(si)-e^b(do)-f(re)이며, 주요음이

c(la), e^b(do), g(mi)이다. 종지음은 c(la)음이며 ‘G(mi)’음의 요성과 ‘do[^]si’로 꺾는 목은 계면조에서 나타나는 악조의 특징이다. 따라서 c(la)본청 계면조로 볼 수 있다. 전개 제2장은 우조로 시작하여 제6장단부터 계면조로 전조된다. 이상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 제1장과 제2장의 악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의 악조

구분	계면조	우조
본청	c(la)	e ^b (do)
출현음	 mi sol la si do re	 sol la do re mi
음역	 si la	 do si
주요음	 la do re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전개 제1장 ‘여정·이준심상’ 대목은 중모리 40장단에 맞춰 노래하며 악조는 c(la)본청 계면조이다. 그러나 제21장단에서 제26장단까지 우조성음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전개 제2장 ‘헤이그 풍경’ 대목은 중중모리 17장단으로 e^b(do)본청 우조로 시작하여 제6장단부터 끝까지 c(la)본청 계면조로 전조되어 선율이 진행된다.

(2) 위기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위기 제1장 ‘밀서내용’ 대목은 자진모리 26장단이다. 제1장 ‘밀서내용’ 대목은 출현음이 G(mi)-B^b(sol)-c(la)-d(si)-e^b(do)-f(re)이다. 주요음이 e^b(do), g(mi)이고 ‘mi’음의 떠는 목과 ‘do[^]si’로

꺾는 목을 사용하여 c(la)본청 계면조이다. 밑서의 내용을 읊는 부분은 일제 침략정책과 억압에 따른 원망스러움이 담겨있어 전체적으로 계면조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조성음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계면조를 바탕으로 진행하다가 제6~7장단 “포악무도 일본악정 무력으로 위협하고”, 제10~14장단 “군신지소고하야 원망이 장천리요 일강세력 작궁하니 무례함이 대신이라”, 제16~18장단 “급한 공사를 의논할 때 없거니와 세계화가 될 것이니”는 사실을 공표하듯 외치는 부분에 해당하며 떠는 목이나 꺾는 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mi'-re'-la로 하행하는 선율형과 re-mi로 상행하는 선율형이 보여 우조 성음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음은 G(mi)이고 가장 높은 음은 g(mi)로 한 옥타브의 비교적 좁은 음역이다. 종지음은 G(mi)이다.

위기 제2장 ‘이준고민’ 대목은 진양조 17장단이며 출현음이 G(mi)-B^b(sol)-c(la)-d(si)-e^b(do)-f(re)이다. 가장 낮은 음은 G(mi) 이고 가장 높은 음은 b^b(si)로 음역은 한 옥타브 완전5도이며 저음진행이 많은 편이다. 종지음은 c(la)음으로 ‘mi’음의 굵은 요성과 ‘do[^]si’로 강하게 꺾는 목을 사용하며 선율진행이 ‘mi-la’의 4도 진행과 la-(do[^]si)의 진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종지선율은 ‘do[^]si’로 꺾어 내려와서 c(la)음으로 종지하는 형태를 띠어 c(la)본청 계면조로 볼 수 있다. 이상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 제1장과 제2장의 악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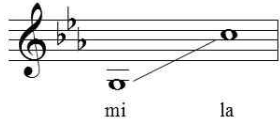
〈표 9〉 박동실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악조

구분	박동실
청	c(la)본청 계면조
출현음	<p>mi sol la si do re</p>
음역	<p>mi mi</p>
주요음	<p>la mi</p>

(3) 절정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은 자진모리 38장단이다. 이준의 분노가 폭발하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호통을 치며 자결하여 영웅의 면모가 드러나는 내용이다. 출현음이 G(mi) - B^b(sol)-c(la)-d(si) - e^b(do)-f(re)이며 주요음은 B^b(sol), c(la), g(mi)이다. 가장 낮은 음은 G(mi)이고 가장 높은 음은 c'(la)로 한 옥타브 완전4도의 음역이다. 특정한 시김새 없이 간결하게 소리하고 있으며 sol↔la로 2도 선율진행이 자주 등장하여 우조성음이 나타난다. 제1~28장단까지는 mi음에서 잔잔하게 요성을 하지만 제29장단은 mi음에서 요성이 폭이 깊어지고 (do[^]si)로 꺾는 목도 확실하게 드러나며 선율진행은 mi↔la의 4도 진행과 la-(do[^]si)의 진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c(la)본청 계면조임을 알 수 있다. 이상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의 악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박동실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악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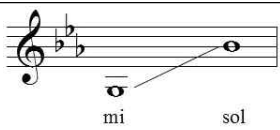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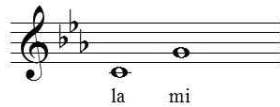
구분	박동실
청	c(la)본청 계면조
출현음	 mi sol la si do re
음역	 mi la
주요음	 sol la mi

(4) 결말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결말 ‘탄식’ 대목은 진양조 17장단이다. ‘탄식’ 대목은 이위중, 이상설이 이준의 죽음을 슬퍼하며 탄식하는 내용이다. 출현음이 G(mi) - B^b(sol)-c(la)-d(si)-e^b(do)-f(re)이며 주요음은 c(la)음과 g(mi)음이다. 전형적인 계면조의 ‘mi’음의 굵은 요성과 ‘do~si’로 꺾는 목이 자주 등장하고 mi↔la로 상하행하는 계면조의 선율진행이 확인되므로 c(la)본청 계면조이다. 가장 낮은 음은 G(mi)이고 가장 높은 음은 c'(la)로 한 옥타브 완전4도의 음역이다. 이상 박동실〈이준열사가〉 결말의 악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박동실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악조

구분	박동실
청	c(la)본청 계면조
출현음	 mi sol la si do re

음역	
주요음	

박동실<이준열사가> 중 아니리를 제외한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악조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동실은 D(si)에서 c'(la)까지 두 옥타브 7도의 비교적 넓은 음역을 사용한다. 상청에서 하청까지 음을 골고루 사용하여 소리를 구사한다. 구성음은 mi, sol, la, do, re이며 ‘mi’음을 굵게 떼고 ‘do~si’로 꺾는 목이 나타나는 c(la)본청 계면조가 주를 이룬다. 전개 제1장, 위기 제1장과 절정은 c(la)본청 계면조를 바탕으로 일부 우조성음이 나타나며 전개 제2장은 e^b(do)본청 우조로 시작되었다가 c(la)본청 계면조로 전조된다. 위기 제2장과 결말은 c(la)본청 계면조이다. 이상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악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박동실 <이준열사가> 악조 종합표

구성		사설내용	장단	악조	비고
전개	제1장	여정·이준심상	중모리40장단	c(la)본청 계면조 (일부 우조성음)	제21~26장 단까지 우조성음
	제2장	헤이그 풍경	중중모리17장단	e ^b (do)본청 우조, c(la)본청 계면조	우조로 시작 하여 제6장 단에서 계면 조 전조
위기	제1장	밀서내용	자진모리26장단	c(la)본청 계면조 (일부 우조성음)	제10~14장 단까지 우조성음
	제2장	이준고민	진양조17장단	c(la)본청 계면조	
절정		이준 분노·자결	자진모리38장단	c(la)본청 계면조 (일부 우조성음)	제1~28장 단까지 우 조성음
결말		탄식	진양조17장단	c(la)본청 계면조	

3) 선율

본 항에서는 전개 제1장 ‘여정·이준심상’ 대목, 전개 제2장 ‘헤이그 풍경’ 대목, 위기 제1장 ‘밀서내용’ 대목, 위기 제2장 ‘이준고민’ 대목,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 결말 ‘탄식’ 대목 등 6개 대목의 특징적인 선율을 선별하여 살펴보겠다.

(1) 전개

전개 1장 ‘여정, 이준심상’ 대목은 사설에 따라 총 4절로 구성된다. 제1절은 제1~8장단, 제2절은 제9~20장단, 제3절은 제21~28장단, 제4절은 제29~40장단이다. 제1절과 2절의 악조는 c(la)본청 계면조이다. 제3절의 악조는 c(la)본청 계면조에 우조성음이 나타나고 다시 제4절의 악조는 c(la)본청 계면조이다. 각 절의 첫 장단 선율은 하행진행이다.

〈예보 20〉 박동실 전개 제1장 중모리 제1장단~제3장단

1
그 때 여 이 준 선 - 생

2
삼 천 리 에 중 한 - 국 사 품 에 - 안 으 - -

3
안 으 - - 시 고 출 - 출 한 행 장 으 로 -

전개 제1장 제1장단에서 “이준 선생”은 G(mi)-G(mi)-c(la)-G(mi)-E^b (do)-D(si) 저음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마지막 10박 “생”에서 ‘do^si’ 꺾는 목이 나온다. 제2장단에서는 “삼천리 중한 국사”에서 c(la)음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3장단의 “안으시고”는 1박에서 꺾는 음이 출현하

고 3박에서 c(la)음을 사용하고 5박부터는 g(mi)음을 중심으로 동음 반복 진행한다. 제1~3장단에서 음보구절이 끝날 때마다 휴지를 두고 소리한다. 계면조 선율이 진행되면서도 이준의 풍모를 표현하는 “출출한 행장으로” 부분에서는 g(mi)음을 지속적으로 길게 반복하여 우조의 느낌을 준다. 다음 <예보 21>은 중모리 제32~36장단이며 이준 열사의 심상을 나타내는 내용을 나타낸 부분이다.

<예보 21> 박동실 전개 제1장 중모리 제32장단~제36장단

32

박동실의 전개부분 제33장단의 “만일 불행”과 제34장단의 “후생에나”, “모신고”의 마지막 음에 $e^b - d(\text{do}^{\wedge}\text{si})$ 꺾는 목을 사용하여 사설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박동실의 선율 특징을 살펴볼 때 제34장단 “후생에나”에서 “나---”의 선율과 제35장단 넷째 박 “부---디”선율은 2~3글자 내에서 복잡한 잔가락이 나와 선율이 화려하다.

(2) 위기

위기 제1장은 ‘밀서내용’ 대목으로 일본의 악행과 일본 보호조약 체결의 부당함을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표현하고 있다.

〈예보 22〉 박동실 위기 제1장 자진모리 제1장단~제6장단

1
그 서 문 에 하 였 으 되 반 만 년 역 사 전

3
통 - - 을 - 이 룩 하 고 국 호 는 대 한 국 이 라

5
- - 포 약 - 무 도 일 - 본 약 정

제1장단에서는 $g(\text{mi})$ 음으로 시작하여 다음 본청 $c(\text{la})$ 음을 연속으로 사용하며 자진모리장단의 리듬감을 살려 진행한다. 제2장단에서 처음 $g(\text{mi})$ 음 뒤에 $e^b - d(\text{do}^{\wedge}\text{si})$ 로 꺾는 목이 출현하고 2장단 마지막 박에도 꺾는 음이 나온다. 제4장단과 제5장단은 “국호는 대한국이라”의 마지막 가사 “라---”를 길게 부르고 있다. 처음 한 박자를 쉬고 $e^b(\text{do})$ 음으로 시작하여 $f(\text{re})$ 음을 짧게 사용하고 본청 $c(\text{la})$ 음에서 완전4도 위 $f(\text{re})$ 음으로 상행하여 우조성음이 나타나는 선율이다. 제5장단에서 $f(\text{re})$ 음이 긴 시가로 나타난 선율형이 제13~14장단에서도 $f(\text{re})$ 음으로 지속된다. 제6장단, 제10장

단, 제19장단은 저음에서 고음으로 옥타브 위로 도약 진행하는 선율형이 출현하고 있어 역동적이다. 제2장단과 제8장단, 제15장단, 제23장단, 제25장단에서 do[^]si로 꺾는 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계면조임을 알 수 있다.

위기 제2장의 악조는 c(la)본청 계면조라 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꺾는 목이나 G(mi)음에 굽은 요성을 사용하지 않고 la-re'-mi' 중심의 우조성 음이 나타난다.

〈예보 23〉 박동실 위기 제2장 진양조 제1장단~제4장단

국 내 - - - 정 세 를

아 - - 는 - 지 - - - 라 -

전 보 는 - 띄 웠 - - 으 나 - - -

믿 지 - - - 못 할 - 일 - - - 이 로 - 구 나

위기 제2장의 제1장단 “국내 정세를”은 꺾는 목 e^b-d(do[^]si)로 시작하여 c(la)-G(mi)-E^b(do)-D(si)로 하행하다가 G(mi)로 다시 올라간다. 제2장단은 G(mi)로 시작하여 꺾는 목 e^b-d(do[^]si)이 나오다가 c(la)음으로 중지한다. 제3장단 “전보는 띄웠으나”는 G(mi)-c(la)-G(mi)-e^b-d(do[^]si)-c(la)-G(mi)-c(la)-e^b-d(do[^]si)로 꺾는 목 e^b-d(do[^]si)을 사용하여 계면조이다.

(3) 절정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은 자진모리장단으로 구성하여 박진감과 속도감을 준다.

〈예보 24〉 박동실 절정 자진모리 제1장단~제8장단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a 12/8 time signature.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each with a line of Korean lyrics underneath. The lyrics are: '이준 선생 분한 마음 오골이 송연 피 끓어 턱이' (Measure 1), '차고 분함 이충 천' (Measure 2), '회석 앞으로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Measure 3), and '이놈 왜놈 들아' (Measure 4). The melody is characterized by a strong, driving rhythm with many eighth and sixteenth notes, typical of Jajinmori.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의 제1장단~제8장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단의 “이준선생 분한마음”은 g(mi)음으로 시작하여 “선생”은 g(mi)-G(mi)로 완전8도 급강하여 진행한다. “분한”에서 G(mi)-g(mi)로 다시 완전8도 도약한다. 제2장단 “모골이 송연 피 끓어 턱이”와 제3장단 “충천”에서 g(mi)-b^b(sol)로 상행하여 b^b(sol)음을 다음 제4장단까지 이어가고 있다. 제5장단의 “회석 앞으로 우루루루 루루루~”는 “회석”은 G(mi)-g(mi)로 완전8도 도약 진행하여 끌어올리고 “앞으로”는 g(mi)음을 유지한다. “우루루루 루루루”는 제5장단의 b^b(sol)음에서 제6장단 e^b(do)음까지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다. 제7장단과 제8장단은 제1장단과 유사하게 “이놈”은 g(mi)로 시작하여 완전8도 급강하였다가 “왜놈”은 G(mi)-g(mi)음으로 다시 도약 진행하여 거침없이 빠르게 뛰는 듯

한 느낌을 준다. “들아”는 g(mi)로 다음 장단까지 호령하는 듯 길게 내지르며 감정을 분출하고 있다.

(4) 결말

결말 ‘탄식’대목은 이위중·이상설이 이준의 죽음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진양조장단을 사용하여 슬픔을 강조하였다.

〈예보 25〉 박동실 결말 진양조 제1장단~제5장단

조 사 - - 지 어

을 리 - - - 더 - 니 -

그 자 - 리 가 - -

옆 드 려 - - - - - 지 드 니

아 이 고 분 하 여 라 - - - - -

결말의 ‘탄식’ 대목의 진양조 제1장단에서 5장단까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단의 “조사지어”는 c(la)로 동음을 반복하다가 제5박과 6박을 쉰다. 제2장단 “올리더니”는 e^b-d(do[^]si)로 시작한다. 이어서 c(la)-G(mi)

로 하행하였다가 c(la)-e^b-d(do[^]si)-c(la)로 중지한다. 제3장단의 “그 자리가”는 e^b-d(do[^]si)-g(mi)음으로 꺾는 목 다음에 g(mi)음으로 올라가면서 반복하여 내지른다. 제4장의 “엎드려”는 제1박에서 g(mi)-b^b(sol)-b^b(sol)음으로 상청을 사용하고 이후 제2박부터 5박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한다. 마지막 박자의 “지드니”는 e^b-d(do[^]si)로 빠르게 꺾어 매듭짓는다. 제5장단의 “아이고 분하여라”는 제1박 내에 가사를 촘촘히 엮어 넣고 g(mi)음으로 동음 반복한다. 제2박부터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이다. 제5장단의 선율형은 제13장단에도 나타난다.

이상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선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동실의 음역은 2옥타브 7도(D ~ c')로 저음역대부터 고음역대까지 폭넓게 선율진행을 한다. 사설의 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완전8도 이상 도약 혹은 급강하는 선율형을 자주 구사한다.

둘째,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형이 자주 나타난다.

셋째, 사설 2~3글자 내에서 복잡한 잔가락을 사용함으로써 선율이 화려하다. 긴 시가로 진행되는 음과 음 사이에 다양한 잔가락을 삽입하여 소리를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III.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분석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분석은 사설과 음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사설은 소설의 구성 5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로 의미단위인 장·절·구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음악분석은 장단 및 붙임새, 악조, 선율 등의 음악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사설구조

정철호 <이준열사가>는 박황의 사설에 정철호가 곡을 붙인 것이다. 사설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준이 고종의 밀서를 받는 부분부터 순국하는 장면까지를 다루고 있다. 본 절에서는 사설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의 구성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순으로 구분지어 각각의 사설내용을 살펴보겠다.

1) 발단

발단은 사설내용에 따라 전개 제1장과 2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장은 ‘시대배경’ 대목이며 제2장은 고종황제 명령으로 ‘이준 밀사파견’ 대목이다. 발단은 총 2장 7절 55구로 구성된다.

(1) 제1장

제1장은 아니리로 1~6절까지 19세기 후반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다. 제2장은 고종황제 명령으로 이준 밀사파견 대목이다. 그 중 1절~3절은 22구로 구성되며 친일파 집권, 갑오경장, 을미사변 등 각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맺으며 서술된다. 6절 마지막부분인 ‘친인이 공노하여 두주먹 불끈 쥔다’는 백성들이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월은 흐르는 것/
기쁘고 슬프고 또 끔찍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일본세력이/
 일본을 등에 업은/
 갑오경장 내세워서/
 일본의 침략기반/
 러시아의 세력이/
 민비일파 책동하여/
 일인세력 꺾으려 제/
 궁궐에 침입하여/
 천인이 공노하여/

우리나라를 덮치고야 마는구나.//
 친일파가 집권하고/
 개혁을 꺾었으나/
 만들어 준 구실이라//
 일본을 제압함에/
 러시아를 끌어들여/
 악랄한 왜병군사/
 민비를 살해하니/
 두 주먹을 불끈 쥔다.//

제1장 4절~6절은 20구로 구성된다. 4절은 9구이며 을미사변 이후 고종의 아관파천을 서술하며 창조로 노래한다. 5절은 9구로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대치상황을 설명하는 아니리이다. 6절에서는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체결 및 통감부 설치 내용을 서술하면서 다시 창조로 노래한다.

고종은 난을 피해/
 덕수궁에 돌아와서/
 나라꼴이 어지러워/

아관으로 파천타가/
 대한황제 즉위하니/
 국운은 쇠망인가.//

독립협회 조직되어/
 제 나라에선 황국협회/
 정권을 유지하니/

독립정신 고취할 제/
 불한당을 대항시켜/
 그 아니 불쌍한가.//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우리나라 삼키려고 전쟁하고/
 이 땅은 절단인가./
 통감부 설치하니/

각축을 벌리더니/
 일본이 승리함에/
 을사보호조약 체결하고/
 이 어인 변괴일까.//

(2) 제2장

발단 제2장은 1절 13구로 구성되며 ‘고종의 밀사파견’ 대목이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자 이준을 밀사로 파견한다.

민심이 소란하고/ 때마침 화란의 헤이그에서/ 각 국 대표 모인지라/ 이준열사 보내시되/ 보호조약 체결되고/ 만국에 호소하여/ 벗어나려 하였으니//	의병이 일어날 제/ 벌어지는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은 밀사로서/ 일인의 강압으로/ 주권이 박탈됨을/ 일인의 강압지배/
---	---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발단은 갑오경장, 을미사변, 아관파천, 독립협회 조직, 러일전쟁, 을사보호조약체결, 통감부 설치 등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배경을 시간 순으로 자세하게 서술한다. 제1장은 아니리-창조-아니리-창조로 구성하여 긴 사설에 변화를 주었다. 제2장은 이준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로 파견하는 내용이며 중모리장단에 맞춰 노래한다.

2) 전개

전개는 5절 60구로 구성되며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하는 여정과 이준의 심상을 서술한다. 1절은 18구로 구성되며 이준이 이상설·이위종과 합류하여 화란으로 떠나는 길에 나라를 걱정하는 심상을 담은 내용이다. ‘갈 길은 아득한데’, ‘다시 올 길 기약 없고’, ‘만리원정 이별인데’의 사설은 이준의 앞날이 험난하고 불안함을 암시해준다.

그때의 이준열사/ 이상설 이위종과/ 나라 일을 생각하니/ 민생을 돌아보니/ 떨어지는 삼각산아/ 어찌다가 못 잊어서/ 다시 올 길 기약 없고/ 이산저산 두견새는/ 공연한 내 심사를/	국운을 품어 안고/ 화란으로 향할 적에/ 비참하기 그지없고/ 수심이 절로 난다/ 갈 길은 아득한데/ 눈에 감울하는구나/ 만리원정 이별인데/ 야월공산 어데두고/ 이다지도 찌르는고//
--	--

2절은 10구로 구성되며 배 위에서 이준이 나라를 걱정하며 역신이 득세하여 나라를 구할 인물이 없음을 개탄하는 모습이 서술되었다.

흰 구름 저 멀리/ 읍하고 환배하니/ 군신유의 중커니와/ 성내 성외 백성들은/ 역신이 득세하니/	한양성을 바라보며/ 두 눈에 눈물인가/ 다시 뵙기 어려워라/ 충성충효 간 곳 없고/ 인결인들 있을소냐//
---	--

제3절은 10구로 구성되며 동해로 북상하는 이준의 심상을 그리고 있다. ‘파도는 출렁출렁, 뱃머리는 탕탕, 풍랑은 우루루루, 갈매기는 까웁까웁까르르르’ 등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율이 느껴진다. 이 표현은 뱃머리와 부딪치는 거친 파도와 센 바람, 갈매기의 울음소리로 이준의 불안한 심상을 형상화해준다.

원산항 뒤로하고/ 망망대해 푸른 물은/ 파도는 출렁출렁/ 풍랑은 우루루루/ 목이 매여 울며불며/	동해를 북상할 제/ 이 국한을 자아낸다./ 뱃머리는 탕탕/ 갈매기는 까웁까웁 까르르르/ 비거비래 하는구나//
---	--

4절은 14구로 구성되며 이준이 물새(기러기)에게 고종에 대한 충심과 그리움을 전하는 내용이다. ‘미련한 이준이 만일 불행 하옵건데’는 이준의 죽음을 암시한다. 다시 태어나도 고종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부분은 이준의 강직한 충절과 인물됨을 설명해준다.

물새야 우지마라/ 군신정상 알겠거든/ 남쪽하늘을 구중궁궐/ 서산에 해지거든/ 미련한 이준이/ 후세에나 다시 섬겨/	너 가는 곳 그 어데냐/ 내 한 말을 들어다오/ 한양성을 찾아가서/ 우리 성상 찾아뵙고/ 만일 불행 하옵건데/ 장충보국 하오리니/
--	---

옥체보존 하시사하고/

그 말 부디 전하여라.//

5절은 8구로 구성되며 ‘구곡간장 흐른 눈물’, ‘피가 되어 떨어지고’ 등의 표현은 분노와 탄식이 뒤섞여 비장함까지 느껴진다.

마음이 창연하니/
인정에 여리어서/
구곡간장 흐른 눈물/
조국강산 탄식을 하여/

아무리 대장부나/
아니 울 수 있겠는가/
피가 되어 떨어지고/
퍼버리고 울음 운다.//

3) 위기

위기는 내용에 따라 3절로 나눌 수 있다. 1절은 ‘참석권 거절’ 대목, 2절은 ‘이준 고민’, 3절은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대목이다. 1절은 10구로 구성되며 일본의 방해로 국제회의 참석을 거절당한 이준이 각국 대표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위기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서술하여 급박한 상황을 속도감 있게 전한다.

헤이그에 당도하여/
외교권이 없다하고/
이준 열사 비밀리에/
밀서를 내어놓고/
시세에 따라가는/

사방으로 활동할 제/
일본대표 거절이라./
각 국 대표 찾아가서/
눈물로서 호소하나/
국제정세 원망쿠나.//

2절은 6구로 구성되며 밀사파견이 알려져서 고종이 간신들에게 탄압을 당할까봐 이준이 고민하는 내용이다.

앞뒤로 재어보니/
밀사파견 탄로되면/
나라의 종말이여/

만사는 그른지라/
강제탄압 아니할까/
이 어찌 되려는가.//

3절은 8구로 구성되며 고종의 밀사파견을 구실삼아 이등박문, 이완용이

고종을 압박하여 양위시키는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이때에 이등박문/	밀사파견 구실 삼고/
이완용을 앞장 세워/	고종을 위협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고종을 양위시켜/
순종이 즉위하니/	만사는 어둡도다.//

4) 절정

절정은 1절 8구로 구성되며 이준이 민족의 독립을 외치며 자결하는 극적인 내용이다. ‘분한마음’, ‘민족의 원한’은 이준의 비참함과 분노를 나타내며 ‘발병하여 분사하니’는 이준이 죽는 장면을 표현한다. 절정의 사실은 이준의 자결 장면을 묘사하는 것보다 이준의 비참한 심정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준 열사 분한 마음/	모골이 송연하나/
대세가 기울었음에/	어쩔 도리 있겠느냐./
거처로 돌아와서/	발병하여 분사하니/
민족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친다.//

5) 결말

결말은 2절 30구로 구성되며 1절은 ‘축문’ 대목이고 2절은 ‘탄식’ 대목이다. 1절은 20구로 구성되며 이상설과 이위종이 이준을 묘지에 안장하고 조문을 올려 축문을 읊는 내용이다. 축문은 이준의 구국충절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비는 내용이다.

이상설 이위종은/	땅을 치고 통곡하되/
님의 가신 녀이려니/	유명이 다른지라/
묘지에 안장하고/	조문 올려 울음을 제/
유세차 광무/	11년 7월 모일/

이상설 이위중은/	눈물로서 고하노니/
오호통재라 대한민국/	우국열사 이준선생/
망국의 서름안고/	만리이역 가셨으니/
구국일념 그 충절은/	만대에 전하리라./
왕생극락 하오시고/	구천극락 다시 만나/
미진한 이 원한을/	여한없이 푸사이다.//

2절은 10구로 구성되며 이상설·이위중의 행동을 묘사하여 슬픔의 깊이를 점층적으로 나타낸다. ‘정신이 아득하고⇒혼백이 산란하여 기절 혼돈하였다가⇒다시 깨어 통탄한제⇒몸부림 방성통곡’하는 부분이 이준의 죽음과 망국의 비애를 동일시하여 이준의 죽음을 시대의 비극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있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망국의 비애가/	이에서 더할소냐./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기절 혼돈 하였다가/	다시 깨어 통탄한 제/
몸부림 방성통곡/	눈 뜨고는 볼 수 없네.//

지금까지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사설을 소설의 구성 5단계로 나눈 후, 각 단계별로 절과 구로 나누어 구조와 내용을 살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설은 아니리를 제외하고 3·4조, 4·4조를 기본으로 하는 운문체이다. 아니리와 노래는 있으나 대화체는 없다.

둘째, 아니리는 발단 제1장 ‘시대배경’ 대목, 위기 제1장 ‘참석권 거절’ 대목과 제2장 ‘이준고민’ 등 3번 나온다. 아니리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시대배경, 상황설명 및 장소전환이다. 아니리의 사설이 길 때는 창조를 부분적으로 삽입하여 변화를 주었다. 노래는 발단 제2장 ‘밀사과견’ 대목, 전개 ‘여정’ 대목, ‘이준심상’ 대목, 위기 제3장 ‘밀사과견구실 고종압박’ 대목, 절정, 결말 ‘축문’ 대목과 ‘탄식’ 대목이다.

셋째, 각 단계별 사설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철호 <이준열사

가>의 사설은 총 175구로 구성된다. 그 중 발단(55구)은 31.4%로 사설비중이 높은 편이다. 시대배경을 설명하는 발단은 아니리-창조를 반복하여 긴 사설에 변화를 주었다. 전개(60구)가 34.3%로 사설비중이 가장 높았다. 위기(24구)는 13.7%이다. 절정을 향해가는 위기에서 사건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며 절정(6구)은 3.4%로 사설 비중이 가장 낮다. 반면 결말(30구)은 17.2%로 위기와 절정보다는 높은 사설비중을 차지한다.

즉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사설구조는 전개-발단-결말-위기-절정 순으로 사설 비중이 높았다. 발단과 전개의 사설이 전체 사설의 65%를 차지한다. 반면 절정에 해당하는 ‘이준 자결’ 대목은 3.4%를 차지하여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결말이 위기·절정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준의 죽음과 망국의 비애를 동일시하여 비극적인 감성을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상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사설구조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정철호 <이준열사가> 사설구조

구성	사설내용	장단	구(175)	비율 (100%)
발단	시대배경	아니리-창조- 아니리-창조	42구	31.4%
	밀사파견	중모리	13구	
전개	여정	중모리	18구	34.3%
	이준심상	진양조	42구	
위기	참석권 거절	아니리	10구	13.7%
	이준 고민	창조	6구	
	밀사파견구실 고종 압박	중모리	8구	
절정	이준 분노·자결	엇모리	6구	3.4%
결말	축문	진양조	20구	17.2%
	탄식	진양조	10구	

2. 음악 분석

본 절에서는 아니리를 제외한 노래 부분을 장단 및 붙임새, 악조, 선율 순서로 분석하여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노래 부분은 발단 ‘밀사파견’ 대목, 전개 제1장 ‘여정’ 대목, 전개 제2장 ‘이준심상’ 대목,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대목,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 결말 ‘축문·탄식’ 대목 등 모두 6개의 대목이다. 이상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노래부분만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정철호 <이준열사가> 노래부분

구성	사설내용	장단	구(175)	장단수
발단	밀사파견	중모리	13구	11
전개	여정	중모리	18구	16
	이준심상	진양조	42구	36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 압박	중모리	8구	5
절정	이준 분노·자결	엇모리	6구	12
결말	축문·탄식	진양조	30구	24

1) 장단 및 붙임새

본 항에서는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노래부분을 대상으로 장단과 장단수, 연주시간, 한배, 붙임새를 분석하겠다. 붙임새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분석하여 출현 빈도를 살펴보겠다.

(1) 발단

발단 ‘밀사파견’ 대목은 사설 13구를 중모리장단으로 노래한다. 제1장의 중모리장단은 총 11장단, 연주시간은 1분이며 한배는 ♩=136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정철호 <이준열사가> 발단의 장단 구성

구분 \ 구성	장단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제1장	중모리	11장단	1:00	♩ = 136

‘밀사과견’ 대목은 중모리장단 총 11장단이다.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과 엇붙임이 나타난다. 대마디대장단은 제1, 2, 3, 4, 5, 8, 11번째 장단 등 총 7장단이다. 다음 <예보 26>은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26〉 정철호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대마디대장단(중모리 제1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민	심	이	△	△	△	소란	-	하	고	△	△

‘민심이 소란하고’ 사설이 3박으로 된 대박 넷에 배치된다. ‘민심이’는 제1~6박에 사설이 붙으며, ‘소란하고’는 제7~12박에 위치하여 두 음보가 한 장단과 일치하며 사설이 매 박의 주박에 붙어 대마디대장단이다.

엇붙임은 총 4장단으로 제6, 7, 9, 10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27>은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엇붙임의 예시이다.

〈예보 27〉 정철호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엇붙임(중모리 제6~7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고종	-	은	-	밀	사	로서	△	이	준	열	사
	보내	-	시되	△	일인	-	의	-	강압	-	으로	-

‘이준열사 보내시되’ 사설이 2장단에 걸쳐서 진행된다. 제6~7번째 장단은 사설 한 행인 ‘이준열사 보내시되’가 앞 장단의 꼬리에 ‘이준열사’를 놓고 뒤 장단의 머리에 ‘보내시되’가 붙는 형태로 엇붙임에 해당한다.

이상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발단 ‘밀사파견’ 대목에 쓰인 붙임새를 살펴해보았다. 중모리장단 총 11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7장단이며, 엇붙임은 4장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발단부분은 대마디대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엇붙임이 4장단 나오지만 사설의 결속력을 무너뜨릴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

(2) 전개

전개는 중모리장단과 진양조장단으로 구성된다. 전개는 이준이 밀사로 파견되어 떠나는 여정을 담은 전개 제1장과 나라를 걱정하는 이준의 심경을 묘사한 전개 제2장으로 나뉜다. 전개 제1장 ‘여정’ 대목은 사설 18구를 중모리장단으로 노래한다. 전개 제2장 ‘이준심상’ 대목은 사설 42구를 진양조장단으로 노래한다. 제1장의 중모리장단은 총 16장단, 연주시간은 1분 30초이며 한배는 $\downarrow=136$ 이다. 제2장의 진양조장단은 총 36장단, 연주시간은 4분 55초이며 한배는 $\downarrow=42$ 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의 장단 구성

구분 \ 구성	장단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제1장	중모리	16장단	1:30	$\downarrow=136$
제2장	진양조	36장단	4:55	$\downarrow=42$

① 제1장

제1장은 중모리장단 총 16장단이다.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 엇붙임, 교대죽이 나타난다. 제1장에서 대마디대장단은 제3, 4, 5, 6, 7, 9, 10, 15, 16 번째 장단에 해당하며 총 9장단이다. 다음 <예보 28>은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제1장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28〉 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대마디대장단(중모리 제10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어	-찌	다	가	-	-	못	잇	어서	△	-	-

‘어찌다가 못 잇어서’ 사설 중 ‘어찌다가’는 제1~6박에 놓이고 ‘못 잇어서’는 제7~12박에 놓여 두 음보가 한 장단과 일치하며 사설이 매 박의 주박에 붙으므로 대마디대장단에 해당한다.

제1장에서 엇붙임은 총 6장단으로 제1, 2, 11, 12, 13, 14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29>는 박동실의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제1장 중 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엇붙임의 예시이다.

〈예보 29〉 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엇붙임(중모리 제11~12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눈에	-	감울	-	하는	-	구나	-	다	시	올	길
	기약	-	없	고	△	△	만	리	원	정	이	별

‘다시 올 길 기약 없고’의 사설이 2장단에 걸쳐서 진행된다. 제11~12번째 장단은 사설 한 행인 ‘다시 올 길 기약 없고’가 앞 장단의 꼬리에 ‘다시 올 길’이 붙고 뒤 장단의 머리에 ‘기약 없고’가 나뉘어 붙어있는 형태로 엇붙임이다.

제1장에서 교대죽은 총 1장단으로 제8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30>은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제1장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교대죽의 예시이다.

〈예보 30〉 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교대죽(중모리 제8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멀어	-	-	-	-	-	지는	△	삼	각	산아	-

제8장단에서 ‘멀어지는 삼각산아’를 살펴보면 중모리의 3박 단위의 개념

에서 벗어나 있다. 즉 하나의 음절인 ‘떨어지는’에서 ‘떨어’의 ‘어’자가 길게 지속되다가 ‘지는’으로 빠르게 매듭짓는 느낌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얼마의 공간을 훌쩍 뛰어 밀거나 당기어진 뒤에 나머지 사설이 낚아 채이듯이 짧은 시가로 나타나 교대죽에 해당한다.

이상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전개 ‘여정’ 대목에 쓰인 붙임새를 살펴보았다. 중모리장단 총 16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9장단이며, 엇붙임은 6장단, 교대죽은 1장단으로 구성된다. 이 부분은 대마디대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엇붙임이 6장단 나타나는데 노래 후반부에 집중되어 소리가 맞물려가는 느낌을 준다.

② 제2장

제2장 ‘이준심상’ 대목은 진양조장단 총 36장단이다.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과 엇붙임이 나타난다. 제2장에서 대마디대장단은 제1, 2, 3, 4, 5, 6, 7, 15, 18, 19, 20, 21, 22, 23, 26, 27, 28, 29, 30, 31, 34, 35, 36의 23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31>은 정철호의 <이준열사가>위기부분 제2장 진양조장단에서 나타나는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31>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대마디대장단(진양조 제1~2장단)

박	1			2			3			4			5			6		
사설	흰	구	-	름	-	-	저	떨	-	리	-	-	△	-	-	△	-	-
	한양	-	-	성	-	을	바라	-	-	보	-	며	△	-	-	△	-	-

‘흰구름 저멀리’의 사설이 진양조 한 장단 내의 주박에 배치되었다. 제1장단에 사설의 결속력이 강한 구절 단위인 ‘흰 구름 저 멀리’가 놓이며 선율선 또한 기본단위를 이루는 규칙성을 지닌 리듬으로 나타난다.

제2장에서 엇붙임은 총 13장단으로 제8, 9, 10, 11, 12, 13, 14, 16, 17, 24, 25, 32, 33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32>는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제2장 진양조장단에서 나타나는 엇붙임의 예시이다.

〈예보 32〉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엇붙임(진양조 제8~9장단)

박	1			2			3			4			5			6		
사설	충	성	-	충효	-	-	간	곳	-	없	-	고	△	-	역	신	이	-
	득	세	하니	-	△	-	인	-	걸	인	들	-	있을	-	소	나	△	-

‘역신이 득세하니’의 사설이 제8~9장단 사이에 걸쳐서 붙는다. 즉 ‘역신이’의 사설은 8번째 장단의 꼬리에 붙고 ‘득세하니’의 사설이 9번째 장단의 머리에 붙어 있는 형태로 엇붙임에 해당한다.

이상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전개 ‘이준심상’ 대목에 쓰인 붙임새를 살펴해보았다. 진양조장단 총 36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23장단이며, 엇붙임은 13장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마디대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엇붙임이 13장단 나타나는데, 이는 노래 중반부에 집중되어 소리가 맞물려가는 느낌을 준다.

(3) 위기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대목은 사설 8구를 중모리장단으로 노래한다. 장단은 총 5장단, 연주시간은 26초이며 한배는 J=142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의 장단 구성

구분 \ 구성	장단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위기	중모리	5장단	0:26	J=142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대목의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과 엇붙임이 나타난다. 대마디대장단은 제3, 4, 5번째 장단 등 총 3장단이다. 다음 <예보 33>은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33〉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대마디대장단(중모리 제3~5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고종	을	위	협	하며	△	책임	을	추궁	-	하고	-
	고종	을	양	위	시	켜	순	중	이	즉위	하니	-
	만	-	사는	-	-	△	어둡	-	도다	△	-	-

‘고종을 위협하며/책임을 추궁하고’의 사설이 중모리 제3번째 장단에서 춤춤하게 엮어나간다. ‘고종’의 사설이 첫 박에 놓이고 ‘책임’이 제7박에 놓여 사설이 3박으로 된 대박 넷에 배치된다. 사설의 한 행이 한 장단의 머리에서 시작하여 꼬리에서 끝나며 사설이 매 박의 주박에 붙는 형태로 대마디대장단에 해당한다. 제4장단의 붙임새도 이와 같다.

엇붙임은 총 2장단으로 제1, 2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34〉는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중모리장단에서 나타나는 엇붙임의 예시이다.

〈예보 34〉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엇붙임(중모리 제1~2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설	이	때	에	이	등	박	문	-	-	밑	사과	견
	구실	-	삼	고	이	완	용을	-	앞	장	세워	-

‘밑사과견 구실삼고’ 사설이 2장단에 걸쳐서 진행된다. 제1~2번째 장단은 ‘밑사과견’의 사설이 제1장단의 꼬리에 놓이고 ‘구실삼고’의 사설이 제2장단의 머리에 붙어있는 형태로 엇붙임에 해당한다.

이상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밑사과견’ 대목에 쓰인 붙임새를 살펴보았다. 중모리장단 총 5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3장단이며, 엇붙임은 2장단으로 구성된다. ‘밑사과견’ 대목은 3음보 혹은 4음보의 사설이 한 장단에 놓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중모리 장단이지만 가사를 춤춤하게 엮어서 급박하게 진행되는 느낌을 준다.

(4) 절정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은 사설 6구를 엇모리장단으로 노래한다. 장단은 총 12장단, 연주시간은 28초이며 한배는 ♩=240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정철호 <이준열사가> 절정의 장단 구성

구분 \ 구성	장단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절정	엇모리	12장단	0:28	♩=240

‘이준 분노·자결’ 대목은 엇모리 총 12장단이다. 엇모리장단은 매우 빠른 3소박과 2소박이 3+2+3+2로 짜인 10/8박자의 장단으로 리듬이 엇갈려 빠르게 몰아가는 느낌이다. 불임새는 대마디대장단과 도섭이 나타난다. 대마디대장단은 제1, 2, 3, 4, 5, 6, 7, 8번째 장단 등 총 8장단이다. 다음 <예보 35>는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35> 정철호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대마디대장단(엇모리 제1~2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사설	이	준	열	사	-	분	한	마	음	-
	모	골	이	송	-	연	-	하	나	-

제1장단은 ‘이준열사 분한마음’의 사설이 2+3+2+3으로 짜여 가사가 붙고 제2장단은 ‘모골이 송연하나’의 사설이 3+2+2+3으로 가사가 붙어서 리듬변화를 주고 있다. 이 부분은 사설이 엇모리장단의 리듬에서 어긋나지 않은 형태로 대마디대장단에 해당한다.

도섭은 자유리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단 내의 정확한 박에 사설이 붙지 않으므로 엇불임 혹은 리듬의 신축성을 엇볼 수 있는 불임새⁷¹⁾이다. 대마디대장단은 제9, 10, 11, 12번째 장단 등 총 4장단이다. 다음 <예보

71) 이보형, 「관소리 불임새에 나타난 리듬론」, 『장사훈박사 회갑기념 동양음악논총』(한국국악학회, 1977), 105쪽.

36>은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도섭의 예시이다.

<예보 36> 정철호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도섭(엇모리 제9~12장단)

박	1	2	3	4	5	6	7	8	9	10
사설	-	-	-	-	-	하	늘	-	-	-
	-	-	-	에	-	-	-	-	사	무
	친	다	-	-	-	-	-	-	-	-
	-	-	-	-	-	-	-	△	△	-

‘하늘에 사무친다’의 사설은 제9장단에서 12장단까지 걸쳐있다. 엇모리장단의 리듬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소리한다.

이상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에 쓰인 불임새를 살펴보았다. 엇모리장단 총 12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8장단이며, 도섭이 4장단으로 구성된다. 제1장단~8장단까지 대마다대장단으로 진행하다가 제9장단~12장단까지 도섭으로 마무리한다. 이 부분은 사설을 빠르고 박진감 넘치게 몰아서 붙여가다가 도섭부터는 여유롭게 풀어져 이완되는 느낌이다.

(5) 결말

결말 ‘축문·탄식’ 대목은 이상설·이위중이 이준의 죽음을 탄식하는 내용이며 진양조장단에 맞춰 노래한다. 장단은 총 24장단, 연주시간은 3분 12초이며 한배는 ♩=42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정철호 <이준열사가> 결말의 장단 구성

구분 \ 구성	장단	장단 수	연주시간	한배
결말	진양조	24장단	3:12	♩=42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축문·탄식’ 대목은 진양조장단 총 24장단이다. 불임새는 대마다대장단과 엇불임이 나타난다. 대마다대장단은

제1, 2, 3, 4, 5, 6, 7, 8, 10, 15, 18, 19, 20, 21, 22, 23, 25, 26번째 장단에서 나타나며 총 20장단이다. 다음 <예보 37>은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결말부분에 나타나는 대마디대장단의 예시이다.

<예보 37> 정철호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대마디대장단(진양조 제1~2장단)

박	1			2			3			4			5			6		
사설	이	상	-	설	-	-	이	위	중	은	-	-	-	-	△	△	-	-
	땅을	-	-	치	-	고	통	곡	-	하		되	△	-	-	△	-	-

제 1장단에 사설의 결속력이 강한 구절단위인 ‘이상설 이위중은’이 배치되며 선율선도 기본 단위를 형성하는 규칙성을 지닌 리듬으로 나타난다. 제2장단은 ‘땅을 치고 통곡하되’의 사설이 진양조 한 장단 내의 주박에 배치되어 대마디대장단에 해당한다.

‘축문·탄식’ 대목에서 엇붙임은 총 6장단으로 제8, 9, 11, 12, 13, 14번째 장단에서 나타난다. 다음 <예보 38>은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진양조장단에서 나타나는 엇붙임의 예시이다.

<예보 38> 정철호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엇붙임(진양조 제8~9장단)

박	1			2			3			4			5			6		
사설	이	상	설	이위	-중	은	눈	물로	서	고하	-노	니	△	-	-	오	호	통
	제라	-	-	대한	-	제국	-	우국	-	열	사	이준	-	선	생	△	-	-

‘오호 통제라’의 사설이 제8~9장단 사이에 걸쳐서 진행된다. 즉 ‘오호 통’의 사설이 8번째 장단의 꼬리에 붙고 ‘제라’의 사설이 9번째 장단의 머리에 붙어 있는 형태로 엇붙임에 해당한다.

이상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결말 ‘축문·탄식’ 대목에 쓰인 붙임새를 살펴보았다. 진양조장단 총 26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20장단이며, 엇붙임은 6장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마디대장단을 중심으로 구성

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엇불임이 6장단 나타나는데 노래 중반부에 집중되어 소리가 맞물려가는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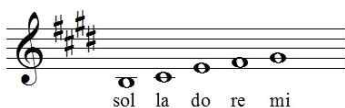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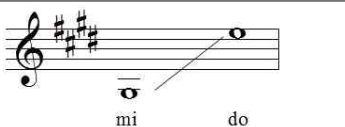

2) 악조

본 항에서는 발단 ‘밀사파견’ 대목, 전개 제1장 ‘여정’ 대목, 전개 제2장 ‘이준심상’ 대목,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대목,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 결말 ‘축문·탄식’ 대목을 대상으로 출현음과 음역, 종지음 등을 고찰하여 악조를 파악하고자한다.

(1) 발단

발단 ‘밀사파견’ 대목의 출현음은 B(sol)-c[#](la)-e(do)-f[#](re)-g[#](mi) sol이며 우조의 음정관계를 갖는다. 음역은 G[#](mi)음부터 한 옥타브 6도 위 e'(do)음까지로 비교적 넓은 음역을 사용하고 있다. 종지음은 e(do) 음이다. 따라서 발단 ‘밀사파견’ 대목은 e(do)본청 우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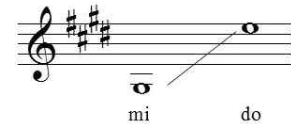

〈표 20〉 정철호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악조

구분	정철호
청	e(do)본청 우조
출현음	
음역	
주요음	

(2) 전개

전개 제1장 ‘여정’ 대목은 중모리 16장단으로 구성된다. 출현음은 sol·la·do·re·mi음이며 우조의 음정관계를 갖는다. 음역은 G[#](mi)음부터 e^ˊ(do)음까지 넓은 음역을 사용하고 있다. 제1~3장단은 e(do)본청 우조인데 제4장단부터는 mi에서 요성하고 do^ˆsi로 꺾는 목이 사용되어 c[#](la)본청 계면조로 전조됨을 알 수 있다. 전개 제2장 ‘이준심상’ 대목은 진양조 36장단으로 구성된다. 출현음은 mi·sol·la·si·do^ˊ·re^ˊ이며 mi에서 요성하고 do^ˆsi로 꺾는 목이 사용되어 c[#](la)본청 계면조이다. 그러나 제10~14장단, 제30~33장단에서는 부분적으로 우조성음이 나타난다.

〈표 21〉 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악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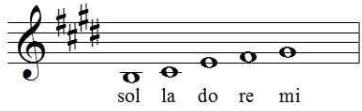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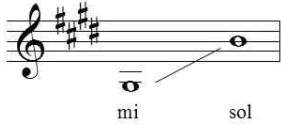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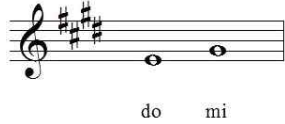
구분	정철호
청	e(do)본청 우조 c [#] (la)본청 계면조(f [#] 변청)
출현음	
음역	
주요음	

(3) 위기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대목의 출현음은 B(sol)-c[#](la)-e(do)-f[#]

(re)-g[#](mi)이다. do↔re의 2도 선을 진행이 자주 나타나며 종지음은 E(do)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e(do)본청 우조이다. 가장 낮은 음은 G[#](mi)이고 가장 높은 음은 b(sol)로 음역은 한 옥타브 3도이다.

〈표 22〉 정철호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악조

구분	정철호
청	e(do)본청 우조
출현음	 sol la do re mi
음역	 mi sol
주요음	 do mi

(4) 절정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은 엇모리 12장단으로 구성된다. 출현음은 G[#](mi)-B(sol)-c[#](la)-d[#](si)-e(do)-f[#](re)이다. mi에서 요성하고 do~si로 꺾는 목이 사용되어 c[#](la)본청 계면조이다. 가장 낮은 음은 G[#](mi)이고 가장 높은 음은 c'(la)로 음역은 한 옥타브 3도이다.

〈표 23〉 정철호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악조

구분	정철호
청	c [#] (la)본청 계면조

구분	정철호
출현음	
음역	
주요음	

(5) 결말

결말 ‘축문·탄식’대목의 출현음은 G[#](mi)-B(sol)-c[#](la)-d[#](si)-e(do)-f[#](re)이다. mi에서 요성하고 do[^]si로 꺾는 목이 사용되어 c[#](la)본청 계면조이다. 가장 낮은 음은 G[#](mi)이고 가장 높은 음은 c[#](la)로 음역은 한 옥타브 3도이다.

〈표 24〉 정철호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악조

구분	정철호
청	c [#] (la)본청 계면조
출현음	
음역	
주요음	

지금까지 정철호<이준열사가> 중 아니리를 제외한 발단, 전개 제1장과 전개 제2장, 위기, 절정, 결말의 악조를 살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철호는 가장 낮은 음은 G[#](mi)이고 가장 높은 음은 c'(la)로 음역은 한 옥타브 3도로 상청에서 하청까지 음을 골고루 사용한다. 구성음은 mi·sol·la·do·re이며 'mi'음을 굵게 떨고 'do'로 꺾는 목이 나타나는 계면조가 주를 이룬다. e(do)본청 우조인 전개 제1장 앞부분, 위기 '밀사파견 구실 고종압박' 대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목들은 c[#](la)본청 계면조이다.

〈표 25〉 정철호<이준열사가> 악조 종합표

구성		사설내용	장단	악조	비고
발단		시대배경 밀사파견	중모리11장단	e(do)본청 우조	
전개	제1장	여정	중모리16장단	e(do)본청 우조- c [#] (la)본청 계면조	제1~3장단 우조성음
	제2장	이준심상	진양조36장단	c [#] (la)본청 계면조	제10~14, 제30~33 장단 우조 성음
위기	제1장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중모리5장단	e(do)본청 우조	
절정		이준 분노·자결	엇모리12장단	c [#] (la)본청 계면조	
결말		축문·탄식	진양조17장단	c [#] (la)본청 계면조	

3) 선율

본 항에서는 아니리를 제외한 발단 ‘밀사파견’ 대목, 전개 제1장 ‘여정’ 대목, 전개 제2장 ‘이준심상’ 대목,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대목,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 결말 ‘축문·탄식’ 대목을 대상으로 선율진행을 살펴보겠다.

(1) 발단

발단의 ‘밀사파견’ 대목은 중모리 11장단이며, e(do)본청 우조이다. 다음 <예보 39>는 정철호 발단부분 중모리 제3장단에서 7장단까지이다.

<예보 39> 정철호 발단부분 중모리 제3장단~제7장단

3
때 마 - 침 화 란 - 의 - 헤 이 그 에 서

4
별 어 지 는 - - 만 - 국 - 평 화 회 - 의 에 -

5
각 국 - - 대 - 표 모 인 - - 지 라 -

6
고 종 - 은 - 밀 사 - 로 서 이 - 준 - 열 - 사

7
보 내 - 시 되 일 인 - 의 - 강 압 - 으 로 -

정철호의 발단은 sol·la·do·re·mi의 음이 골고루 사용되며 do음과 sol음 혹은 re음에서 요성을 한다. 제3장단의 첫 소절 “때마침”은 g[#](mi)음으로 동음진행 선율이다. “화란의 헤이그에서”는 한 옥타브 낮은 G[#](mi)음에서 c[#](la)-g[#](mi)으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c[#](la)음으로 하행한다. 제4장단은 g[#](mi)-f[#](re)-e(do)-B(sol)-c[#](la)-e(do)-f[#](re)음으로 순차적으로 하행하였다가 다시 순차적으로 상행진행을 한다. 제5장단까지는 이러한 순차적인 진행을 반복한 후, c[#](la)음으로 종지한다. 제6장단부터는 “고종은”이 G[#](mi)-G[#](mi)-c[#](la)음으로 저음진행이 나타난다. 제7장단 1박에서 “보 내시되”의 사설이 C[#](la)음에서 g[#](mi')음으로 완전5도 도약진행을 하고 c[#](la')음까지 상청을 사용하여 “일인의 강압으로”를 강조해준다. 제7장단에서 re-sol-la로의 상행하는 선율과 제8장단에서 la→re로 하행하는 선율이 사용된다. 즉 주된 선율은 do↔re음을 중심으로 상·하행하는 선율이다. ‘밀사파견’대목은 제3~5장단에서 보이는 순차적 선율진행과 제6~7장단의 완전 4도 상행·하행하는 선율진행이 자주 나타난다.

(2) 전개

전개 제1장 ‘여정’대목은 중모리 16장단이며 우조로 시작해서 제4장단에서 계면조로 악조가 바뀐다. 다음 <예보 40>은 전개 중모리 제1장단~제2장단 부분이다.

<예보 40> 정철호 전개부분 중모리 제1장단~제2장단

1

그 때 여 - 이 - 준 - 열 - 사 국 운 - - 을

2

품 예 - 안 - 고 이 - 상 설 이 위 중 과 -

정철호의 중모리 제1장단과 제2장단에서는 sol·la·do·re·mi의 음이 골고루 사용되며 mi음을 요성한다. 제1장단 “그때여”의 사설은 b(sol)-g[#](mi)-g[#](mi)으로 3도 하행하여 시작한다. g[#]→G[#]로 한 옥타브 급강하여 하행한 후, “이준열사”의 사설은 G[#](mi)-B(sol)-c[#](la)-e(do)-B(sol)음으로 상행하는 선율이다. 제2장단에서는 do→mi음으로 상행하거나 우조의 특징인 re↔mi 선율형이 반복된다. 그러나 제4장단부터는 do[^]si로 꺾는목이 자주 나타난다. mi음에 요성하고 re음을 동음 반복하면서, c[#]본청 계면조로 전조되고 있다. la음을 중심으로 계면조의 음정관계를 갖는다. mi↔la의 완전 4도 진행과 요성하는 mi음이 자주 나타난다.

전개 제2장은 나라와 황제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려진 ‘이준 심상’ 대목이다. ‘이준심상’ 대목의 악조는 c[#]본청 계면조이다. mi↔la의 4도 진행을 중심으로 선율이 이루어지는데, 선율의 종지형은 계면조의 전형적인 do[^]si-la 형태를 지닌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제10~14장단, 제30~33장단에서 우조적인 성음이 나타난다. 다음 <예보 41>은 전개 2장 진양조 제28장단부터 제33장단까지이다.

<예보 41> 정철호 전개부분 진양조 제28장단~제33장단

28 옥 체 보 존 하 시 사 하 고 - - - -

29 그 말 - - - - 부 - 디 - 전 하 여 라

30

마 음 이 창 연 하 니 - 아 - 무 - 리 대 장 - 부 나 -

31

인 정 - 에 여 - - - - - 리 - - 어 서

32

아 - 니 울 수 - 있 겠 - - 는 - 가 - 구 곡 간 장

33

흐 른 - 눈 물 피 가 - 되 어 - - 떨 - 어 - - - 지 고 -

정철호의 진양조장단은 떠는 목과 꺾는 목의 시김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선율 진행 또한 전형적인 계면조의 특성을 보인다. 제26장단의 “후세에나”는 G[#](mi)-g[#](mi)으로 한 옥타브 도약진행을 하며, 같은 음을 반복한다. 26장단의 “다시 섬겨”는 마지막 부분에 꺾는 목을 써서 애절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제28장단의 “옥체보존 하시사하고”는 본청 e(do)음과 아래 G[#](mi)음, 본청 c[#](la)음 뒤에 마지막 e-d[#](do[^]si)로 꺾는 목을 사용하여 계면조를 나타내고 있다. 제30장단부터는 sol·la·do·re·mi 음이 골고루 사용되며 do·mi·sol음 중에서 do음에 가는 요성을 한다. “마음이”의 사설이 B(sol)음으로 시작하여 c[#](la)-e(do)-f[#](re)-g[#](mi)까지 순차적으로 상행하면서 우조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제33장단의 “흐른 눈물 피가 되어”까지 e(do)음과 g[#](mi)음이 중심이 되는 우조 성음을 띤다.

(3) 위기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대목은 중모리 5장단이며 악조는 e본청 우조이다. sol·la·do·re·mi의 음을 고르게 사용하여 우조의 음정관계를 갖는다. 특정한 시김새 없이 간결하게 소리하며 mi↔re의 선율형이 자주 나타난다.

〈예보 42〉 정철호 위기부분 중모리 제1장단~제3장단

1
이 때 에 이 - 등 방 - 문 밀 사 파 견 -

2
구 실 - - 삼 고 이 완 용 을 앞 장 세 워

3
고 종 을 위 - 협 하 며 책 임 을 추 중 - - 하 고 -

제1장단~제3장단을 살펴보면, “이때에 이등방문” 시작하는 첫 장단의 시작은 $g^\sharp(mi)$ - $e(do)$ - $f^\sharp(re)$ - $f^\sharp(re)$ - $g^\sharp(mi)$ 음의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선율 진행이다. “밀사파견”은 $g^\sharp(mi)$ - $f^\sharp(re)$ - $c(la)$ 로 하행하는 선율이다. “구실삼고”는 $B(sol)$ - $c^\sharp(la)$ - $e(do)$ - $B(sol)$ 로 상행 진행하다가, “삼고”에서는 선율이 본청 $e(do)$ 를 기점으로 다시 하행 진행한다. 이후 나오는 “이완용을”은 $g^\sharp(mi)$ - $f^\sharp(re)$ - $C^\sharp(la)$ 음으로 하행한다. 저음에서 도약하여 “앞장세워”는 $b(sol)$ - $g^\sharp(mi)$ - $f^\sharp(re)$ - $c(la)$ 음으로 다시 하행한다. 제3장단은 $g^\sharp(mi)$ - $b(sol)$ 로의 3도 상행하였다가 이후 $g^\sharp(mi)$ ↔ $f^\sharp(re)$ 음의 우조적인 선율진행이 나타난다.

(4) 절정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은 이준의 자결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엇모리 12장단으로 구성하였다. 이 대목의 악조는 c[#]본청 계면조이다.

<예보 43> 정철호 절정부분 엇모리 제1장단~제6장단

이 준 열 사 분 한 마 음 모 골 이 송 연 하 나 -

대 - 세 가 글 - 뒀 음 에 어 쥔 도 리 있 겠 느 나

- - - 거 처 로 - 돌 아 와 서 -

제1장단은 g[#](mi)음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다가 “마음”에서 f[#](re)-c[#](la)음으로 하행한다. 제2장단의 “모골이”는 g[#](mi)-G[#](mi)-g[#](mi)음으로 한 옥타브 도약진행 한다. “송연하나”는 g[#](mi)-e(do)-d[#](si)음으로 선율이 진행하는데 “나”에서는 꺾는 목이 나타난다. 제3장단은 g[#](mi)음으로 시작하며 “대세가”는 g[#](mi)-b(sol)음으로 상행하고 “글렀음에”는 다시 b(sol)-g[#](mi)-f[#](re)-e(do)음으로 하행한다. 제1~3장단의 첫 음은 모두 g[#](mi)으로 동일하다. 또한 제1장단의 끝 음인 c[#](la)이나 제2장단 끝 음인 d[#](si)에서 완전 4도 혹은 완전 5도 높은 음에서 다음 장단이 시작된다. 제4장단의 “어쥔 도리 있겠느냐”는 e(do)↔f[#](re)로 상행·하행하면서 평조성음을 띄고 있다. 그러나 제7장단에서의 do[^]si로 꺾어 내려오는 선율과 제9장단에서의 la-mi음으로 4도 하행과 같은 계면조의 전형적인 선율진행이 나타난다. 따라서 계면조곡에 부분적으로 평조성음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5) 결말

결말 ‘축문·탄식’대목은 이상설·이위종이 이준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진양조 24장단으로 구성되며 악조는 $c^{\#}$ 본창 계면조이다. 다음 진양조장단 제1~5장단의 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보 44〉 정철호 결말부분 진양조 제1장단~제5장단

이 상 설 이 위 종 은 -

2 땅 을 - 치 - - - 고 - - 통 곡 하 되

3 님 - 의 가 신 녀 이 - 려 니 - 이 - - -

4 유 - - 명 - 이 - - 다 른 - 지 라

5 묘 - - 지 에 - 안 - 장 하 고 - - -

제1장단의 시작 “이상설 이위종은”은 $g^{\#}$ (mi)음으로 동음 반복하여 노래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g^{\#}$ (mi)음은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마지막 $g^{\#}$ (mi)음은 살짝 떨어서 표현한다. 제2장단의 “땅을 치고”는 $c^{\#}$ (la)- $c^{\#}$ (la)- $g^{\#}$ (mi)- $c^{\#}$ (la)- $g^{\#}$ (mi)-e(do)- $d^{\#}$ (si)- $g^{\#}$ (mi)음으로 주로 상창에서 선율이 하행진행하며, 꺾는 목이 나온다. 이어지는 “통곡하되” 역시

g[#](mi)-e(do)-d[#](si)-c[#](la)-G[#](mi)음으로 꺾는 목과 la-mi의 4도 상행하는 선율진행이 나타난다. 제3장단 “님이 가신”과 “넋이려니”는 g[#](mi)→b(sol)음의 선율과 g[#](mi)→c[#](la)음으로 상행하는 선율이 연이어 나타나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c[#](la)-e[#](do)-d[#](si)-c[#](la)음으로 상청에서 꺾는 목을 사용하고 있다. 제4장단의 “유명이 다른지라”는 상청의 c[#](la)음에서 하행하여 제2장단의 선율흐름과 비슷하다. 제5장단의 “묘지에”와 “안장하고”는 제3장단의 “님이 가신”과 “넋이려니”의 선율형과 유사하게 c[#](la)→f[#](re)로 완전 4도 위로 상행하여 우조적인 성음을 뿜는다.

이상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발단 ‘밀사파견’대목, 전개 제1장 ‘여정’대목, 전개 제2장 ‘이준심상’ 대목,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대목,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 결말 ‘축문·탄식’ 대목 등 6대목의 선율을 살펴 보았다.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대목을 제외한 나머지 5대목은 계면조로 이루어져 있다. 계면조의 떠는 목과 꺾는 목의 시김새를 사용하며, 선율진행 역시 계면조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진행을 한다. 동음반복 선율로 시작하며 2도 상행·하행하는 선율진행이 자주 나타나며 완전8도 이상 도약·급강하는 선율진행은 많지 않다. 음과 음 사이에 잔가락이 적고 평탄하게 선율을 진행한다.

IV.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 비교

본 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각 작창자가 추구하는 음악구성과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1. 사설구조 비교

본 절에서는 두 사설을 주요내용에 따라 소설의 구성 5단계에 대입하여 각 단계별로 비교하겠다. 사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두 사설의 분량과 비중, 대사가 있는 등장인물, 주요 내용, 장소, 의성어, 의태어, 한자어를 찾아서 정리하였다.⁷²⁾

1) 발단

발단은 ‘시대배경·밀사과건 대목’이다.

〈표 26〉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사설비교

구분	박동실	정철호
발단 시대 배경 · 밀사 과건	(아니리) 당노는 점점 일강세력 동양전국 다 하여도 시국정찰 모르나니, 한국말년 어지러워 개화당에 감신정변 동학당의 갑오경장 일러 전쟁을 하니, 일본이 때를 얻어 대환을 장	(아니리) 세월은 흐르는 것,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쁘고 슬프고 또 끔찍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일본세력이 우리 나라를 덮치고야 마는구나. 일본을 등에 업은 친일파가 집권하고 갑오경장 내세워서 개혁을 꾀했으나 일본의 침략기반 만들어 준 구실이라 러시아의 세력이 일본을 제압함에 민비일파 책동하여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인세력 깎으려 제 악랄한 왜병군사 궁궐에 침입하여 민비를 살해하니 천인이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쥔다. (창조) 고종은 난을 피해 아관으로 파천타가 덕수궁에 돌아와서 대한황제 즉위하니 나라꼴이 어지러워 국운은 쇠망인가. (아니리) 독립협회 조직되어 독립정신 고취할 제 제 나라에선 황국협회 불한당을 대항시켜 정권을 유지하니 그 아니 불쌍한가. (창조)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각축을 벌리더니 우리나라 삼키려고 전쟁하고 일본이 승

72) 박동실과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사설을 대조하여 유사한 사설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구분	박동실	정철호
	악해 넓고 보호조약 억제하니 민심이 더욱 소란하고 가신이 틈을 탈제, 그때여 화란에 벌어진 만국평화에 <u>고종황제 명령으로 이준 선생의 밀서가 들어가는데</u>	리항에 이 땅은 절단인가. 을사보호조약 체결하고 통감부 설치하니 이 어인 변과일까. (중모리) 민심이 소란하고 의병이 일어날 제 때마침 화란의 헤이그에서 벌어지는 만국평화 회의에 각 국 대표 모인지라, <u>고종은 밀사로서 이준 열사 보내시되</u> 일인의 강압으로 보호조약 체결되고 주권이 박탈됨을 만국에 호소하여 일인의 강압지배 벗어나려 하였으니.

박동실의 발단사설은 총 302구 중 16구이며 정철호의 발단사설은 총 175구 중 55구이다. 박동실의 발단부분은 5.3%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정철호는 31.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박동실과 정철호의 발단은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하는 것은 동일하다.

박동실은 갑신정변, 갑오경장, 러일전쟁, 일본의 대한장악, 보호조약 등 시간적 배경을 개괄적으로 열거한다. 어지러운 국내정세를 설명한 후 고종황제 명령으로 이준 선생에게 밀서가 전달된다. 이는 시대적 배경과 사건발생의 외적 상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철호는 갑오경장, 민비시해, 아관파천, 독립협회 조직, 러일전쟁, 을사보호조약체결, 통감부 설치, 을사보호조약 체결 등을 거론하며 당시 혼란스런 시대배경을 박동실에 비해 보다 더 자세하게 서술한다. 아니리-창조-아니리-창조를 교차하여 긴 사설에 변화를 준다.

두 사설 모두 발단부분에서는 의성어 및 의태어, 한자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발단의 유사한 사설은 박동실의 “고종황제 명령으로 이준선생의 밀서가 들어가는데”와 정철호의 “고종은 밀사로서 이준 열사 보내시되” 부분이다. 박동실의 발단은 **전체 사설의 5.3% 비중으로 시대배경을 짧고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나 정철호의 발단은 **전체 사설의 31.4%에** 해당하는데, 이는 시대 배경이 길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정철호의 발단은 창극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도창부분에 해당된다. 두 작창자의 발단 부분 사설 비교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이준열사가〉 발단부분 사설비교표

구분	박동실	정철호
분량	16구/ 총 302구	55구/ 총 175구
비중	5.3%	31.4%
등장 인물(대사)	×	×
주요 내용	간략한 시대배경, 이준 밀사파견	길고 자세한 시대배경, 이준 밀사파견
장소	대한제국	대한제국
의성어, 의태어	×	×
한자어	×	×

2) 전개

전개는 전개1 ‘여정, 이준심상’ 대목과 전개2 ‘동지합류’, ‘헤이그 풍경’ 대목이다.

〈표 28〉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사설비교

구분	박동실	정철호
전개1 여정 · 이준 심상	<p>(중모리) <u>그때여 이준선생 삼천리 중한 국사 품안에 안으시고 출출한 행장으로 엄숙하게 입으신 후에 궁성에 하직하고 길을 떠나 행하실제, 표표한 그 걸음은 군자의 절개로다.</u> 망명수참 그 얼굴은 애국충신이 깊었구나.</p> <p><u>삼각산은 점점 멀고 앞길은 창망한데</u> 어데서 슬픈 소리 풍편을 들려오고, 뜻밖의 불어귀는 피를 내어 슬피울어 <u>만리원정 이별을</u> 하니, 명월공산 어데두고 진정채송 단장성은 축국한이 깊었구나. 가든길 멈추시고 다시 발을 돌려서 궁성에 하직을 하니 슬프다. <u>그 걸음은 다시 올길 막연하고, 성외성내 남녀들은 망국지한을, 어이하리. 덧없이 가는</u> 해는 서산을 넘고 넘어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동해로 건너갈제,</p> <p>망망대해 푸른물결 바단지 하늘인지 수운이 적막히 떠, <u>뱃전을 탕탕, 풍낭은 우루루, 물</u></p>	<p>(중모리) <u>그때의 이준열사 국운을 품어 안고 이상설 이위종과 화란으로 항할 적에 나라 일을 생각하니 비참하기 그지없고 민생을 돌아보니 수심이 절로 난다.</u></p> <p><u>멀어지는 삼각산아 갈 길은 아득한데</u> 어찌다가 못 잊어서 눈에 감출하는구나 다시 올 길 기약없고 <u>만리원정 이별인데</u> 이산저산 두견새는 야월공산 어데두고 공연한 내심사를 이다지도 찌르는고</p> <p>(진양조) 흰 구름 저 멀리 한양성을 바라보며 읊하고 황배하니 두 눈에 눈물인가 군신유의 종커니와 <u>다시 뵈기 어려워라 성내 성외 백성들은 충성충효 간 곳 없고 역신이 득세하니</u> 인걸인들 있을소나 원산향 뒤로하고 동해를 복상할 제 <u>망망대해 푸른 물은 이 국한을 자아낸다.</u></p> <p><u>파도는 출렁출렁 뱃머리는 탕탕</u> 풍랑은 우루루루 갈매기는 까옥까옥 까르르 목이 매</p>

구분	박동실	정철호
	<p>결은 출렁, 갈매기 까옥가르르 울어. 무심한 저 백구는 비거비래뿐이로고. 소소춘풍 송한 군에 울고가는 기러기야, 네 가는곳 어데멘고.</p> <p>대한국 한양성 구중궁궐 지내거든 우리 상감 존체보존 잊지못할 이준이는 만일 불행하올 진대 후생에나 다시 모신다고 이 말을 부디 전하여라.</p> <p>이렇듯이 탄식을 하니 아무리 대장분들 아니 올 수 있겠느냐. 구국간장 흐르난 눈물 양소매를 다 적시고 분하고 창한 기운이 하늘 우에 떠오른다.</p>	<p>여 울며 불며 비거비래 하는구나 물새야 우지마라 너 가는 곳 그 어데냐. 군신정상 알겠거든 내 한 말을 들어다오 남쪽하늘을 구중궁궐 한양성을 찾아가서 서산에 해지거든 우리 성상 찾아 뵙고 미련한 이준이 만일 불행 하옵건데 후세에나 다시 섬겨 장충보국 하오리니 옥체보존 하시사하고 그 말 부디 전하여라.</p> <p>마음이 창연하니 아무리 대장부나 인정에 어리어서 아니 올 수 있겠는가 구국간장 흐른 눈물 피가 되어 떨어지고 조국강산 탄식을 하여 퍼버리고 울음 운다.</p>
전개2 동지 합류	<p>(아니리) 여러날만에 천진을 거쳐 노국에 다달아 이상설을 만나 같이 노도에 들어가 이위종을 만나니, 이는 의지가 상합한 동지라. 국사를 서러워해매 분기를 참지 못하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였었다. 그때어 이준선생은 비로소 머리를 깎으시고 양복을 고쳐 입으신 후에 삼인이 동반하여</p>	<p>×73)</p>
헤이그 풍경	<p>(종종모리) 화란 헤이그에 당도하니 과연 시설이 장하고나. 화려한 문화주택 층층이 높아있고, 장대하다 너룬 길은 십자가로 날러있고, 호기있게 뛰노는 마차 기수에게 달려간다. 거리거리 수인들은 왕래를 분별하여 가르쳐 인도하니, 거래 분분하고 의관문무는 다르고 풍속을 비록 다르나 예의 도덕은 일반이라. 각국의 대표들은 국제권이 있는 고로 환영대 군악소리 적격사가 각각 있어 시종이 분별컨만 우리나라 이준선생께 뉘라서 환영하리.</p>	<p>×</p>

박동실은 전개1과 전개2의 사설이 있으나 정철호는 전개2가 생략되었다. 박동실의 전개는 총 302구 중 92구로 30.4% 비중을 차지하고 정철호의 전개는 총 175구 중 60구로 34.4%의 비중을 차지한다.

박동실의 전개 1부분은 이준의 독백을 중심으로 암울한 미래와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어 공감을 유발하고 있다. 전개 2부분은 아니리로 여정 중에 이상설·이위종을 만나 합류하는 내용이다. 정철호는 전개 1에서 이준의 인물치레를 생략하고 이상설·이위종의 합류를 짧게 거론한다. 박동실

73) 해당하는 사설이 없다는 것을 (×)로 표기하였다.

의 전개 1부분의 ‘삼각산~’부분부터 이준의 민생걱정과 고종에 대한 충절을 표현한 내용까지 박동실 전개 1부분과 매우 유사하다. 정철호는 박동실이 사설에서 사용한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풀어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동실은 서울→인천항→동해→러시아→화란 헤이그로의 장소이동이 나타나는데 정철호는 서울→원산항(동해)까지 장소이동이 나타나 러시아, 화란 헤이그는 생략되었다. 두 사설은 모두 이준의 불안한 심상을 대변해주는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쓰였으며 특히 박동실은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 반면 정철호는 한자어를 피하고 쉬운 말로 풀어서 서술하고 있다. 두 작창자의 전개 부분 사설 비교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사설비교표

구분	박동실	정철호
분량 전개 1	58구/ 총 302구	60구/ 총 175구
전개 2	34구/총 302구	×
비중	30.5%	34.3%
등장 인물(대사)	이준	이준
주요 내용	전개1: 출항 후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민생걱정 등 이준의 충성심과 심상을 묘사. 전개2: 이상설·이위종 합류하고 헤이그 풍경을 묘사.	전개1: 출항하여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민생걱정, 이준의 충성심과 심상을 묘사. 전개2: 생략
장소	서울→인천항→동해→러시아→화란 헤이그	서울→원산항(동해)→(러시아, 화란 생략)
의성어, 의태어	뱃전을 탕탕 풍낭은 우루루 물결은 출렁 갈매기 까옥까르르 울어	파도는 출렁출렁 뱃머리는 탕탕 풍낭은 우루루루 갈매기는 까옥까옥 까르르르
한자어	표표(表表)/망명(亡命)/수참(愁慘)/창망(滄茫)/풍편(風便)/불여귀(不如歸)/만리원정/명월공산(明月空山)/비거비래 (飛去飛來)/소소훈풍 송한군/존체보존/구곡간장/상합/적격사	×

3) 위기

위기는 위기1 ‘참석권 거절’, ‘밀서내용’, ‘전보’, ‘이준고민’ 대목과 위기2 ‘밀사파견구실 고종 압박’ 대목이다.

〈표 30〉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사설비교

구분	박동실	정철호
위기1 참석권 거절	(아니리) 이준선생 일행은 사처에 유숙할 제 각국의 대표들은 대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다만 고려조를 아는지라. 과연 우리 역사가, 정치외교가 부족함을 일로 보아 알리로되, 오히려 세상사 어찌 이리 한심할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만국호라 하였거늘 편벽되면 어이하리. 그때여 일본이 영국과 일영조약이 있어 한국의 참석권을 거절하는구나. 이준선생 일행은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여 간신히 참석권을 얻어 장내에 들어가 그 밀서를 받들어 놓으니	(아니리) 헤이그에 당도하여 사방으로 활동할 제 외교권이 없다하고 일본대표 거절이라. 이준 열사 비밀리에 각 국 대표 찾아가서 밀서를 내어놓고 눈물로써 호소하나 시세에 따라가는 국제정세 원망쿠나.
밀서 내용	(자진모리) 그 문서에 하였으되, 반만년 역사 전통을 기록하고 국호는 대한민국이라. 포악무도 일본악정 무력으로 위협하고 한편으로 침략정책 억압을 일삼으니 군신지소고하야 원망이 장차이요, 일강세력 작공하니 무례함이 대신이라, 장차 한국 급한 공사를 의논할데 없거니와 세계화가 될것이니 난색이 근본지족 평화에 굴복되니 후한함을 물리치고 약한 나라를 보조해 달라는 뜻이니, 일본의 발표와는 천연히 달랐구나.	×
전보	(아니라) 각국대사 묵묵히 앉았다가, ‘이는 대한황제께 전보를 쳐 명백한 회전을 받은 후에 공사를 처리하리라.’ 이렇게 공론이 되니, 그때여 이준선생은 대한으로 전보를 띄워놓고 홀로 앉아 곰곰 생각하니	×
이준 고민	(진양조) 국내정세를 아는지라. 전보를 띄웠으나 믿지 못할 일로구나. 국운이 불행하여 간신이 조정에 만백하여 상감의 뜻을 어느 누가 받들어 회전 공을 뉘게다 전하리. 만일 회전이 온다해도 적인의 손을 거쳐서 올것이니 이는 대세 불길이로구나. 나는 응당 죽을테나 금옥같은 우리강산 왜놈들게 짓밟혀 옥석구분이 될것이니 원통코 분한 마음 천추원한이 되리로다.	(창조) 앞뒤로 재어보니 만사는 그런지라 밀사파견 탈로되면 강제탄압 아니할까 나라의 종말이여 이 어찌 되려는가
	(아니리) 이렇듯이 슬피울 제, 그때여 우리나라에선 과학문명이 어두워 전보를 어떻게 치는 줄도 모르는 판에, 또한 전보는 이완용 앞	

구분	박동실	정철호
<p>위기2</p> <p>밀사 파견 구실</p> <p>고종 압박</p>	<p>에 떨어지니, 이완용 전보를 받아들고 이등박문을 찾아가 보인 후에, 송병준 일파를 데리고 어전에 들어가 <u>고종황제를 위협하되</u>, ‘이미 대한은 일본에게 부탁하고 이제와서 미룬일이 없다고 하시니 이일을 어찌 하오리까.’ ‘음 그것은 짐의 뜻이 아니기로 그랬노라.’ ‘만일 그러하시면 일본에 백만군사가 쳐들어 오면 어찌 막하오리까.’ ‘그 백만군사보다 만국평화에 의논하는 이 때 불연 세계 일천만 군사가 있지 않는가.’ ‘상감께서는 간신들에 모략에 빠져 저이들을 죽게 하옵시니 차라리 자결하여 괴로운 국사를 잊고자 하나이다.’ 간직한 송병준이 칼을 빼어 거짓 자결코자 하니, 괴로우신 고종황제는 바늘방석에 앉음이요 나무 끝에 오름이라. 군신지상화가 없으면 울음으로 상감을 농락하고 날로 부귀를 탐을, 내어매국한 우리들이 죽니사니 야단들이 났구나. 황제 노하시사 ‘사랑하는 내 신하를 수만리 타국에 보내고 이제와서 그런 일이 없다고 전보를 칠 수 없으니 경들이 알아서 하라.’ 하였든가. 이완용, 이등박문 저이를 망대로 그런일이 없다고 전보를 띄웠구나. 만국호에서 전보를 받아보고 각국대사 의기가 양양하여 이래도 무슨 변명일꼬.</p>	<p>(중모리) 이 때에 이등방문 밀사파견 구실상고 이완용을 앞장 세워 <u>고종을 위협하며</u> 책임을 추궁하고 고종을 양위시켜 순종이 즉위하니 만사는 어둡도다. (10:35)</p>

박동실의 위기는 총 302구 중 121구이며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철호의 위기는 총 175구 중 24구이며 13.7%의 비중을 차지한다. 박동실의 위기는 정철호보다 사설비중이 약 3배정도 높다.

박동실의 위기1은 “그 문서에 하였으되~”로 시작하여 일강세력 압박으로 보호조약이 체결된 부당함을 전하는 밀서 내용을 서술한다. 각국 대사가 밀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전보를 보내는 내용이다.

박동실의 위기2는 밀사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압박하여 밀사파견 사실을 부정당하는 내용이다. 이완용, 이등박문, 송병준 일파가 고종황제를 위협하는 대목을 연극대사처럼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간신 “이미 대한은 일본에게 부탁하고 이제와서 미룬 일이 없다고 하시니 이일을 어찌 하오리까.”

고종황제 “음 그것은 짐의 뜻이 아니기로 그랬노라.”

간신 “만일 그러시면 일본에 백만 군사가 쳐들어오면 어찌 막사오리까.”

고종황제 “그 백만 군사보다 만국평화에 의논하는 이 때 불연 세계 일천만 군사가 있지 않는가.”

간신 “상감께서는 간심들에 모락에 빠져 저이들을 죽게 하옵시니 차라리 자결하여 괴로운 국사를 잊고자 하나이다.”

위의 대사를 인물의 성격에 맞게 다른 말투와 목소리로 연기를 한다. 고종과 간신의 갈등상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박동실의 위기부분은 노래, 이야기, 연극의 결합이 잘 구성되었다.

정철호는 위기부분을 함축적으로 서술하여 빠르게 휘몰아치듯 사건을 진행하여 속도감을 전한다. “앞뒤로 재어보니~이 어찌 되려는가” 부분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낙담하는 이준의 독백에 해당한다. 대화체가 없으며 사건의 빠른 진행으로 속도감이 느껴진다. 정철호는 박동실의 위기1에 해당하는 ‘밀서내용’과 ‘진보’대목을 생략하였다.

두 사설 모두 의성어, 의태어가 나타나지 않으나 박동실의 위기1 ‘밀서내용’ 대목에는 한자어가 집중되어있다. 두 작창자의 위기 부분 사설 비교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이준열사가> 위기부분 사설비교표

구분	박동실	정철호
분량 위기 1	74구/ 총 302구	16구 /총 175구
위기 2	47구/ 총 302구	8구 / 총 175구
비중	40%	13.7%
등장 인물(대사)	이준 일행⇔각국대표, 고종황제⇔이완용,이등박문, 송병준일파	이준⇔일본대표 고종황제⇔이등박문
주요 내용	참석권 거절, 밀서제출, 전보, 고종위협	참석권 거절, 이준 낙담, 고종 위협 후 순종 즉위.
장소	헤이그-대한제국 어진	헤이그

구분	박동실	정철호
의성어, 의태어	×	×
한자어	편벽되다/ 포악무도/ 일본악정/군신지소고하야/근본지축	×

4) 절정

절정은 ‘이준 분노·자결’ 대목이다. 절정은 이준이 민족의 독립을 외치며 자결하는 극적인 부분이다.

〈표 32〉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사실비교

구분	박동실	정철호
절정 이준 분노 · 자결	(자진모리) 이준선생 분한 마음, 모골이 송연, 피끓어 턱에 차고, 분함이 충천, 희석 앞으로 우루루루루루루루, ‘이놈 왜놈들아, 너희들 침략국이 대만을 위협하여 짓밟고 각국대사들을 속이느냐. 우리 대만은 동방예의지국이다. 간사한 너희놈들 하늘이 두렵지 않겠느냐. 오 천년 역사가 씩씩한 배달민족의 총혈을 뵈라.’ 품안에 든 칼을 번듯내어 가슴을, 콧 찌르니, 선혈이 복받쳐오르고, 왜놈 닢에다 <u>선혈을 뿌리며</u> , ‘이놈 왜놈들아!’ 앞니를 아드득 아드득, 대크기 번듯내어, ‘대한독립 만세 만세’ 삼창을 부르시더니 명이 점점 지는고나.	(엇모리) 이준 열사 분한 마음 모골이 송연하 나 대세가 글렀음에 어쩔 도리 있겠느냐. 거처로 돌아와서 발병하여 <u>분사하니</u> 민족의 원한이여 하늘에 사무친다. (11:02)

박동실의 절정은 총 302구 중 29구이며 비중은 9.7%이다. 정철호의 절정은 총 175구 중 6구이며 비중은 3.4%이다. 두 사설 모두 절정이 전체 사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박동실의 절정 사설이 정철호의 절정 사설보다 약 3배 많다.

박동실의 절정은 이준의 분한 마음을 속도감 있게 설명한다. 곧바로 이준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화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비장한 정서의 확장과 공감으로 슬픔을 극대화 시켰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영상을 보는 듯 상황을 실감나게 전개한다. 또한 분노의 대상인 왜놈을 외치면서

호통을 치는 부분과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은 통쾌함을 전한다. ‘왜놈들아’라고 외치는 부분과 ‘왜놈 낮에다 선혈을 뿌리며’ 부분은 이준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결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정철호의 절정은 박동실의 29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6구로 축약하였다. 박동실은 절정에 맞게 극적인 장면의 감정이입과 분출을 위해 이준의 절규를 대화체로 삽입하여 연기하는데 반해서 정철호는 서술자가 담담하게 이준의 자결을 요약적으로 설명하여 감정분출이 극도로 절제되었다. ‘대세가 글렀음에 어쩔 도리 있겠느냐’, ‘거처로 돌아와서 발병하여 분사하니’ 부분은 이준이 거처로 돌아와 홀로 자결하는 것으로 담담하게 표현한다. 박동실은 점층적으로 감정을 고조시켜 절정부분에서 폭발시켰는데, 정철호는 이준의 자결장면을 절제된 감성으로 표현하였다. 두 작창자의 절정부분 사실 비교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사실비교표

구분	박동실	정철호
분량	29구/ 총 302구	6구/ 총 175구
비중	9.7%	3.4%
등장 인물(대사)	이준	이준
주요 내용	분노, 이준 자결, 만세 삼창	분노, 이준 자결
장소	헤이그(야외)	헤이그 숙소(실내)
의성어, 의태어	우루루루루루루루 번듯내어 콧 짜르니 아드득 아드득	×
한자어	모골이 송연/ 희석/충혈/충천/선혈	×

5) 결말

결말은 이상설·이위종이 이준의 죽음을 서러워하며 통곡하는 ‘축문·탄식’ 대목이다.

〈표 34〉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사설비교

구분	박동실	정철호
결말 축문 · 탄식	<p>(아니리) 일월도 무강하야 산남도 서러워한 듯, 청천에 기러기는 충혼에 떠서 높고 충혼을 슬피울 제, 장내는 고요하고 원한은 가득한데 쓸쓸한 찬바람만 적막을 누리는구나. (16:12)</p> <p>(창조) 그때여 같이 갔던 두분 선생은 어찌되겠느냐. 분하고 쓸쓸한 기운이 하늘 위에 떠오르고 (도섭으로) 절치부심 일본을 가리켜 원망을 하며, 영좌를 모셔 <u>축문을 외는데</u>, ‘대한국 한양성 거하신 <u>이준선생</u>, 만리 화란 복명하여 영결종천 슬프다. 솟는 눈물 피가 되고, 구국간장 타는 가슴 구천지에 사무치니, 오호 통재 원통함을 어느 때나 풀어보리. 구천지하 다시 만나 미진한 국사를 선생님전 아뢰리다.’</p> <p>(진양조) 조사지어 올리더니 그 자리에 가 엎드리지드니마는 ‘아이고 분하여라. 우리 충성이 부족튼가. 국가 운명이 불길튼가. 만리 화란 복명하여 국가대세가 그릇되니 무슨 면목으로 낮을 들고 고향산천을 돌아가며, 구중궁궐 상감마마를 왕반서로 볼 것이니, 무슨 말로 대답하리오, 선생은 만사를 잊고가지만 이 다음 일을 어찌하리. 어음 어음.’ 울음을 운다.</p>	<p>(진양조) 이상설 이위종은 땅을 치고 통곡하되 <u>님의 가신 뉘이려니 유명이 다른지라 묘지에 안장하고 조문 올려 울음을 제</u>, <유세차 광무 11년 7월 모일>이상설 이위종은 눈물로서 고하노니 오호통재라 대한민국 우국열사 <u>이준선생</u> 망국의 서름안고 만리이역 가셨으니 구국일념 그 충절은 만대에 전하리라. 왕생극락 하오시고 구천극락 다시 만난 미진한 이 원한을 여한없이 푸사이다.</p> <p>(진양조)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망국의 비애가 이에서 더할소냐.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기절 혼돈 하였다가 다시 깨어 통탄한 제 몸부림 방성통곡 눈 뜨고는 볼 수 없네.</p>

박동실의 결말은 총 302구 중 44구이며 비중은 14.5%이다. 정철호의 결말부분은 총 175구 중 30구이며 비중은 17.2%이다. 두 사설의 결말은 이준의 죽음 후 영좌를 모셔 축문을 읊고 슬퍼하는 내용으로 비슷한 분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박동실과 정철호의 ‘축문’사설은 전통판소리에서 보이는 사설과 유사하다. 두 사설 모두 대체적으로 4음보 가사체로 사자성어와 한자어가 집중되어있다. 박동실은 절정에서 감정 폭발을 시킨 후 다시 차분하게 축문을 읊으면서 긴장을 이완시킨다. 또한 이상설·이위종의 분한마음을 토로하고

한탄하는 부분이 대화체로 전달된다. 박동실은 이상설·이위종의 슬픔을 의성어로 ‘어응 어응 울음을 운다’로 마무리하는데 정철호는 이상설·이위종의 슬픔을 점층적으로 고조시켜 더욱 강조하였다. 즉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기절 혼돈→다시 깨어 통탄→몸부림 방성통곡 등 관찰자의 시점으로 서술하여 듣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두 작창자의 결말 부분 사설 비교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사설비교표

구분	박동실	정철호
분량	44구/총 302구	30구/총 175구
비중	14.5%	17.2%
등장 인물(대사)	이상설, 이위종	이상설, 이위종
주요 내용	이준의 죽음, 축문사설, 한탄	이준의 죽음, 조문, 한탄
장소	헤이그	헤이그
의성어, 의태어	어응 어응	×
한자어	충혼/축문/통재/복명/절치부심/만리화란/영결중천 구곡간장/구천지하/왕반서	조문/통탄/구국일념 왕생극락/우국열사 구천극락/방성통곡

지금까지 박동실 <이준열사가>와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사설을 소설의 구성 5단계로 나누어 사설구조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사설은 아니리 중 대화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3·4 조 혹은 4·4조를 기본으로 하는 운문체이다.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사설은 아니리를 제외하고 3·4조 혹은 4·4조를 기본으로 하는 운문체이다. 노래와 아니리는 있으나 대화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둘째, 박동실의 아니리는 발단, 전개 ‘동지합류’ 대목, 위기 ‘참석권 거절’ 대목과 ‘전보’ 대목, ‘밀사과견구실 고종 압박’ 대목, 결말 전반부의 ‘축문’ 대목 등 6번 나온다. 아니리 뒤에는 반드시 노래가 나온다. 정철호

의 아니리는 발단 제1장 ‘시대배경’대목, 위기 제1장 ‘참석권 거절’ 대목과 제2장 이준고민 등 3번 나온다. 아니리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시대배경, 상황설명 및 장소전환이다. 아니리 사설이 길 때는 아니리와 창조를 번갈아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셋째,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사설은 총 302구로 구성된다. 발단(16구)은 5.3%로 비중이 가장 낮았고 전개(92구)가 30.5%이고 위기(121구)는 40%이다. 절정을 향해가는 전개와 위기를 합하면 7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절정(29구)은 9.7%이며 결말(44구)은 14.5%로 절정보다는 높은 비중이다. 반면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사설은 총 175구로 구성된다. 발단(55구)은 31.4%로 사설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개(60구)가 34.3%로 사설비중이 가장 높았다. 위기(24구)는 13.7%이다. 절정을 향해가는 위기에 사건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며 절정(6구)은 3.4%로 사설 비중이 가장 낮다. 결말(30구)은 17.2%로 위기와 절정보다는 높은 비중으로 차지한다.

즉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사설구조는 위기 부분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전개-결말-절정-발단 순으로 사설 비중이 높았다. 전통판소리처럼 발단은 짧고 간결하며 전개로 곧바로 들어가는 간다. 위기부분 아니리에 대화체가 집중되어 있다. 절정 ‘이준 자결’ 대목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극적인 상황을 묘사하였다. 결말은 절정보다 사설비중이 높으며 이준의 죽음 후 슬픔을 강조하였다. 아니리-소리 순으로 반복되며 아니리는 시대배경 및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인물들의 대화를 제시할 때 나온다. 반면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사설구조는 전개-발단-결말-위기-절정 순으로 사설 비중이 높았다. 발단과 전개의 사설이 전체 사설의 65%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절정에 해당하는 ‘이준 자결’ 대목은 3.4%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긴박한 상황을 함축적으로 서술하였다. 결말은 17.2%로 위기·절정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준의 자결 장면보다 죽음 후 남겨진 사람들의 비극적인 감성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사설구조 비교

구성	사설내용	박동실			정철호		
		장단	구 (302)	비율 (100%)	장단	구 (175)	비율 (100%)
발단	시대배경	아니리	16구	5.3%	아니리- 창조-아니리- 창조	42구	31.4%
	밀사파견				중모리	13구	
전개	여정	중모리	58구	30.5%	중모리	18구	34.3%
	이준심상				진양조	42구	
	동지합류	아니리	12구		×	×	
	헤이그 풍경	중중모리	22구		×	×	
위기	참석권 거절	아니리	21구	40%	아니리	10구	13.7%
	밀서내용	자진모리	21구		×	×	
	전보	아니리	8구		×	×	
	이준 고민	진양조	24구		창조	6구	
	밀사파견구실 고종 압박	아니리	47구		중모리	8구	
절정	이준 분노·자결	자진모리	29구	9.7%	엃모리	6구	3.4%
결말	축문	아니리	29구	14.5%	진양조	20구	17.2%
	탄식	진양조	15구		진양조	10구	

2. 음악 비교

본 절에서는 박동실 <이준열사가>와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겠다. 음악적인 특징은 장단 및 붙임새, 악조, 선율진행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장단 및 붙임새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에서 활용한 장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동실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총 4개의 장단을 사설의 분위기에 따라 사용하였다. 발단은 아니리의 짧은 서술을 하고 전개에서 사설의 비중이 많아 중모리와 중중모리장단으로 변화를 주었다. 위기 부분도 사설의 비중이 적절하도록 자진모리와 진양조장단을 사용하여 소리를 작창하였다. 절정은 자진모리장단으로 이준의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빠른 장단으로 표현하면서 맺는다. 또한 도섭을 넣어 창자가 선율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기량을 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결말은 진양조장단을 사용하여 이준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픈 감성을 유도한다.

정철호는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 총 3개의 장단을 사용하였다. 정철호의 발단에 처음 나오는 소리는 중모리장단으로 시작하고 있다. 전개부분에서 중모리와 진양조장단을 사용하여 변화를 준다. 이를 박동실과 비교해 보면 박동실은 중모리 40장단의 분량을 정철호는 중모리와 진양조장단으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헤이그를 향해 출항부분은 중모리장단으로 구성하고 이준의 심상을 표현하는 부분은 진양조장단으로 구성하여 슬픔을 더욱 강조하였다. 위기는 중모리 총 5장단으로 밀사파견을 구실삼아 고종을 위협하는 내용을 짧게 압축하여 노래한다. 전통판소리에서 범상한 인물의 거동이나 신비로운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엇모리장단을 이준의 분노와 자결이라는 심각한 장면에 배치한 것이 특이하다. 결말은 진양조장단을 선택하여 이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강조하였다.

박동실은 전개1을 중모리장단으로 구성하는데 정철호는 중모리와 진양

조장단으로 구성하였다. 박동실은 절정을 자진모리장단으로 구성하였으나 정철호는 엇모리장단으로 구성한 것이 독특하다. 박동실과 정철호는 발단·전개·위기·절정에서 서로 다른 장단을 선택하여 구성하고 있으나 결말은 두 사람 모두 진양조장단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이상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에 사용된 장단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장단구성 비교

구분		박동실	정철호
발단	장단	×	중모리
	장단 수	×	11장단
전개1	장단	중모리	중모리/진양조
	장단 수	40장단	16장단/36장단
전개2	장단	중중모리	×
	장단 수	17장단	×
위기1	장단	자진모리/진양조	×
	장단 수	26장단/17장단	×
위기2	장단	×	중모리
	장단 수	×	5장단
절정	장단	자진모리	엇모리
	장단 수	38장단	12장단
결말	장단	진양조	진양조
	장단 수	17장단	24장단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에 나타나는 불임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동실의 전개는 총 57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이 23장단으로 40.4%, 엇불임이 20장단으로 35%, 교대죽이 3장단으로 5.3%, 잉어걸이가 2장단으로 3.5%, 완자걸이가 4장단으로 7%, 혼합불임세인 완자걸이와 엇불임이 함께 나타나는 장단이 5장단으로 8.8%이다. 이와 같이 박동실은

대마디대장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붙임새를 사용하였다. 반면 정철호의 전개는 총 52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이 31장단으로 61.5%, 엇붙임이 6장단으로 36.5%, 교대죽이 1장단으로 2%이다. 정철호는 박동실보다 대마디대장단을 더 높은 비중으로 사용하였으며 잉어걸이, 완자걸이, 혼합붙임새를 사용하지 않았다.

박동실의 위기는 총 43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이 23장단으로 55.8%, 엇붙임이 5장단으로 11.6%, 잉어걸이가 4장단으로 9.3%, 교대죽은 2장단으로 9.3%, 혼합 붙임새인 완자걸이+엇붙임과 잉어걸이+엇붙임이 3장단씩 7%이다. 박동실은 대마디대장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붙임새를 사용하였다. 반면 정철호의 위기는 총 5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이 3장단으로 60%, 엇붙임이 2장단으로 40%이다. 정철호는 박동실보다 대마디대장단을 더 높은 비중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엇붙임을 사용하였다.

박동실의 절정은 총 38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은 9장단으로 23.7%, 엇붙임은 11장으로 29%, 잉어걸이는 2장단으로 5.3%, 교대죽은 4장단으로 10.5%, 도섭은 12장단으로 31.5%이다. 박동실은 절정에서 도섭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엇붙임, 대마디대장단, 교대죽, 잉어걸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철호의 절정은 총 12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이 8장단 66.7%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도섭 4장단으로 33.4%이다. 정철호는 박동실보다 대마디대장단을 더 높은 비중으로 사용하였으며 박동실과 비슷한 비중으로 도섭을 사용하였다.

박동실의 결말은 총 17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이 12장단으로 70.6%, 엇붙임이 4장단으로 23.5%, 교대죽이 1장단으로 5.9%이다. 박동실은 결말에서 혼합붙임새 사용 없이 대마디대장단을 높은 비중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정철호의 결말은 총 24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이 18장단으로 75%, 엇붙임이 6장단으로 25%이다. 정철호는 박동실보다 대마디대장단을 더 높은 비중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장단으로 엇붙임을 사용하였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단계별 붙임새 비율

구분		박동실	정철호	장단	
				박동실	정철호
발단	대	×	63.6% 7장단	×	중모리 11장단
	엇	×	36.4% 4장단		
전개	대	40.4% 15장단/8장단	61.5% 9장단/23장단	중모리 40장단 / 중중모리 17장단	중모리 16장단 / 진양조 36장단
	엇	35% 20장단/0장단	36.5% 6장단/13장단		
	교	5.3% 3장단/0장단	2% 1장단/0장단		
	잉	3.5% 2장단/0장단	0장단		
	완	7% 0장단/4장단	0장단		
	완+엇	8.8% 0장단/5장단	0장단		
위기	대	55.8% 9장단/15장단	60% 3장단	자진모리 26장단 / 진양조 17장단	중모리 5장단
	엇	11.6% 5장단/0장단	40% 2장단		
	잉	9.3% 4장단/0장단	0장단		
	교	9.3% 2장단/2장단	0장단		
	완+엇	7% 3장단/0장단	0장단		
	잉+엇	7% 3장단/0장단	0장단		
절정	대	23.7% 9장단	66.7% 8장단	자진모리 38장단	엇모리 12장단
	엇	29% 11장단	0장단		
	잉	5.3% 2장단	0장단		
	교	10.5% 4장단	0장단		
	도섭	31.5% 12장단	33.4% 4장단		
결말	대	70.6% 12장단	75% 18장단	진양조 17장단	진양조 24장단
	엇	23.5% 4장단	25% 6장단		
	교	5.9% 1장단	0장단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붙임새와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붙임새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박동실은 총 155장단 중 대마디대장단이 68장단으로 43.8%, 엇붙임이 40장단으로 25.5%, 교대죽이 12장단으로 7.7%, 도섭이 12장단으로 7.7%, 잉어걸이가 8장단으로 5.2%, 완자걸이가 4장단으로 2.6%로 구성된다. 혼합 붙임새로는 완자걸이와 엇붙임이 함께 나타나는 장단이 8장단으로 5.2%, 잉어걸이와 엇붙임이 함께 나타나는 장단이 3장단으로 1.9%이다. 이와 같이 박동실은 다양한 붙임새의 종류를 활용하여 <이준열사가>를 작창하였다. 그중 가장 많이 나타난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이며 엇붙임, 교대죽, 도섭, 잉어걸이, 완자걸이 순으로 나타난다. 혼합붙임새가 나타나는데, 이는 완자걸이+엇붙임, 잉어걸이+엇붙임이 함께 사용되는 장단이다. 박동실은 엇붙임과 더불어 교대죽, 잉어걸이, 완자걸이, 혼합붙임새를 사용하여 리드미컬한 소리를 구사한다.

정철호는 총 104장단 중에 대마디대장단이 68장단으로 65.4%, 엇붙임이 31장단으로 29.8%, 도섭이 4장단으로 3.8%, 교대죽이 1장단으로 1%이다. 정철호는 대마디대장단, 엇붙임, 도섭, 교대죽과 같은 4가지 붙임새의 종류만 사용하였다. 그중 가장 많이 나타난 붙임새는 대마디대장단이며 엇붙임, 도섭, 교대죽 순으로 나타난다. 정철호는 대마디대장단을 중심으로 엇붙임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잉어걸이, 완자걸이, 혼합 붙임새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정철호가 가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본적인 붙임새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에 나타난 붙임새를 분석한 결과 출현빈도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붙임새 비율

붙임새	박동실 (155장단)	비율 (100%)	정철호 (104장단)	비율 (100%)
대마디대장단	68	43.8	68	65.4
엇붙임	40	25.8	31	29.8
교대죽	12	7.7	1	1
도섭	12	7.7	4	3.8
잉어걸이	8	5.2	0	0
완자걸이	4	2.6	0	0
완자걸이+엇붙임	8	5.2	0	0
잉어걸이+엇붙임	3	1.9	0	0

2) 악조

박동실과 정철호는 모두 우조와 계면조를 사용하고 있다. 박동실 <이준열사가> 중 아니리를 제외한 전개 제1장과 전개 제2장, 위기 제1장과, 위기 제2장, 절정, 결말의 악조를 살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동실의 경우 가장 낮은 음은 D(si)이고 가장 높은 음은 c'(la)로 두 옥타브 7도로 비교적 넓은 음역이다. 즉 상청에서 하청까지 음을 끌고루 사용하여 소리를 구사한다. 구성음은 mi·sol·la·do·re'음이며 'mi'음을 굵게 떼고 'do'^si'로 꺾는 목이 자주 등장하는 c(la)본청 계면조가 주를 이룬다. 전개 제1장, 위기 제1장과 절정은 c(la)본청 계면조를 바탕으로 일부 우조성음이 나타나며 전개 제2장은 e^b(do)본청 우조로 시작되었다가 c(la)본청 계면조로 변조된다. 이후 위기 제2장과 결말은 c(la)본청 계면조이다.

정철호 <이준열사가> 중 아니리를 제외한 발단, 전개 제1장과 전개 제2장, 위기, 절정, 결말의 악조를 살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철호의 경우 가장 낮은 음은 G[#](mi)이고 가장 높은 음은 c'(la)로 음역은 한 옥타브 3도이다. 구성음은 mi·sol·la·do·re'음이며 'mi'음을 굵게 떼고

‘do[^]si’로 꺾는 목이 자주 등장하는 c[#](la)본청 계면조가 주를 이룬다. e(do)본청 우조인 전개 제1장 앞부분과 위기 ‘밀사과견구실 고종압박’ 대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목들은 c[#](la)본청 계면조이다. 이상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에 나타난 악조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40>과 같다.

<표 40>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악조 비교

구분	박동실	정철호
발단	×	e본청 우조
전개	c본청 계면조 e ^b 본청 우조	e본청 우조 c [#] 본청 계면조
위기	c본청 계면조	e본청 우조
절정	c본청 계면조	c [#] 본청 계면조
결말	c본청 계면조	c [#] 본청 계면조

3) 선율

본 항에서는 앞서 살펴본 박동실과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선율진행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하겠다. 비교할 대상은 전개 ‘여정·이준 심상’ 대목과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 결말 ‘축문·탄식’ 대목이다.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전개 ‘여정·이준 심상’ 대목은 중모리 40장단으로 구성된다. 제1~4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 단락 모두 하행선율로 시작하여 도약·급강 선율 진행을 하다가 제3단락에 이면을 강조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제4단락은 다시 하행선율로 시작하여 잔가락이 많은 복잡한 선율로 마무리한다. 정철호의 전개 ‘여정·이준 심상’ 대목은 중모리 16장단과 진양조 36장단으로 구성된다. 중모리 16장단의 선율은 동음반복으로 시작하여 완전4도 상·하행 선율진행을 한다. 평탄한 선율이 진행되다가

길게 뻗는 선율로 마무리한다. 진양조 36장단의 선율은 동음반복으로 시작하여 제2단락에서 도약·급강 선율이 출현하면서 이면을 강조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하행진행하면서 저음으로 종지한다. 즉 박동실은 하행하는 선율로 시작하여 완전8도 도약·급강 선율 진행이 자주 나타나며 복잡한 선율로 진행하는데 정철호는 동음반복 선율로 시작하여 잔가락이 없이 담백한 선율로 진행한다. 그러나 전개에서는 이면을 강조하는 선율이 나오는 것이 공통점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전개부분 선율비교

박동실 전개1			정철호 전개1		
단락	장단	선율진행	단락	장단	선율진행
중모리 1단락	1~8	하행선율 -평탄한 진행 반복	중모리 1단락	1~16	동음반복-완전4도 상·하행 - 평탄한 진행 -길게 뻗는 선율
중모리 2단락	9~20	하행선율-완전8도 도약·급강진행 반복 -복잡한 선율진행	진양조 1단락	1~9	동음반복-평탄한 선율진행 -하행선율
중모리 3단락	21~28	하행선율-완전8도 도약·급강진행 -이면 강조선율	진양조 2단락	10~16	완전8도 도약·급강진행 -이면 강조선율
중모리 4단락	29~40	하행선율 -복잡한 선율진행	진양조 3단락	17~29	평탄한 선율진행 -고음역 지속진행 -도약·급강 진행 -복잡한 선율진행
			진양조 4단락	30~36	하행진행-저음진행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은 자진모리 38장단으로 구성된다. 도약·급강 진행, 고음역 지속진행, 호령하는 선율, 이면 강조 선율, 하행선율 등 다양한 형태로 선율이 진행되며 도약진행이 자주 나타난다. 반면 정철호의 절정 ‘이준 분노·자결’ 대목은 동음반복으로 시작하여 평탄한 선율 진행을 하다가 완전 4도 상·하행하는 도약진행이 나

타난다. 박동실의 선율진행에 비해 정철호의 선율진행은 복잡하지 않으며 기교보다는 가사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절정부분 선율비교

박동실 절정(자진모리)			정철호 절정(엇모리)		
단락	장단	선율진행	단락	장단	선율진행
자진모리 1단락	1~6	도약·급강 진행 -고음역 지속진행 -이면강조선율	엇모리 1단락	1~12	동음반복 -평탄한 선율진행 -길게 뻗는 선율
자진모리 2단락	7~17	호령하는 선율 -도약·급강진행 후 동음반복 -고음역 지속진행			
자진모리 3단락	18~21	이면 강조선율 -도약·급강진행			
자진모리 4단락	22~38	호령하는 선율 -고음역 지속진행 -하행선율			

박동실 <이준열사가>의 결말 ‘축문·탄식’ 대목은 동음반복으로 시작하여 흘러내리는 선율이 자주 나타난다. 잔가락이 많이 나오는 복잡한 선율진행을 보이다가 저음진행으로 마무리한다.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결말 ‘축문·탄식’ 대목은 동음반복으로 시작하여 완전4도 상·하행하는 선율진행이며 축문을 읊는 도섭부분에서는 고제 혹은 중고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순차적 상·하행 선율⁷⁴⁾이 보인다. 슬픈 감정이 고조될 때는 고음역으로 지속하는 선율진행을 하다가 저음진행으로 마무리한다. 박동실은 잔가락을 많이 사용하며 고음역 지속진행이 없으나 정철호는 축문 사설에서 순차적인 선율진행이 나타나고 고음역 지속진행도 나타난다. 위 내용을 정

74)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다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196쪽.

리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박동실·정철호 <이준열사가> 결말부분 선율비교

박동실 결말			정철호 결말		
단락	장단	선율진행	단락	장단	선율진행
진양조 1단락	1~17	동음반복 -홀러내리는 선율 -동음반복 -복잡한 선율진행 -저음진행	진양조 1단락	1~14	동음반복 -완전4도 상·하행 선율 -하행선율-저음진행 -순차적 상·하행 선율
			진양조 2단락	15~24	고음역 지속진행 -하행선율-동음진행 -저음진행

이상 박동실 <이준열사가>와 정철호 <이준열사가>의 선율 진행을 살펴본 결과, 박동실은 각 대목의 시작 선율이 다채롭다. 박동실은 잔가락을 많이 사용하고 완전8도 도약·급강 선율진행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철호는 각 대목을 동음 반복으로 시작하며 잔가락이 많지 않다. 완전8도 도약·급강하는 선율진행보다는 완전4도 상·하행 선율이 자주 나타난다. 두 사람 모두 이면을 잘 살려서 소리를 구성하고 있다. 박동실이 도약·급강 진행, 고음역 지속진행, 호령하는 선율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정철호보다 표현이 다채롭고 과장되며 극적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이상으로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를 대상으로 사설구조·장단 및 불임새·악조·선율 총 네 항목을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사설구조의 경우, <이준열사가>는 이야기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갈등과 해결의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설의 구성 5단계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사설을 비교하면 각 단계별 비중이 다르다. 박동실(사설 박만수)의 사설은 총 302구이고 정철호(사설 박황)의 사설은 총 175구로 박동실의 사설이 정철호의 사설보다 약 1.7배 길다. 사설 구조를 살펴보면 박동실(사설 박만수)은 절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개-위기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정철호(사설 박황)는 발단과 전개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두 사설 모두 절정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준이 자결하는 장면을 함축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결말의 축문 사설은 전형적인 4·4조를 활용하였다. 박동실(사설 박만수)은 사설에 한자어와 대화체 문장이 있으나 정철호(사설 박황)는 한자어 사용을 자제하고 대화체도 생략하였다.

둘째로 장단의 경우, 박동실은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등 총 4개의 장단을 사용하였다. 정철호는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엇모리장단 등 총 3개의 장단을 사용하였다. 절정에 박동실은 자진모리장단을, 정철호는 엇모리장단을 선택하여 긴박함을 표현하였다. 박동실은 ‘아니리-소리-아니리-소리’의 대비적 패턴을 활용한 반면 정철호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로 불임새의 경우, 박동실과 정철호 모두 대마디대장단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엇불임, 교대죽, 도섭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박동실은 정철호보다 엇불임, 잉어거리, 혼합불임새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박동실은 정철호보다 불임새를 다채롭게 활용하여 리드미컬한 소리를 구사

한다. 반면 정철호는 가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불임새의 변화를 절제하고 혼합불임새를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로 악조의 경우, 박동실과 정철호의 <이준열사가>는 우조와 계면조를 사용하고 있다. 박동실은 전개부분에서 c(la)본청 계면조와 e^b(do)본청 우조를 교대로 사용하고, 위기부터 결말까지는 계면조를 사용하였다. 정철호는 발단부분에서 e(do)본청 우조로 시작하여, 전개 중반부터 우조에서 c[#](la)본청 계면조로 전조되고 간혹 f[#](re)으로 청의 변화를 준다. 위기는 e(do)본청 우조, 절정과 결말은 계면조를 사용했다. 박동실과 정철호 모두 우조의 청보다 계면조의 청이 단3도 낮다. 우조를 바탕으로 계면조 성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계면조를 바탕으로 우조성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박동실은 정철호에 비해 계면조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선율의 경우, 박동실은 각 대목의 시작 선율이 다채롭지만 정철호는 동음 반복이 나타난다. 박동실은 선율진행에서 잔가락과 완전8도 이상의 도약·급강 진행이 많이 나타난다. 반면 정철호는 잔가락이 적으며 도약·급강하는 선율진행보다는 완전4도 상·하행 선율이 자주 나타난다. 두 사람 모두 소리를 이면에 맞게 구성하고 있으나 박동실의 선율이 정철호보다 더욱 과장되고 극적이다.

본 연구는 창작판소리 <이준열사가>에 한하여 박동실과 정철호의 음악적 성향을 살펴보았다. 박동실은 판소리적(예술성)인 상대적 특징이 보이고, 정철호는 창극적(대중성)인 상대적 특징이 보이는데, 이는 사설 구조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작창가의 특성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작창자의 음악적 특징은 여타 열사가류 음악들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1999.
- 권영민.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태학사, 2006.
- 박 황. 『창극사연구』, 백록출판사, 1976.
- 황준연. 『한국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논문>

- 김기형. 「창작판소리 사설의 표현특질과 주제의식」, 『판소리연구』 제5집, 판소리학회, 1994.
- _____. 「판소리 명창 박동실의 의식지향과 현대판소리사에 끼친 영향」, 『판소리연구』 제13집, 판소리학회, 2002.
- 김민영. 「열사가 선율분석: 이성근 창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성근. 「정철호류 아쟁산조 선율구조분석」,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 연. 「창작판소리연구 :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_____. 「창작판소리 발전과정연구」, 『판소리연구』 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 김용호. 「산조아쟁의 발생과정과 아쟁산조의 유파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정태. 「정철호 창작 판소리의 작품세계 연구」, 판소리학회 제83차 정기학술대회발표문, 2017.

- 김진영. 「박동실 명창의 삶과 예술」, 『인문학연구』 제7호, 경희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3.
- 배성자. 「박동실 판소리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은주. 「판소리 중고제 심정순 바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유영대. 「창작판소리 “열사가”에 대하여」, 『판소리연구』 제3집, 판소리학회, 1992.
- _____. 「20세기 창작 판소리의 존재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제39집, 한국민속학회, 2004.
- 윤명원. 「판소리 청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음악학』 제3호, 한국전통음악학회, 2002.
- 이관웅. 「아쟁산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광우. 「판소리장단의 엇붙임」, 『소리와 장단』 제5권, 대한고우회, 1988.
- 이규호. 「판소리 붙임새 용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_____. 「창작판소리의 음악 짜임새 : 2001년~2003년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판소리연구』 제17집, 판소리학회, 2004.
- 이경엽. 「명창 박동실과 창작판소리 -지역문화론적 활용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10집, 남도민속학회, 2004.
- 이기우. 「명창론」, 『판소리의 지평』, 도서출판 신아, 1990.
- 이보형. 「판소리 붙임새에 나타난 리듬론」, 『장사훈박사 회갑기념 동양음악논총』, 서울: 한국국악학회, 1977.
- 이보형. 「육자백이토리 음조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4집, 한국음악학회, 1996.
- _____. 「박동실의 음악세계」, “명창 박동실 추모 학술대회”, 판소리학회 제45차 정기 학술대회, 담양문화회관, 2003.
- 이진원. 「박동실 증언 “창극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를 통해 본 창극의 초기양상」, 『판소리연구』 제18집, 판소리학회, 2004.
- 이태백. 「아쟁산조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임상래. 「창악인 정철호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휘주. 「박동실제 <심청가>의 構造와 情趣」, 『판소리연구』 제19집, 판소리학회, 2005.
- 정병현. 「명창 박동실의 선택과 판소리사적 의의」, 『한국민속학』 제36집, 한국민속학회, 2002.
- 최동현. 「판소리 장단 연구」, 『판소리의 지평』, 신아출판사, 1990,
- _____. 「박동실 명창의 창작판소리 열사가: 『창작판소리 열사가』」, 『한국음악사학보』 제12집, 한국음악사학회, 1994.
- _____. 「분단에 문헌 서편소리의 대부-박동실론」, 『판소리 명창과 고수 연구』, 신아출판사, 1997.
- 최진숙. 「창작 창극 『제비』의 음악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음반>

- 창작판소리 열사가(烈士歌), (주)킹레코드 SYNCNCD-047~048(2CD), 1993.
- 정철호 작품집 4집(열사가/신민요), (주)서울음반 SRCN-1458(1CD), 2001.

Abstract

A Study of <Song of Lee Jun, the Patriot>

by comparison with Park Dong-sil and Jung Chul-ho version.

Lee, dong hui

Major in Korean Music theor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aspects of two <Song of Lee Jun, the Patriot> of *Park Dong-sil* and *Jung Chul-ho*, by analysis and comparison. The two writers of <Song of Lee Jun, the Patriot> have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 and historical situation. On Comparison, distinctive form of musical composition and expression showed, of which were existed due to the intension of composer. The result of study is as below :

Firstly, in lyric structure, *Park* (narrator: *Park Mansoo*) put emphasize on complication and crisis part of story to express climax dramatically. In contrast, *Jung* (narrator: *Park Hwang*) emphasized exposition and complication part of story, and treated crisis and climax rapidly. Thereby *Park* only stressed the grief of death. Also, *Park* utilized Chinese letter and idioms when *Jung* used Korean to explain easily. Unlike *Jung*, *Park* has traditional *Pansori* component, of which the dialogic description were appeared to immerse audience.

Secondly, about *Buchimsae*, the frequency of Daemadi-Daejangdan was the highest both on Park and Jung version. In detail, *Jung* used *Daemadi-Daejangdan* more than *Park* and *Park* used transformed *Buchimsae* like *Eot-Buchim*, *Ingeo-geoli* and *Wanja-geoli*. *Park*

constructed rhythmic music using various type of *Buchimsae* overall, On the other hand, *Jung* restrained the variation of rhythm to deliver the lyrics clearly.

Thirdly, on mode, <Song of Lee Jun, the Patriot> of *Park* and *Jung* is consisted of *Ujo* and *Gyemyeonjo* mode. *Park* made complication part with c-mode *Gyemyeonjo* and e \flat -mode *Ujo*. From the crisis to the resolution part, *Gyemyeonjo* appeared. *Jung* started the melody with e-mode *Ujo*, and changed the mode to c \sharp *Gyemyeonjo* in middle of complication. Occasionally the center tone were changed to f \sharp . *Ujo* used in crisis, and *Gyemyeonjo* used for climax and resolution part. Main tone of *Gyemyeonjo* was minor-third degree lower than *Ujo* in both song of *Park* and *Jung*. *Gyemyeonjo* was mainly used on both songs. *Park* showed higher ratio of *Gyemyeonjo* than *Jung*.

Lastly, in melodic aspect, diverse melodies were appeared in the beginning of *Park* piece. Nevertheless, *Jung* usually repeated same tone in the beginning. *Park* conjugated grace tone and extreme progress like perfect-eighth elevation and sudden drop. *Jung* rarely used grace tone, and progressed upper and lower by perfect-fourth interval. Two piece were consisted with appropriate narration and atmosphere for plot, though *Park* were more dramatic and literacy.

In Conclusion, *Park* and *Jung* showed distinct musical tendency on composed *Pansori* <Song of Lee Jun, the Patriot>. *Park* showed artistic aspect like traditional *Pansori*, while *Jung* showed popular aspect like Korean traditional Opera relatively. This result could not define the whole character of two composer, because the result could be produced by the difference of lyric structure. Therefore comprehensive evaluation are demanded with further patriot song comparison.

Keywords : Composed Pansori, Lee Jun, Patriot song,
Park Dong-sil, Jung Chul-ho, Composed song.
Student Number : 2009-21753

부 록 1

박동실 <이준열사가>

전개 ‘여정 · 이준심상’	118
전개 ‘헤이그 풍경’	125
위기 ‘밀서내용’	127
위기 ‘이준고민’	129
절정 ‘이준 분노 · 자결’	132
결말 ‘탄식’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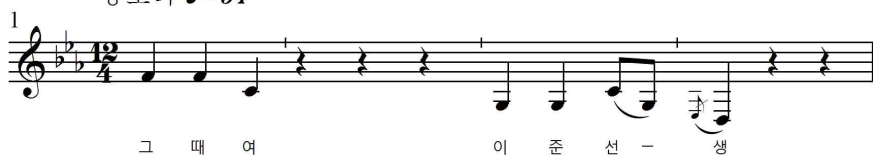
전 개 '여정 · 이준심상'

작 창 : 박동실

창 : 이성근

채 보 : 김백천 · 이동희

중모리 ♩ =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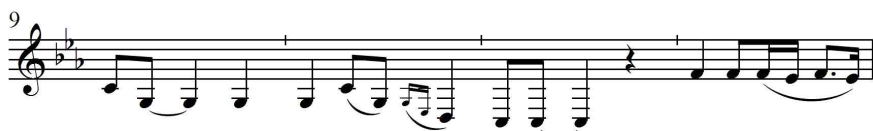




절 - 개 로 다 망 - 명 수 참 그 얼 - - 굴 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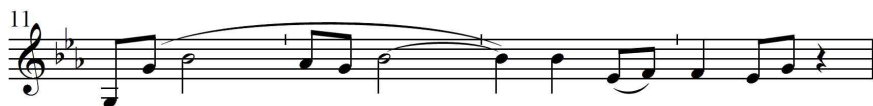
- 애 국 - 충 - - 신 이 깊 었 - 구 나



삼 각 - 산 은 점 - 점 멀 고 - 앞 길 은 - - -



창 - 망 현 - - 디 어 - - - 데 서 슬 - 픔 소 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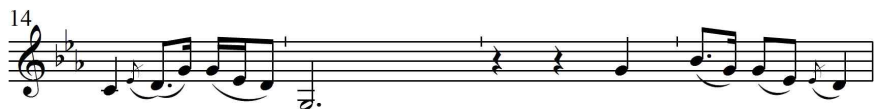
풍 편 - - - - 으 들 - 러 오 고



뜻 밖 의 불 - 여 - 귀 는 피 를 - 내 어 슬 - 피 - -



울 어 만 - 리 원 정 - 이 별 을 - - 현 -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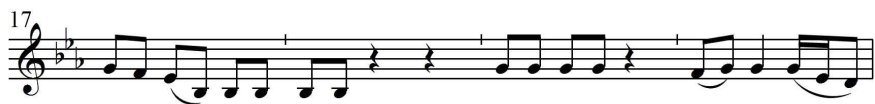
야 월 - 공 - - 산 어 데 - 두 - 고



진 정 - - 채 송 - - 단 - - 장 성 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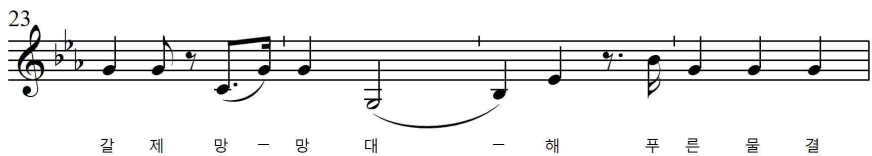
촉 국 - - 한 이 깊 었 - - 구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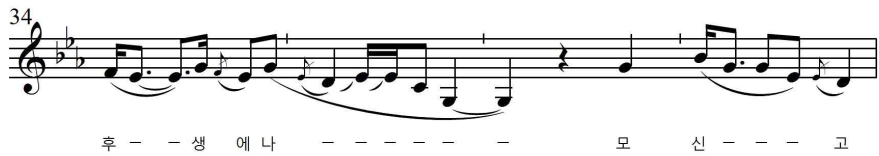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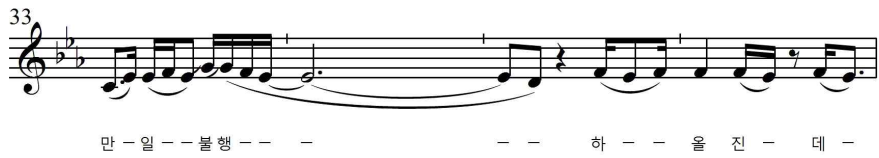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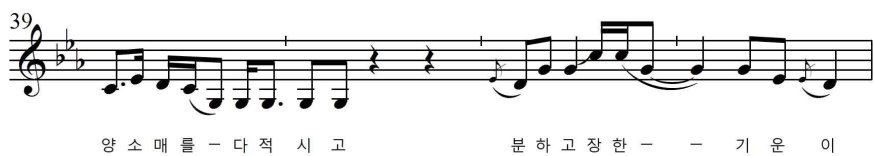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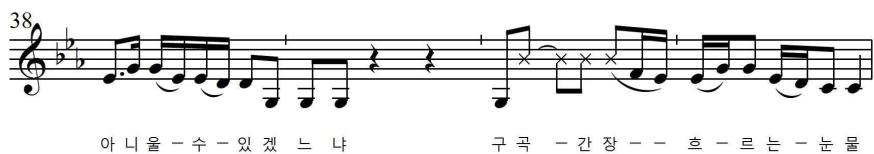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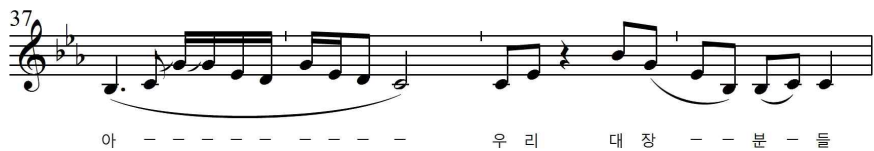
가 던 길 - 멈 추 시 고 다 시 발 을 돌 - 면 서 - -



궁 성 에 - 하 직 을 허 니 슬 프 다 이 결 - - 음 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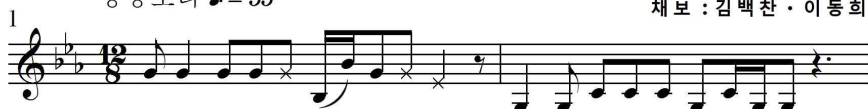
전 개 '헤 이 그 풍 경'

작 창 : 박 동 실

창 : 이 성 근

채 보 : 김 백 찬 · 이 동 회

중중모리 ♩ = 55



화 란 해 아 에 당 - 도 하 니 과 연 시 설 이 장 하 구 나



화 려 한 문 화 주 택 층 층 이 높 아 있 고 장 대 하 다 너 룬



길 은 - 십 자 가 로 나 아 있 고 호 기 있 게 뛰 는 마 차 기 수 에 게



달 려 간 다 거 - 리 거 리 수 인 - 들 은 왕 - 래 - - 를 - 분 별 하 야



가 르 처 인 도 하 니 거 - 래 가 분 - 분 하 고 의 - 관 문 무 는 - 다 르 고



풍 속 은 비 록 - - 다 르 나 예 의 도 덕 은 - - 일 반 이 라 -

13

각국의대표 - 들은국제권이있는고로환영대군악소리적격사가

15

각각있어시종이 - 분 - 별건만 우리나라 - 이준선 - 생 -

17

깨 뉘 라 서 환 영 을 허 리 -

위기 '밀서내용'

작창 : 박동실

창 : 이성근

채보 : 김백찬 · 이동희

1 자진모리 ♩ = 96

그 서 문 에 하 였 으 되 반 만 년 역 사 전

3 통 - - 을 - 이 룩 하 고 국 호 는 대 한 국 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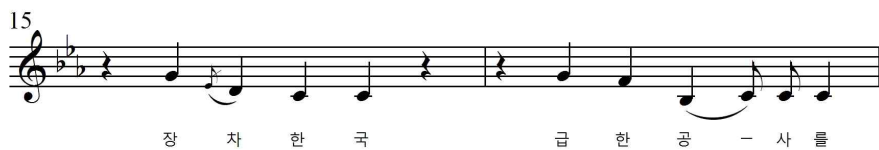
5 - - 포 악 - 무 도 일 - 본 악 정

7 무 력 으 로 위 협 하 고 한 편 으 로 침 략 정 책

9 - - 억 압 을 일 삼 으 니 군 신 지 소 - 고 하 야 -

11 원 - 망 이 장 천 리 요 일 - 강 세 력 작 궁 - 하 니

13 무 레 함 이 대 신 이 라 - - - -



위기 '이준 고민'

작창 : 박동실

창 : 이성근

채보 : 김백찬 · 이동희

진양조 ♩ = 30

1

국 내 - - - 정 세 를

2

아 - - 는 - 지 - - - 라 -

3

전 보 는 - 띄 웠 - - 으 나 - - -

4

믿 지 - - - 못 할 - 일 - - - 이 로 - 구 나

5

국 운 - 이 - - 불 행 하 여 - - -

6

간 - 신 이 - 조 정 에 만 - 백 - - - - - 허 니

7

상 감 의 뜻 을 - - - - - 누 가 - 받 들 어 -



회 전 - 문 을 - 뉘 게 다 - 전 하 리



만 - - 일 회 전 이 - 온 - 다 해 도 - - - -



적 인 의 손 을 거 쳐 - - - 서 - - - - 울 것 이 니



이 는 대 세 불 - 길 이 로 구 나 - -



나 - - 는 응 - 당 죽 을 테 나



금 옥 - - - 갈 은 - 우 - - 리 강 산



왜 눈 - - - - - 들 게 짓 밟 혀



옥 석 - - - 구 분 - - 이 - 될 것 - - - 이 니 -



원 통 고 분 한 - 마 음 - - -



천 추 - - - 원 한 이 - 되 - - - 리 로 다

절정 '이준 분노 · 자결'

작창 : 박동실

창 : 이성근

채보 : 김백찬 · 이동희

1 자진모리 ♩ = 96

이 준 선 생 분 - 한 마음 오 골 이 승 연 피 끓 어 텍 이

3

차 고 분 합 이 충 천 - - - -

5

회 석 - 앞 으 로 우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루

7

이 놈 왜 놈 - 들 아 - - - -

9

너 희 들 - 침 - 락 주 의 대 한 을 위 험 하 여 짓 밟 히 고

11

각 국 대 사 들 을 속 이 느 나 우 리 대 한 은 동 - 방 예 의

13

지 국 이 다 간 - 사 한 너 희 놈 들 하 늘 이 두 렵 지 않 겠 느 나

15

오 천 년 역 사 가 씩 씩 한

19


가 숨 을 짊 자 결 하 니 사 - 혈 이 복 받 - 혀 오 르 고

[illegible]

25

태극기 번듯 들어 대 한 - 독 립 만 - 세

27



— — — — — —

[illegible]


31 도 섭

— — — — — 만 세 삼 —

33

장을 부르시

35

37 

결말 '탄식'

작창 : 박동실

창 : 이성근

채보 : 김백찬 · 이동희

1 진양조 ♩ = 36



조 사 - - 지 어

2



올 리 - - - 더 - 니 -

3



그 자 - 리 가 - -

4



옆 드 려 - - - - - 지 드 니

5



아 이 고 분 하 여 라 - - - - -

6



우 리 충 성 이 부 족 튼 가 - - -

7

국 가 - - 운 명 이 불 - - - 길 틈 가 -

8

만 - 리 화 란 - 복 명 하 예 - - -

9

국 가 대 세 가 그 룯 - 되 니

10

무 - 손 - 면 목 으 낫 - 을 - - 들 고 고 향 - - - 산 천 을

11

돌 아 가 며 구 중 - - 궁 궐 상 감 - - 마 마 를

12

왕 반 서 로 - 볼 것 이 니 -

13

무 손 말 로 - 내 - 답 하 리 요 - - -

14

선 생 은 만 사 를 - 잊 고 가 지 만 - - -

15

이 - 다 음 - - - 일 을 - 어 찌 하 리 - 어 음 - -

16

어 음 - - - 어 음 - - - - -

17

울 음 을 - - - 운 다

부 록 2

정철호 <이준열사가>

발단 ‘밀사파견’	139
전개 ‘여정’	141
전개 ‘이준심상’	144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압박’	150
절정 ‘이준 분노 · 자결’	151
결말 ‘축문 · 탄식’	152

발 단 '밀 사 파 견'

작 장 : 정 철 호

창 : 성 창 순

채 보 : 이 동 희

중모리 ♩ = 136



민 심 이 소 라 - 하 고



의 병 - - 이 일 어 - 날 - 제



때 마 - 침 화 란 - 의 - 헤 이 그 에 서



벌 어 지 는 - - 만 - 국 - 평 화 회 - 의 에 -



각 국 - - 대 - 표 모 인 - - 지 라 -



고 종 - 은 - 밀 사 - 로 서 이 - 준 - 열 -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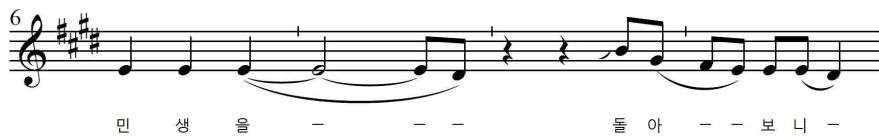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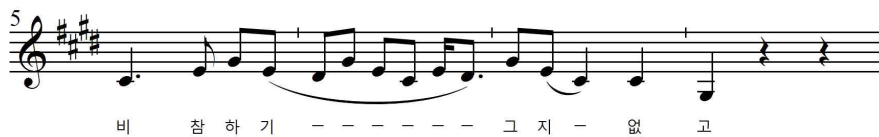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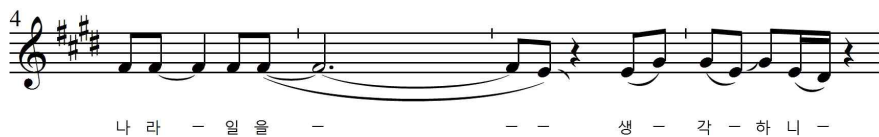
전 개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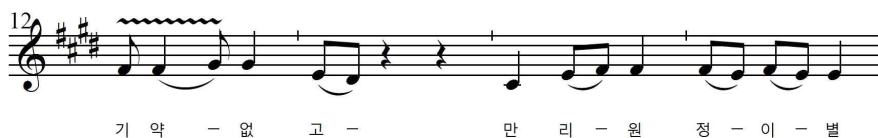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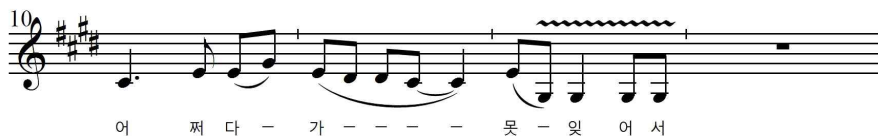
작 창 : 정 철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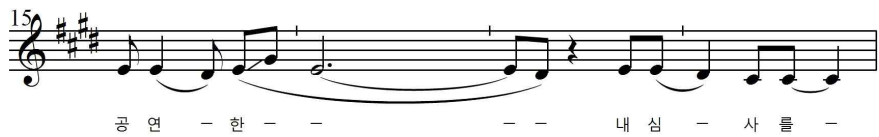
창 : 성 창 순

채 보 : 이 동 희

중모리 ♩ = 136







전 개 '이 준 심 상'

작 창 : 정 철 호

창 : 성 창 순

채 보 : 이 동 희

진양조 ♩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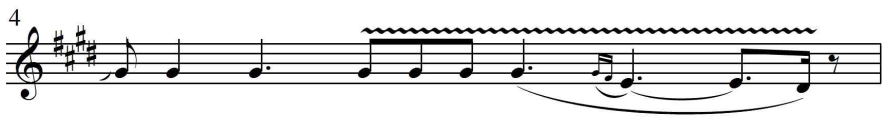
흰 구름 - 저 멀 - 리



한 양 - 성 - 을 - 바 라 - 보 며



읍 하 - - 고 - - 황 배 하 니 - - -



두 눈 에 눈 물 인 가 - - -



군 신 유 의 중 커 - - 니 와 - - -



다 시 - - 뵈 기 - 어 려 - 워 라



성 내 성 외 백 성 - - 들 은 - - -



충 성 충 효 - 간 곳 - - 없 고 역 신 - 이 -



득 세 - 하 니 - 인 - 걸 인 들 - - 있 을 소 - 냐 -



원 산 항 - - 뒤 - 로 하 - 고 동 해 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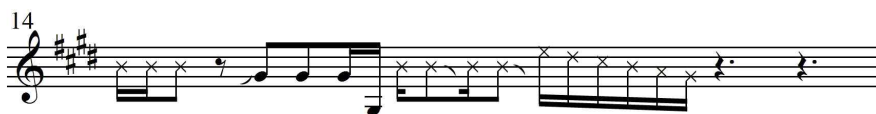
북 상 할 제 - 망 - 망 - 대 - 해 푸 른 들 은



이 - - 국 - 한 - 을 자 아 낸 - 다 - 파 도 는 출 령



- 출 령 뱃 - 머 리 는 탕 탕 풍 랑 은 우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갈 매 기 는 까 옥 까 옥 까 르 르 르 르 르



목 이 매 여 울 - - - - - 며 불 - 며



비 거 - 비 - 래 - - 하 - - 는 구 나 - 물 새 야 -



우 - 지 마 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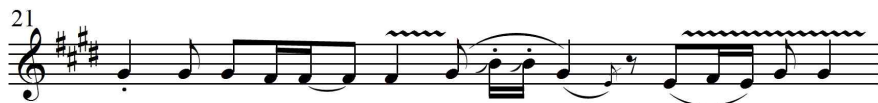
너 가 - - 는 곳 그 어 - - 데 나 -



군 - 신 정 상 알 겠 거 든 - - - - -



내 한 - 말 - 을 - - 들 어 다 오 - -



남 쪽 하 늘 을 - 구 중 - - - - - 궁 궐



한 - 양 성 을 찾 아 - - - - - 가 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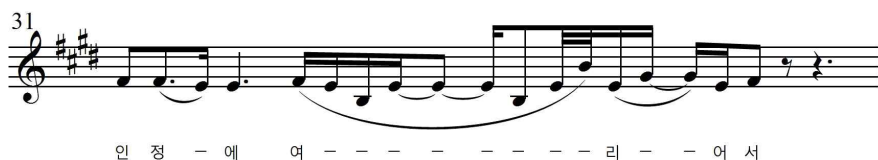
서 상 - - - 에 - - 해 지 - - - - - 거 든 -



우 리 - 성 상 찾 아 - 뵈 고 미 려 - 한



이 - - 준 - 이 - - 만 일 - 불 행 - 하 읍 건 - 데





아 - 니 올 수 - 있 겠 - - 는 - 가 - 구 곡 간 장



흐 른 - 눈 물 피 가 - 되 어 - - 떨 - 어 - - - 지 고 -



조 국 강 - 산 - - 탄 - 식 - - - 을 - - - 하 여 -



퍼 버 - - 리 고 - - 어 - - - -



평 무 - 평 - - - 평 무 다

위기 '밀사파견구실 고종 압박'

작 창 : 정철호

창 : 성창순

채보 : 이동희

중모리 ♩ = 142



이 때 에 이 - 등 방 - 문 밀 사 파 견 -



구 실 - - 삼 고 이 완 용 을 앞 장 세 워



고 증 을 위 - 협 하 며 책 임 을 추 중 - - 하 고 -



고 종 을 - 양 위 - 시 켜 - 순 종 이 즉 위 하 니



만 - 사 는 - - - 어 뉘 - 도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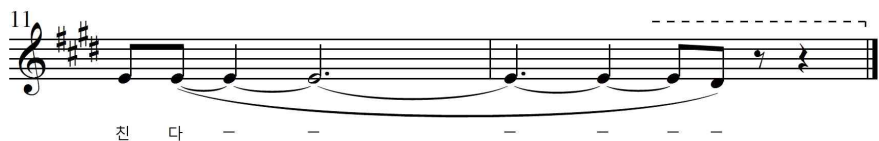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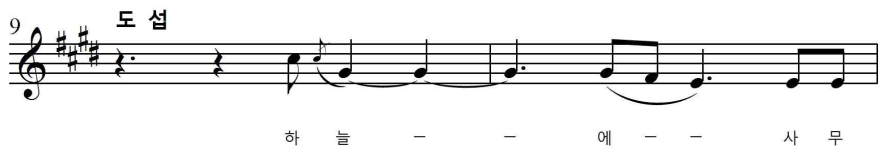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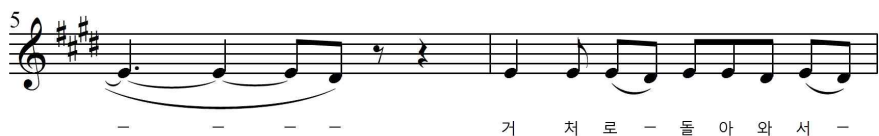
절정 '이준 분노 · 자결'

작창 : 정철호

창 : 성창순

채보 : 이동희

엇모리 ♩ = 240



결말 '축문 · 탄식'

작창 : 정철호

창 : 성창순

채보 : 이동희



이 상 설 이 위 중 은 -



땅 을 - 치 - - - 고 - - 통 곡 하 되



님 - 의 가 신 뢰 이 - 려 니 - 이 - - -



유 - - 명 - 이 - - 다 른 - 지 라



묘 - - 지 에 - 안 - 장 하 고 - - -



조 - 문 - 울 - 려 울 음 - - 울 제 -



13

다 시 - 만 - 나 미 - 진 - 한 - - 이 원 한 을 - 여 한 없 이

14

푸 사 이 다 - - - - -

15

하 늘 을 원 - 망 하 고 -

16

땅 을 - 치 - - - 머 통 - 곡 한 들

17

망 국 의 비 애 가 - - -

18

이 에 - 서 더 할 소 나 - - - - -

19

정 - 신 - - 이 - - 아 득 - - 하 고 - - -

20

훈 - 백 이 - - - - 산 란 - - 하 여

21

기 절 - 훈 - 돈 - - 하 - 었 다 가 - - -

22

다 시 - - 깨 - 어 통 - 탄 - - - - - 할 - - - 제

23

몸 부 림 방 송 - 통 곡 - - -

24

는 뜨 - - 고 - 는 - - 볼 수 - - 없 네 -